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0 1981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91 1981년8월13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August 13, 1981

8·15에 사 면

光復節에 김대중釋放說

병원이나 자택에 연금될듯

◇석방설이 도는 김대중씨

〈동경-UPI〉 한국정부는 광복절인 15일 내란선동혐의로 무기형을 복역중인 김대중씨를 석방할지도 모른다고 외교소식통들이 11일 밝혔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이 소식통은 김씨가 올해로 36주를 맞는 8·15 대사면조치로 석방된후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김씨는 병원이나 자택에 연금될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김씨가 석방후 즉시 미국으로 망명할 가능성을 부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광주사태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전두환대통령이 지난 1월 무기형으로 감형했었다.

한 외교소식통은 김씨사면에 대한 공식발표가 15일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더 이상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미국무성은 11일김씨석방설에 대해 논평을보류했다.

동아시아담당 제임스·메가드 대변인은 "이 문제에 관해 어떤 암시도 주고싶지 않다"고 말했다.

남북적십자회담 촉구

김총재, 회담 10돌에 호소

(서울12일=연합)대한적십자사 김용식 총재는 남북대화 재개 10주년을 맞아 "남,북한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자"고 북한 적십자사에 촉구했다.

최근 주미대사직에서 대한적십자사로 전임한 김총재는 12일 성명을 통해"나는언제 어디서든지 북한적십자 총재를 만나 그동안 중단된 남북적십자회담 을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남북대화가 끊긴지 벌써 8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남·북 적십자사는 71년8월12일 남북한 당국의 지원아래 판문점에서 만난후 서울과 평양등에서 회담을 벌였었다.

그러나 2년동안의 회담은 별 진전이 없었으며, 북한측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했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이남북적십자회담이 이번 김총재 성명으로 재개될 전망은 분명치 않다.

현재 남북의 이산가족은 약 천만명으로 추산된다.

부산에 위조지폐

미화 $100짜리

(부산12일=연합)최근한국에 미화 100짜리 위조지폐가 나돌고 있다.

첫번째 위조지폐는 지난 7월6일이후 4번 외환은행 부산지점에서 발견됐다.

위폐는 외항 선원들이한화로 환전하려던 미화100달러뭉치 속에 끼어 있었다.

이 위폐중 하나는 인터폴(국제경찰기구)이 수배중인 것이었다.

미화 100달러짜리 위폐는 최근 수년간 유럽,아시아,아프리카등지에 나돌아 각국경찰은 위조단 색출에혈안이 돼있다.

위폐들은 육안으로는 식별키 어려울만큼 정교하다.

한국, 호주 대파 14 : 2

캐나다, 미국도 격파

(에드몬톤)투수의 활약으로 강적 쿠바를 2:1로 물리쳐 관중을 놀라게했던 캐나다는 이번엔 무패의미국을 홈런 3방으로 격파, 다시한번 아마츄어 야구계를 놀라게 했다.

12일 이곳에서 속개된 「대륙간 컵」쟁탈 세계야구대회에서 캐나다는 6승무패의 미국을 물리침으로써 4승2패로 결승리그 진출전망이 밝아졌다.

한편 캐나다와의 한판을 남겨놓은 한국팀은 12일장효조,김재박등의 홈런 4개로 호주를 14:2로 대파했다.

이에 앞서열린 쿠바와파나마의 경기는 9개 홈런이 난무하는 가운데 쿠바가파나마를 23:12로 물리쳐, 결승리그 진출이 확정됐다.

나머지 두팀은 4승2패동률인 한국,캐나다, 도미니카의 13일 게임에서 결정된다.

(관련기사 2면)

피터·로스신기록

프로야구 3,631개안타

(필라델피아)미국프로야구의 노장 티터·로스가 드디어 3,631개째 안타를 날림으로 이제까지 최대안타기록인 스탠드.뮤지얼선수의 3,630개를 돌파했다.

로스는 근 두달동안 7번째의 타석만에 새 세계 기록을 세운 것이다.

야구시즌 재개 첫날인10일 로스선수 소속구단 필라델피아는 세인트·루이스·카디널스에 7:3으로 졌으나 로스의 신기록은 구장에 모인 6만여명의 관중을 열광케 했다.

로스·선수는 8회말 4 번째 타석에서 카디날스의구원투수 리텔의 커브볼을받아 레프트앞 안타를 날렸다. 이 순간 구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진동했다.

로스는 전기록 보유자스탠드·뮤지얼의 축하를 받았다. 리건 대통령도 로스에게 축하전화를 걸고 "야구의 맛을 새롭게했다"고 말했다.

이 기록을 수립키 위해 로스선수는 클리브랜드 에서 자동차로 8시간반이나 달려 겨우 구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미국은 현재 관제사들의 파업으로 선수수송에 애를 먹는다.

한인볼링협회 창립기념대회

한인볼링협회 창립기념 볼링대회가 오는 22일(토) 하오 1시 33 사모·로드 의 플레이타임·볼링장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부부전, 남자개인전,여자개인전등 여러 경기종목을 갖고있다.

참가신청은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며,참가비는 $5이다.

시상은 부부전과 개인전에서 남녀별로 1,2,3등 을 뽑는다.

이 외에도 하이·싱글 부문에서도 남녀 장려상이있다.

오는 9월13일 부터는 한인볼링리그가 시작된다.

문의처 : 742-2193

볼링협회는 지난 4월21일 창립된 이후 임원·이사진을 다음과같이 결정했다.

◆임원진
회 장 : 정용필
부 회 장 : 장인택
총 무 : 오상균

◆이사진
이 사 장 : 전기덕
부이사장 : 이상수

항공교통 큰 지장

관제사들 사보타지 계속

지난3일 시작됐던 미국관제사들의 파업은 캐나다를 위시한 유럽각국 관제사들의 사보타지를 유발, 북미대륙과 유럽간 노선등 전세계 항로의 마비를 가져 왔다.

캐나다 정부는 12일하루동안 캐나다 영공을통과, 뉴욕과 런던을 연결하는항로통제를 중단 했었다.

이 항로를 통제하는 캐나다의 갠다통제소의 관제사들은 안전운행 불가능을 이유로 항공기 관제를 거부했다가 캐나다 정부의협상내지 설득으로 26시간후 항공통제를 다시 시작했다.

토론토공항, 런던 히스루공항, 뉴욕의 케네디공항등에는 비행기를 취소당한수많은 여행객들이 30시간이상석을 기다려야 했다.

계펜 연방교통부 장관과 관제사 대표들은 10시간의 회담후 갠다통제소를 다시 운영키로 합의, 12일아침 6시부터 통제를 시작했지만 많은 비행기들이 관제사들의 지연작전으로 취소내지 연발했다.

C·P항공사 대변인은 11일 하룻동안 6편의 유럽행 비행기가 스톱, 운행스케줄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발표했다.

비행기를 못 탄 많은 승객들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담요를 덮고, 오트밀을 먹으며 공항 대합실에서밤을 새웠다.

갠다통제소는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비행기에일기등 정보를 제공하고 항로를 관제하는 주요 항공통제소 이다.

뉴욕등 미국 각 도시를 출발하는 비행기중 일부는 대서양 남단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약 12,000명의 관제사를 해고시킨 미국정부는 미국에서하루 이륙하는 1만4천대의 비행기중 75%를 파업에 참가하지않은관제사와 군 관제사를 이용, 운항 시켰다.

루이스 미 교통장관은11일 "리건대통령은 파면된 관제사를 다시 복직시키는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않는다"고 말해 미국정부의 강경자세를 재확인 했다.

12일 국제항공관제사 협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미국관제사 파면에대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12일현재 스페인 관제사들은 미국행 비행기들의항공통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관제사협회총회결과에따라 세계각국 관제사들은 공식적 동정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각국정부는 법원의 명령등을 통해 관제사들의 통제거부를 막을 움직임이다.

한편 캐나다정부는 고용계약 만료로 오는 가을에 있을지 모를 관제사들의합법적 전면파업에 대처, 관제사 파업을 불법화 시킬 법적조치를 강구 중이다.

◇영국 베드포드·스쿨 학생들이 11일밤 토론토공항 터미날 1 브리티쉬·에어웨이 카운터 앞 콘크릿 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 이들을 태우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갈 레이커·에어웨이 항공편은 공항관제사의 지연작전에 걸려 묶였다. 많은 여행객들은 에어·콘도 없는 비행기 안에서 곱추잠을 잤다.

양도시 축구전 23일

토론토대 몬트리얼

토론토·몬트리얼 교민간의 친선을 도모키 위한 제4회 몬트리얼·토론토 학생친선축구대회가 23일 하오3시 몬트리얼 켄트·팍에서 열린다.

이 대회는 토론토의 동우회와 몬트리얼의 서독친우회가 양도시 교민및 학생들의 친목도모를 위해공동주최하며, 몬트리얼과 토론토에서 해마다 번갈아개최돼 왔다.

이번대회를 마지막으로 서독친우회와 동우회는 이 행사를 양도시 한인회로이관할 예정이다.

금년대회의 토론토 팀은 천주교 학생팀이 출전하며 신우원 동우회 체육부장이 인솔한다.

한편 몬트리얼팀은 그동안「타도 토론토」의 기치로 약 80명의 몬트리얼한인학생중에서 선발한 선수들이다.

이들은 지난 2개월간 꾸준한 연습을 거듭해 왔다고 몬트리얼 서독친우회의 유동훈 단장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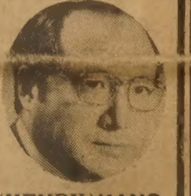
지금까지 토론토는 제1회 대회부터 작년3회 대회까지 압도적 스코어 차이로 연승해 왔다.

학생게임에 앞서 [illegible]임으로 토론토 [illegible] 트리얼 서독친우[illegible] 으로한 성인들의 [illegible]이 벌어진다.

연락처 : 〈몬트리얼〉유동훈 (514) 481-4411
〈토론토〉 신우원 (416) 438-4519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영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bscription fee $90. per year $8.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9184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536-1692
R.245-3339

생명보험

(HENRY)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安康寧藥材行
안강용 한약 건재상
On Hong Ling Herbs Co.

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로 봉사
招志和, 李樹鴻, 周楚, 黃國威

● 진풍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평소에 뜻한바 있어 금번 중국에서 30여년 한약에 대해 많은 연구와 경험을 쌓으신 중국인 의사 네분을 모시고 교민여러분 가정의 건강관리에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코자 중국인 의사와 같이 아래 장소에서 한약도산매을 하였사오니 일차 왕림하시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호 원 PETER CHAN 배

465 DUNDAS ST. W., TORONTO
(DUNDAS×SPADINA)
TEL: (416) 363-3883 363-2088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M5S

실협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MOBILE DR
TOR M4A 1H9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 회 장 : 임 철 원
〃 : 김 명 정
이 사 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점차 개선되는 배달사고들

회원들의 대부분이 딜리버리 드라이버들의 횡포에 시달려오던 문제들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음이 판명되었다.

그동안 협회 사무실로고충을 호소하던 회원들의전화가 요즈음에는 한결 줄어들고 있음이 그 좋은 예가된다.

하루에 십여통화 이상의 전화가 대부분 주문수량의 차이, 물품 바꿔치기, 청구서(Invoice)조작, 안하무인격인 자세, 언동등등 이루 헤아릴수 없는 문제들의내용 이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어 근래에는 한 두 통화가 가끔 그런 내용들이라고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는 협회에서 해당회사에 강력히 그런사고 내용을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해 오고있기 때문이며, 드라이버들도 K·B·A 라는단체의 막강한 단결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몰지각한 소수의 드라이버들이나 임시 드라이버들이 여전히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회원들 들로서도 가능한 충돌을 피하고, 먼저 본인들에게 시정을 권하고, 안되면 담당 세일즈맨들에게,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협회로 연락하기 바란다.

그들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인간애를 통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서로 유익된다는 사실을 잊지말기를당부한다.

제3회 정기이사회 소식

지난 7월31일(금) 하오7시 Downsview에 있는 전윤식 부이사장 댁에서 제3회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부부동반의 이사23명이 참석, 푸짐하게 준비된 저녁을 나눈후 9시에김태진 이사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었다. 6월초에 취임한 신임사무장 조남유씨의 인준문제를첫의제로 채택하여 인선경위를 이형인 회장이 설명하고, 사무장의 인사를 들은후 인준의 가부를물어 만장일치로 인준을결의했다.

다음집행부의 업무 보고로 이형인 회장이 보고했으며, 재정보고는 임철원부회장이 했으며, 각분과위원회 보고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서동준 감사가 7월27일에 실시한 중간사무감사보고를 했다.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에서는 너무 장대한 사업의 추진이기 때문에 우선 정관을 만드는일에 착수하여 자료수집을 마무리 짓고, 다음 회의에는 그것을 축조심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는 보고를 차선겸 총무이사가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기할만한 결의사항이 없었으며, 금년도 정기총회 이전에두어 차례의 이사회가 모이게 될 것이라는 이사장의 발언과 특별히 각 분과 위원회가 그 활동을 활성화 시켜주도록 촉구하는 격려의 말을 마친후 박찬도이사의 폐회동의로 제3회정기이사회가 끝났다.

인터씨티 택 수당
협회사무장 직접 전달

지난 7월초 인터씨티잡지회사에서 보내온 펜트하우스, 오미니, 포름잡지의디스플레이·택 수당(80년도7, 8, 9월분)이 나온것을 기보한바 있거니와 그동안 우편파업으로인하여 각 회원들에게 첵크를 전달치 못하였다.

금주부터 협회는 사무장이 직접 회원들 스토어를 방문하여 전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그 일을 착수했다.

사무장이 직접 전하는것은 협회가 회원들의 형편을 살피고, 노고를 위로하며, 그 유대감을 다지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기회에 회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수합하여 움직이는 협회의 진로에 참조하려는 것이다.

한편 랙 수당의 80년도 마지막 분기분과 금년초의 수당도 신청, 수속이 급속도로 이루어져, 수일 안으로 내도될 것이라고 실무자는 밝히고 있다.

교 민 동 정

◆장순채(아리랑식당경영) =지난 8일 장녀 헬렌양의 피로연을 갖자마자 12일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여행 목적은 8·15경축식에 참석하고 고국에 계신 84세의 노모를 모셔오기 위한것이다. 홀어머니가 너무 연로해서 단독여행이 불가능, 장사장은 한인회, 번영회, 체육회등일로 공, 사 다망중이지만 다시 귀국했다.

한국 숙적일본 또박살
세계야구대회서

(에드몬톤)「대륙간컵」쟁탈 세계야구선수권 대회에 출전중인 한국팀은 10일숙적 일본을 2:0으로 깨뜨려 일본을 결승리그 탈락직전에 몰아넣었다.

일본은 계속 3게임을 져 4팀이 벌이는 결승리그 진출가망이 없다.

일본이 세계야구 대회에서 이렇게 궁지에 몰린것은 처음이다.

75년 이대회의 선수권자인 한국은 이번 일본과의 경기에서 8회초 0의 균형을 깨뜨리고 단숨에 2점을 올려 승기를 잡았다.

기묘한 번트안타로 진출한 김재박은 후속타자의희생번트로 2루에 진출했다.

아웃스코아는 풀·타자박스에나온 유두열의 레프트앞 단타로 새퀸의 김재박을 불러들여 결승점을 올렸다.

이어나온 김정수 선수는 3루선상을 흐르는 안타를 날려 1점을 추가, 승리를못박았다.

오랜 숙적 한국과 일본은 이날경기가 결승리그진출의 마지막 고비였다.

한국은 1회초에 선제점의 기회를 놓쳤다.

노아웃 만루찬스였다. "김용희선수가 히트를 치면다음타자에게 스퀴즈·플레이를 시키려고 했지만 제대로 안됐다"고 한국대표 팀 어우홍감독은 말했다.

이날의 수훈선수는 역시 한국팀 투수진, 경북고 동창생인 황규봉, 이선희선수였다. 선발로나온 황규봉 선수는 6회까지 무실점으로 막고, 이선희선수가 계투했다.

7회부터 3회를던진 이투수는 교묘한 커브와 컨트롤로 마지막 안간힘을쓰는 일본타선을 2안타무실점으로 막았다.

"우리선수들이 이선희에게 다시농락 당했다."고 수즈끼 일본팀감독은 말했다.

이투수는 각종 국제야구대회에서 일본인 킬러로알려졌었다.

이로서 한국팀은 3승1패로 캐나다와 같이 4승의선두 미국을 바짝 쫓고있다.

한국, 큐바에 0패 세계야구대회리그

(에드몬톤)한국팀은 11일 큐바와의 세계야구대회대전에서 8:0으로 참패, 3승2패로 미국, 큐바에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말부터거행될 4팀의 결승리그 진출은 낙관시 된다.

한편 한국과같이 2위를 달리던 캐나다도 도미니카에 10:6으로 져 한국과같이 3승2패로 3위에 주저앉았다.

회원가족 골프대회
한맘골프클럽 주최

토론토의 한맘 골프클럽(회장 홍진표)은 오는 22일(토) 상오10시, 파크뷰골프클럽에서 제6회 회원골프대회를 연다.

참가범위는 회원과 회원가족, 회비 $15

감 사 말 씀

온타리오 한인 실업인협회 주최 제1회 친선골프대회를 대 성황으로 치르도록 협조와 후원해주신 참가자 여러분과 도어·플라이즈를 위하여 값진 물품을 기증해 주신 여러 기업체들과 개인들에게 지면을 통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대회의 경험을 살려 차기대회에서는 더욱 알찬기회가 되도록 노력할것을 약속드리오며, 협회 사업에 더욱 성원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1981년 8월10일
실업인협회장 이형인

◇상품 보내주신 곳
Silverwood dairy
Humpty Dumpty
Rothmans & Pall mall
Tabacco (차영신)
Intercity News
Hostess
General Bakeries LTD
Canada Bread LTD
York Ice cream
Davis Distributing
Impereal Tabacco
Macdonald Tabacco
Coca cola Canada LTD
Skyway Business Machine (김인환)
City Sign (홍진표)
협회이사일동
(한인업체의 기증은 일체 사양 했었음을 밝힙니다.)

주간女性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㊴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이제 나는 편한 마음으로 여름의 평원을 둘러 볼 수 있었고 처음으로 아름답다는 느낌마저들며 바렌랜드라는 불명예 스러운 이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은 아마 겨울철에는 어울릴런지 모른다. 그리고 남쪽의 나무들과 경작지만 보아온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생각이 될 것이다. 나 또한 2년을 그곳에서 지내면서도 그 말을 쓰고 그렇게 생각했었다.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바라보면서 처음엔 여기저기 노란초록색이 줄무늬처럼 혹은 군데군데 보였지만 대체로 연한 다갈색의 끝없는 세계였다. 그것이 바렌의 풍경이기도 했지만 대낮에 보면 수천가지의 각기다른 자연미를 감추고 있었다.

그림물감처런 도랑과 웅덩이를 적셔논 짙은 코코랫색깔의 수렁은 키가자란 갈대가 주위에 무성하게자라나 있었다.

이 푸른 초원위로 갑자기 솟은 언덕위에는 짙은 초록색의 자작나무숲이 넓은 공간속에서 눈에 잘 뜨일정도로 무성했고 그속에는 셀 수 없는 꽃들이 피어서 어떤 세상에서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비들을 불러들이고 있었다. 바위가 널려있는 언덕위에도 이끼가 회색바위를 덮어서 스펙트름을 통해서 보는붉홍색갈 혹은 짙은 검정 색갈에 가까운 흑장미의 색갈등 여러가지 색갈을 하고 있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각자의 색갈을 띴고 다만 지붕과 이돌을 담아 넣을 벽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구분해야 했다. 모든 색갈은 한꺼번에 들어왔고 시력으로 미치지 못하는 먼데것은 분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불모지만 보이고 작은 아름다움은 스폰지같은 단조로운 공간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이땅에서 내가건찰한 살아 있는 색갈이 다만 이것 뿐이었지만 또 볼것이 있었다.

우리들 앞에있는 마치 깨어진 거울조각 처럼 흩어진 수 없는 호수들은 난잡하게 널려있었다. 비늘처럼 반짝이는 호수사이에 리틀힐스가 보였고 멀리서 바라보니 형태가 없는 낮은 구름은 회색과 초록색의 이끼로 덮여있고 언덕위에는 시커먼 바위도 드문드문 보였다. 북쪽의 지평선을 따라 희미한 작은 호수들이 햇볕에 반사되며 마치 갈색풀밭의 이슬처럼 반짝였다.

(계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회원 문예작품 공모

본 협회에서는 1981년도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의 문예작품을 모집하여 우수작을 시상코자 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심을 바랍니다.

— 아 래 —

응모마감 : **우편파업 끝날때까지**
작 품 : 수기, 시, 수필, 꽁트등 원고제한 없음.
심사위원 : 추후 발표함
시 상 : 1등 상패및 부상($500현금)
2 〃 〃 ($200현금)
3 〃 〃 ($100현금)
원고제출처 : O. K. B. A.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원고 반환없음)

온타리오 한인실업인 협회

협회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각종 썬 그라스

•대폭적인 할인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洋漢方醫學 통합一元化

政府 醫療法 전면改正 추진

專門醫수련定員 대폭축소
家庭醫제도·醫保는 계속擴大
醫大에 漢方科를 신설 육성
診療거부 범위·基準 명문화

양·한방의료의 통합일원화와 전문의(專門醫) 수련정원의 대폭축소·가정의(家庭醫)제도의 보급확대등을 내용으로한 의료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보험의 계속적인 확대와 이를위한 의료시설 인력의 적정배치·의료전달 체계의 확립등을 뒷받침하기위해 의료법을 전면개정·보완키로했다.

10일 보사부는 이를위해 의료관계단체·학자·국회의원·변호사·언론인등 각분야전문가 32명을 참석시켜 첫 공청회를 열고 이들의 의견을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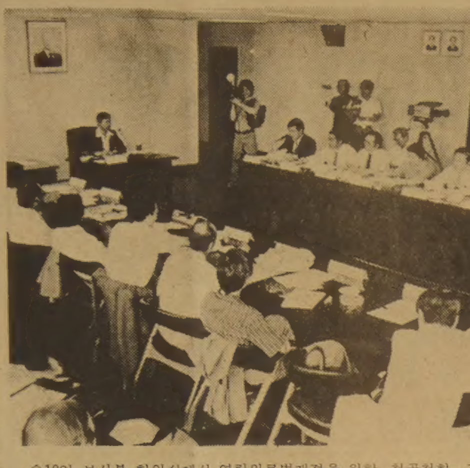
정부측은 이날 공청회에서 의료법 개정추진의 배경설명을통해 현행 단과전문의제도의 문제점으로▲대부분 의원급시설여건이 전문적인 고도기술발휘에 불가능한 실정이고▲의원 개업때 선전효과를 위한것에 그치는 경향이며▲단과전문의에 대한 선호도가 수요에 비해 격증하고(의대졸업정원의 75%이상이 전문의 지망)▲이에따라 단과전문의가 아니면 의사취급을 하지않으려는 풍조의 만연▲환자부담만 가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점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개보험(皆保險)을 목표로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전문의의숫자를 줄이는 대신 일반가정의 제도를 대폭적으로 보급, 확대시키며▲1·2차진료를 구분, 일반의및 가정의에게 1차진료를 전담시키며▲전문의의 대도시단독개업제한및 지방개업유도등 획기적인 대책이 불가피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측 관계자는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한방의료가 침체돼 있는 실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세계각국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으며日本, 中共등에서한방의학의개발, 보급을 활발히펴고있고특히북괴측이 최근 한방의학을 「東醫」라 고해 강력히 부각시키려 노력하고 있다는점등을 감안, 앞으로 한방의학을 크게육성 강화해 국민의료보장에 한몫을 담당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른 한방의학육성책의 일환으로 현재 법으로 구분하고 있는 한방의학과 양방의학을 통합, 한의와 양의(洋醫)를 일원화시켜 기초의학과정은 공통으로하고 한방의학을 전문과목의 하나로 선택, 전공케하는 한편 한방의학을 현대의학으로 검증, 발전시키는것을 병행하며 또 지금까지 공정규격이없는 생약에 대해서도 이를 과학적으로 개발, 수급하는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번 의료법개정에서는▲환자와 의료인간에 일어나는 진료거부등 말썽의 해소를위해 그 범위와 기준을 명문화하고▲현행 의료인의 정기신고제도를 보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한하도록하는 수시신고제로전환하며▲의사(醫事)분쟁조정을 위한 공식기구설치문제▲의료인재교육의제도화▲전문의의전문과목규제를현재의료법 본법에넣어 전문과목 신설때마다 법개정을해야하던것을 대통령령으로위임하는문제▲각종처벌규정의현실화문제등도 다루기로했다.

보사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의견을 반영, 내주중 개정시안을 확정, 오는9월 정기국회에 넘길예정이다.



◇10일 보사부 회의실에서 열린의료법개정을 위한 첫공청회。각계인사 32명이 참석했다。

美、中性子彈생산 결정

이미 組立시작…美國內만 備蓄

레이건、對蘇「힘의優位」정책 재확인

【산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州) 9日(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힘」의 입장에서 소련에 대응한다는 對蘇강경정책의 일환으로 中性子彈의 생산과「美國內」비축명령을내렸다고 백악관이8일발표했다.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주 와인버거국방장관및 헤이그국무장관등 행정부 고위관리들과의 협의를거쳐 이미 제조된 중성자탄부품들의 조립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는「힘」의 입장에서 소련과 협상한다는 그의 확고한 결의를 반영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성자탄의 부품들은 지난 78년4월이래 제조돼왔으나 유럽맹방들의 격렬한 반대에 따른 카터前대통령의 생산중단결정으로 조립이 중지돼왔었다.

스피크스부대변인은 지난 7일 국가안보위에서 내려진 레이건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에따라 중성자탄이 이미조립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그러나 중성자탄의조립이 완료되더라도『현재로서는』유럽에 배치되지 않고『미국영토내에』비축될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이번 중성자탄생산결정에 앞서 유럽맹방들과 사전협의를 가졌다고 강조했으나 이에대한 유럽맹방들의 반응이나 생산될 중성자탄의 숫자·비축장소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레이건 대통령이 주요 유럽맹방들의 반대에 부딪쳐 당분간 중성자탄을 미국내에 비축하도록 지시했으나 이 최종적 목표가 유럽방위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8·9월 資金공급 1兆5百億

通貨동향安定勢

秋夕전후 5千億여유

국내통화동향이 하반기들어서도 계속 안정세를 보임으로써 한달 앞으로 다가선 추석을 비롯해서 연말까지의 자금공급에 여유를 갖게됐다.

특히 추석이 끼어있는9월중에는 통화증발의 부담없이도 지난상반기중의 월평균 공급규모보다도 40%가 더많은 5천5백억원~5천억원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추석자금사정은 한결 나아질것으로 보인다.

10일 재무부가 집계한 7월중 통화추이를 보면 국내유동성수준을 나타내는 總通貨는 1천6백65억원이 늘어 작년말에 비해 8·2%, 작년동기에 비해서는 26·9% 증가에 그쳤으며 거래자금수요를 나타내는 通貨는 7월중 2천6백46억원이 줄어 작년말에 비해서는 9·5%가 감소했고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12·3%의 증가에 그쳐 통화공급의 안정세를 나타냈다.

國內與信은 월중 3천5백40억원(환율인상에따른 名目증가분 80억원포함)이나 공급되었지만 NFA(純外貨資産)이 2억9천만달러나 감소하는 바람에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1천8백1억 나 빨려들어감으로써 총통화는 1천6백65억원 증가에 그친것이다.

이같은 안정적통화공급에 따라 정부는 3·4분기중 國內與信공급예정규모 1조4천억원중 8·9월 공급분은 1조5백억원의 여유가 있어 8월중에 4천억원~4천5백억원, 9월엔 5천억원~5천5백억원을 공급할수있게 됐다.

추석이 끼어있는 9월중의 5천5백억원정도 공급규모는 지난상반기중의 월평균 국내여신공급규모 3천8백40억원에 비하면 월간1천7백억원이나 많은규모이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여신을 여유있게 공급하더라도 국내高金利등의영향으로차관원리금부담이 늘어남에따라 NFA적자폭이 당초예상보다 높기때문에 통화증발현상은 일어나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그런데 NFA적자폭은 당초 연간17억달러를 예상했었으나 지난 상반기중에 이미 11억4천9백만달러를 기록한데이어 7월중 2억9천만달러나 늘어나 7월말현재 14억3천9백만달러에 이르고있다.

訪韓 케이토首相 全대통령이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10일상오 청와대에서 세인트·빈센트國의 로버트·밀턴·케이토 수상을 접견하고 修交훈장光化大章을 수여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어 영부인 李順子 여사와 함께 케이토 수상내외를 위해 오찬을 베풀고 두나라 공통관심사에 관해 환담했다.

한편 영부인 李여사는 全대통령이 케이토수상에게 叙勳하는동안 케이토수상부인을 별도로 접견했다.

쇠고기값 表示制 단속

13일부터 부위別 等級판매등 重點

농수산부는 쇠고기 가격표시제 실시에 따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전국 정육점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여부를 집중단속키로 했다.

10일 농수산부에 따르면 쇠고기값 자유화와 가격표시제 실시로 모든 식육판매업소가 오는 12일까지 枝肉경락가격에 유통비용과 적정이윤을 가산한 판매가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한우 쇠고기 전문점, 한우 쇠고기와 수입쇠고기 겸업점, 수입쇠고기 전문점중 하나를 선택, 판매형태를 구분함에 따라 그 이행실태를 파악하기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한것.

농수산부는 각지도 국세청 경찰합동으로 실시될 이번집중단속에서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판매가격미신고, 허위가격표시, 부위별등급판매등에 대해서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할방침이다.

適正線이상 價格엔 소득標準率을 引上
國稅廳검토

농수산부는 또한 쇠고기판매가격을 적정선이상으로 받는 정육점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표준율을 차등인상해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 국세청이 이를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치안본부 團束

일부精肉업자 談合 판매價格 높게책정

한편 치안본부는 10일 지난5일부터 육류가격의 자율화이후 일부정육업자들이 업자간에 담합(談合)행위를 자행, 높은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고발에따라 일부정육점에 대해 일제단속에 나섰다.

경찰에따르면 정부가 육류가격자율화를 실시하면서 오는12일까지 쇠고기가격을 신고하고 가격표시제를 실시토록 하자 일부 정육업자들은 서로 짜고 시장가격보다 훨씬높게 판매가격을 매겨 수요자들을 울리고있다는것.

이에따라 치안본부는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이같은 정육업자를 강력단속토록 전국경찰에 지시하는 한편 치안본부수사대로 하여금 집중수사토록 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江東區 室4단지 상가1호 韓豊정육점 주인 朴홍석씨등 17개 정육업자들이 가격표시제 신고를 앞두고 사전 담합을 했다는 관계기관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어제 黨政협의회

敎育稅문제에 國會의견反映

정부와 民正黨은 10일저녁 서울三淸洞총리공관에서 南悳祐국무총리와 李載灐民正黨대표위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黨政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육세신설등 중요 현안문제들을 협의했다.

南총리의 초청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은 교육세의 신설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국민의 소리를 들어 多角的인 補完策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에대해 民正黨측은 국회와 民正黨의 의견을 반영할것을 약속했다.

이날회의는 또 오는9월정기국회의 대책을 논의했는데 民正黨측은 국회에서 심의할 법안이나 안건은 충분한 시간적여유를 갖고 심의할수있도록 미리 제출해줄것을 요청했다.

民正黨측은 또 이날 회의에서 地下鐵공사로 인한 시민의 不便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 工期를 단축하여 빨리 완성해줄것을 촉구했다.

鳳凰大旗 고교野球

오늘의 對陣 (11日)

◆1회전
▲聖光高-서울高 (10시)
▲冲岩高-仁川體高 (12시반)
◆2회전
▲光州商-大光高 (3시)

어제의 成績 (10日)

◆1회전

팀	1	2	3	4	5	6	7	8	9	계
東大商	0	0	1	0	0	2	0	0	0	3
浦鐵工	0	0	0	1	0	0	0	0	3	4
大邱高	0	0	5	0	5	1	0	0	1	12
京東高	0	0	3	1	1	0	0	0	0	5
善隣商	3	1	1	2	0	0	1			8
慶南高	0	0	0	0	0	0	0			0

〈7회 콜드게임〉

일요일의 成績 (9日)

◆1회전

팀	1	2	3	4	5	6	7	8	9	계
京畿高	0	0	0	0	0	0	0			0
釜山高	3	0	1	3	0	1	X			8
永同商	0	0	0	0	0					0
在日	0	1	2	5	2					10
東山高	0	0	0	0	3	0	0	0	0	3
光州一	0	1	0	0	2	0	0	1	X	4
徽文高	1	0	0	0	1	1	0	2	0	5
全州高	0	4	0	0	2	2	0	2	X	10
江陵高	0	1	1	0	1	0	1	…	1	4
德壽商	0	0	0	2	0	1	0	…	0	3

〈7회 콜드게임〉〈5회 콜드게임〉〈일시정지 계속경기〉〈14회 연장 계속경기〉

한독양말 협찬

社會漫評

"레이건 잘한다…"

地平線

『흔히 사랑은 동정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떤가요?』—스물일곱살의 새색씨를 앞에놓고 튀어나온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다。다행히 통역이 서툴러선지 이 미국인 새색씨는 말귀를 알아듣지못했다。『지금까지 사랑해본적이 있나요?』—새색씨를 사뭇 죄인 다루듯 다그치는 상식밖의 질문이 나왔다。새색씨가 난처해하자 네살아래의 신랑이 나섰다。

▼신랑은 지리산 산골에서 나환자 부모와 따로 굿굿이 살아온 건강한 청년。새색씨는 미국에서 평화봉사단원으로 왔다가 결혼한 아가씨였다。이들이 화촉을 밝힌 것은 지난5월9일이었다。대학까지 나온 아가씨가 네살 아래의 고교출신 청년과 결혼하다니 믿을수 없다는게 한국 사람의 상식인것 같다。텔리비전에 불러내 놓고 무리한 질문을 퍼부은 속사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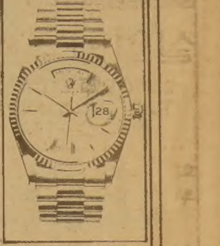
▼『어려운게 뭐냐』는 질문에 새색씨는 세번이나 한탄하듯 중얼거렸다。『문화의 차이、문화의 차이、문화의 차이』—몰상식한 질문들을 점잖게 돌려버린 셈이다。한국의 여성들이 새색씨보고 「사랑의 전과자」가 아니냐고 다그치는 것도 그런 문화의 장벽때문이다。스트롱양은 그런 장벽을 뚫어보겠다고 한국에 온 평화봉사단원이었다。

▼지난 66년부터 한국에 온 미국평화봉사단원들은 처음에 8개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서한다。①그들을 위해 그들 사회속에서 일한다②그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돕는다③시간을 어기지않고 도착한다④그들의 말을 쓴다⑤그들의 생활양식과 관습에 따른다⑥그들의 종교를 바꾸려 하지않는다⑦장사로 돈벌이를 하지않는다⑧정치·군사문제에 개입하지않는다。

▼61년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평화봉사단은 현재 세계62개국에 나가 있다。이번에 한국과 남미의 볼리비아、그리고 아프리카의 코트디브와르서 철수함으로써 59개국에 남게된다。우리나라에는 15년동안 51차례에 걸쳐 모두 1천7백35명이 왔다。처음엔 영어교육에 치중했으나 67년부터 보건、78년부터 사회복지사업으로 활동분야를 넓혔다。결핵·나병에서 맹아·농아교육에 걸친 것이다。

▼한국에와 있는 평화봉사단이 지난 7일 문을 닫았다。16년동안 초가에서 연탄불을 갈고、된장찌개와 김치를 먹었던 미국의 젊은이들이 돌아가는것이다。문화의 차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어 이땅에 왔던 미국의 젊은 이들이 남긴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인간은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깨달음이고、또한 불우한 사람을 도와야된다는 용감한 프런티어정신이 아닐까。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9
은 : 온스당 US 8.9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한인볼링협회 창립기념대회

금번 한인 볼링협회는 창립기념 볼링대회를 아래와 같이 갖사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장　소 : PLAYTIME BOWL LTD. (33 SAMOR RD)
시　일 : 1981년 8월22일 오후1시
게임종목 : 부부전-혼합 3경기 여 : 1, 3, 4, 7, 8
남 : 2, 5, 6, 9, 10
남자개인전-예선전 18등 까지 결승을 하게됨 (단, 총 6경기 종합순위 결정)
여자개인전-총 3경기
참가신청 : 당일 현장에서 접수함.
참 가 비 : 3게임당 $5·00
시　상 : 개인전 남 녀 1, 2, 3등
부부전 1, 2, 3등
HIGH SINGLE 남, 녀
장려상
연 락 처 : 742-2193(미스터 정)
622-0224(미스터 오)
759-8228(미스터 장)
주　최 : 한인볼링협회
후　원 : 대한체육회 재캐나다 지부.

8월휴가 모국방문 특별요금안내
출발일자 : 8월 7, 14, 21, 28일
(뉴욕경유, KAL편)
요금 : 성인왕복 $1180
어린이 왕복
(2~12세) $645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3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可恐할 中性子彈

破壞보다 人命 殺傷用으로

對美우세 蘇탱크軍 무력화

한 核전략가는 일찌기 이렇게 말했다. 『소련이 유럽을 침공했다고 하자. 그리고 그들이 로마를 점령했다고 하자. 그런 경우 로마교황과 바티칸궁전을 다치지 않고 聖베드로광장에 주둔해있는 소련탱크부대를 깨끗이 청소해버릴수 있다면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이론적으로 이같은 공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기가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 생산결정을 내린 中性子탄이다.

날로 커가는 핵폭탄의 무차별파괴력에대해 中性子탄은 폭탄이 떨어진 소위 폭풍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건물을 원형그대로 둔채 엄청난 人命살상력을 발휘한다. 파괴력은 재래식핵무기의 10분의1에불과하나 방사능방출량은 2배에 달해 그 방사능은 탱크의 철갑도 통과하여 승무원을 몰살한다.

中性子탄은 랜스미사일 또는 8인치 곡사포에달려 목표물 1백50m 상공에서 터진다. 1킬로톤 폭발시 폭발지점의 반경 4백20m 이내는 소위 폭풍지대로서 모든 人命이 살생됨과 함께 건물, 탱크등이 완전파괴돼 버린다. 4백20m에서 7백50m이내의 지역에서 방사능을 쬔 人命은 2일뒤 죽게되나 건물과 탱크등의 피해는 경미하다.

7백50m에서 9백m 이내에서는 건물, 탱크의 파괴가 전혀 없으나 방사능을 쬔 사람은 6일 뒤면 사망한다. 9백m에서 1천2백m이내의 지역이라도 방사능에 쬔사람은 수주일후에 죽게된다.

中性子탄은 9백미터이내지역의 人命을 살상하고 모든건물을 완전파괴하므로 그 피해가 1천5백미터에이르는 재래 전술핵무기의 무차별 파괴력에비해 人命살상력을 극대화한것이다.

중성자탄은 숫적으로 3대1의 우세를 보이고있는 바르샤바동맹국의 對유럽 탱크공격을 무력화할수있는 무기다. 중성자탄은 소련이 72시간에 유럽을 점령할수있을 것이라는 예전을 사라지게 한 神話的 무기로 불리고 있다.

핵과학자들은 지난58년에 벌써 중성자탄의 제조원리를 발견, 미행정부에 여러차례 생산을 건의해 왔으나 정치적 기술적으로 숱한 논란을 불러, 제조가 지연, 좌절돼왔다.

중성자탄은 핵융합무기로서 수소폭탄과 같은 제조원리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기능은 다르다.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투하되면 버섯구름 속에 무수한 방사능이 땅위에 떨어진다. 그러나 중성자탄은 방사능낙진이 없다. 【崔相鎬기자】

◇1kt 중성자탄과 10kt전술핵탄의 살상, 파괴 모형도. 【뉴욕9日AP聯合】

유럽에 政治的소요·反核 촉발시킬듯

【런던9日UPI=聯合】 레이건美 大統領의 중성자탄 생산결정은 심한 핵무기 유럽배치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유럽에 중대한 정치적 소요를 야기시킬것이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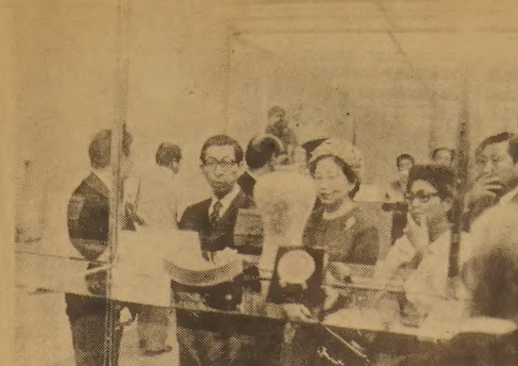
중성자탄 생산에 대한 반발은 중성자탄에 의한 물질적 피해가 비교적 한정되어 있어 야전지휘관들이 전쟁발발시 중성자탄의 사용을 당장 요구할수 있으며 그로인해 전면 核戰으로의 이행단계가 단축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나오고 있다. 중성자탄은 유럽지역에 사용하기위한 특수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당장 유럽에 배치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카터前美 대통령이 지난78년 중성자탄의 유럽배치를 위해 유럽여러나라의 양해를 구하려고 노력할때 헬무트·슈미트西獨수상은 거센 국내반발에도 불구, 이에 동의했지만 계획이 번복되는등 커다란 논란을 일으킨 바있었다. 슈미트수상은 현재 중거리핵무기의 유럽배치에 관한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 결정과 관련,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중거리핵미사일의 유럽배치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연말 蘇聯과 중거리핵미사일 유럽배치 제한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중성자탄의 생산결정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같은 결정은 日本원폭투하기념일을 맞아 반핵단체들의 反核운동이 고조되고 있는 때인 만큼 시의에 맞지않으며 反核항의를 촉발하는 결정적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

韓日관계 새轉換期

光復36年에 다시본 오늘의 日本 <5>



◇76년 京都국립박물관에서 개막된 「한국미술 5천년전」을 관람하고 있는 천황의 實弟 미까사노미야 (三笠宮) 부처.

이사갈수도 없는 韓日양국

뿌리깊은 反目·질시버리고 共同運命體의 재인식 필요

서로의 自負心탈피 새관계定立노력할때

일본은 우리가 세계로 도약해나가는데 넘어야할 하나의 디딤돌이다. 일본은 우리가 따라잡아야할 첫 목표였으리라.

한일관계는 이렇듯 「내셔널리즘」에서 출발하는일이 많다.

76년 한국미술 5천년전이 東京에서 열렸다. 주최자인 아사히(朝日)신문은 관람자에게 소감을 물었다. 대부분의 일본사람들은 『일본문화의 뿌리가 한국임을 알게됐다』고 피력했다. 그런데 한청년이 『도대체 속이뒤틀려 못보겠다. 이런것을 무엇하러 들여왔는가』고 아사히신문을 나무랐다. 이것이 일본인의 솔직한 심정이다.

韓日관계는 불행하게도 이해를 같이하지 못하고 서로 엇갈렸다. 일본은 한일합방으로 번영을 누렸고 한국동란으로 경제부흥을 이룩했다. 한국민은 일본을 역사의 침략자이며 가해자로 단죄한다. 우리민족의 통한인 38선도 따지고 보면, 일본에 原罪가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도 施惠者로서 군림하려고 한다. 아시아의 주인의식이 강하다.

53년제3차 한일회담이 시작됐을때 구보다 (久保田) 일본측대표는 『일본의 한국통치는 한국근대화에 공헌한 바 컸다』고 망언했다. 74년 다나까 (田中) 수상도 『한국의 의무교육과 김재배는 일본이 가르쳐줬다』고 호언했다.

이같은 認識의 격차가 한일간의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되고있다. 한일간에는 認識뿐 아니라 세대의 격차도 크게 벌어져있다.

일본의 정계는 노인천국인데 반해 한국은 일본말을 모르는 한글세대가 주축을 이루고있다. 스즈끼 (鈴木善幸) 수상이 古稀인 70세이며, 스즈끼수상을 받들어 주고있는 양대기둥인 후쿠다 (福田赳夫) 전수상이 76세, 다나까 (田中角榮) 전수상이 63세다.

일본의 정계요인들은 6월 동경에서 열린 한일의원연맹간사단 회의에 참석차 방일한 한국 국회의원들을보고 『참말로 젊다』면서 깜짝 놀랐다. 일본 국회의원들의 평균 연령이 56세이므로 그들은 제5공화국 발족으로 세대교체를 이룩한 한국정치인들의 젊음을보자 한편 부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감추지 않았다.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된 德川家康이나 不毛地帶등을 구입해서 일본말로 술술 읽는 植民세대는사라지고 일본말보다 영어와 불어를 더 자유롭게 구사하는 한글세대의 대두는 분명 한일관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것으로 예견된다. 식민세대가 일본에대한 鄕愁와 열등의식이 殘存해 있다면, 한글세대는 철저한 反日교육과 민족적 자부심으로 충만해있기 때문이다. 구김없는 한글세대의 진출은 오히려 과거에 매달리지않고 진취적으로 사물을 판단, 행동할수 있게한다.

매년 일본 총리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가장 싫은 나라가운데 한국은 소련다음으로 그 순위가 높다. 한국의 여론조사 결과도 일본이 가장 싫은 나라로나타나고있다. 이웃집과의 不和가 싫으면 이사를가면 그만이지만 이웃나라 사이는 그럴수도 없다. 그렇다면 韓日間의 기본관계를 어떻게 올바르게 재정립할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간단하다. 일본이 65년체결된 韓日기본조약의 정신과, 72년 닉슨 美 대통령과 사또 (佐藤) 일본수상이 선언한 共同聲明에 되돌아가 韓半島에 대한 인식을 재정립하면 된다.

韓日基本조약에서 『한국은 유엔에서 결의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했듯이 일본은 北傀를 의식한 양다리외교를 止揚하고 한국의 안정이 일본의 안정이라는 공동인식에 충실해야 할것이다.

한국인은 일본에 漢字와 佛敎등 文化를 전수해줬다는 자부심을 버리고, 또 일본은 한국을 식민통치했다는 오만한 마음을 버릴때 비로소 진정한 友好의 기반이 다져지고 協力의 자세가 생성될것이다.

韓日관계에서 金大中사건이나 文世光사건, 그리고 [illegible]이 차지하는 의미는 크며 심대했다. 이를 하나하나의 사건은 한일외교관계를 막다른 대로까지 내몰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韓日 양국이 공동운명체라는 흔들리지않는 기본인식을 재정립한다면, 그밖 차원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건들은 실무선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8월20일의 韓日외상회담과 9월10일 3년만에 열리는 閣僚회의, 그리고 연말이나 내년初에 열릴 韓日頂上회담을 통해 확고히 다져져야 할것은 전환기를 맞는 韓日관계의 기본이 될 韓半島에 대한 공통인식이다.

【東京=宋孝彬특파원】

基準油價 34달러로

OPEC 19일회의서 引上결정

【런던10日AP=聯合】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기준유가를 현행 배럴당 32달러에서 34달러로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런던에서 발행되는 파이낸셜·타임즈紙가 10일 보도했다.

타임즈紙는 OPEC의 이같은 유가인상결정이 오는19일 제네바에서 열릴 OPEC 특별각료회의에서 공식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우디 中東평화案

이스라엘 拒否방침

【예루살렘10日UPI=聯合】 최근 발족한 이스라엘 새내각은 10일 발족후 첫회의를 갖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하드 황태자가 제시한 중동평화안을거부할 방침이라고 이스라엘정부관리들이 밝혔다.

이스라엘외무성대변인은 이미 9일 파하드 황태자의 평화안에 캠프데이비드협정을 파괴하려는 기도가 숨어있고 결국 이스라엘을 중동협상무대에서 축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안의 수락을 거부했었다.

한편 이스라엘야당인 노동당지도자 시몬·페레스씨도 사우디의 평화안이 미국의환심을 사려는 제안이라고 지적, 수락할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사우디가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제조건을 달지말고 이스라엘과 직접대화를 해야할것』이라고 주장했다.

포르투갈 핀토首相

수상직 곧辭任

【리스본10日AP=聯合】 프란시스코·핀토·발세마오 포르투갈수상이 10일 수상직을 사임할것이라고 포르투갈신민당의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

協商·再雇用 거부

美政府, 관제사파업에 계속強硬

외국관제사同調 개의않해

【워싱턴9日=聯合】 美항공관제사기구(PACTO) 소속 관제사들이 8일째 파업을계속하고있는 가운데 프랑스와 뉴질랜드등 외국관제사들은 8일 국제항공관제사협회연맹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국행항공편을 봉쇄하기로 결정했으나 레이건美행정부는 美관제사파업에 대한 외국관제사들의 지지행동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있으며 레이건대통령이 현재의 강경방침을 계속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항공관제사노조의자크·푸르나에대변인은 프랑스관제사들에 미국행항공기의 관제업무를 전면 거부하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지시는 『對美항공여행의 안전이 극히 우려되기때문에 내려진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뉴질랜드의 관제사들도 이날 美관제사들의파업을 지지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9일자정이후부터 일체의 미국행항공기의 관제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렌·레이먼 뉴질랜드관제사협회장이 밝혔다.

그러나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은 외국관제사들의 美관제사 파업에도 불구, 항공업무는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루어져왔다고 말하고 레이건 대통령은 외국관제사들의 파업지지행동을 전혀 우려하지 않고있으며 파업에 참여한 1만2천명의 관제사들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피크스 대변인은 이날 레이건 대통령이 휴가를 즐기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산타바바라에서 기자들에게 파업관제사들을 재고용하지 않겠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당초 입장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히면서 관제사들의 파업은 지금까지 『아무런 중대문제도 야기시키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별문제가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렌치·스미드 법무장관은 이날 ABC방송의 「문제와 해답」 프로에서 레이건 대통령의 파업관제사 해고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파업관제사들은 결코 복직될수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加관제사 同調

當局선 파면등경고

【오타와10日UPI=聯合】 캐나다 항공관제사들은 10일 상오 7시 (현지시간) 를기해 긴급비행을 제외한 모든 미국출입항공기의 관제업무를 거부할것이라고 캐나다항공관제사협회 회장 빌·로버트슨이 밝혔다.

로버트슨회장은 이같은 캐나다의 對美출입항공기 관제업무의 보이코트가 美항공관제사들의 파업에따른 미국비행 항공기의 안전이 약화된 때문이라고 밝히고 캐나다 국내선비행의 관제업무는 완벽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터·푸록스 캐나다항공국장은 항공관제사들이 만일 미국출입항공기 관제업무를 거부할경우 관제사들을 징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東南亞 平和案지지

趙紫陽 어제馬聯着

【쿠알라룸푸르9日路=聯合】 중공수상 趙紫陽은 9일 동남아시아에 평화·자유중립지역을 설치하자는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의 제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아세안4개국 순방중 두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지아에 도착한 趙紫陽은 이날밤 다투크·모하메드 말레이지아수상이 베푼 환영만찬연설에서 域內평화와 안정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높이 찬양하면서 아세안의 제의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독립후 첫 平和的 政權이양

10월 辭任할 네윈 버마大統領

비동맹中立·正義바탕 社會主義건설 추구

2번無血쿠데타: 黨首再選정치활동 계속

◇네·윈 대통령

버마는 네·윈 대통령의 下野의사 발표로 48년의독립이후 처음으로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맞게됐다. 네·윈 高齡이라는 공식이유도 있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권력을 이양함으로써 전통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상황에의해 강요받기보다는 스스로 선택한 시기에 순조로운 이양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illegible]

네·윈은 두번의 무혈쿠데타로 집권해온 인물이다. 이번 10·윈은 48년의 독립후 58년 9월 軍참모총장으로 유엔(?) 정부를 [illegible] 60년총선에서 反파쇼인민자유연맹 정부를 [illegible]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사임하더라도 사회주의계획당(BSPP) 당수직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직을 물러난 뒤에도 정치활동은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兪英根기자】

메아리

日本속의 三國史記

三國史記는 고려의 金富軾이 왕명을 받들어 신라·고구려·백제의 역사를 적은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正史이다.

모두 50권10책으로 되어있는 三國史記는 우리나라 古代史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基本史書이다. 그 初刊年代가 언제인지, 또 重刊이 몇차례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고증도 되어있지않을 정도이다.

대체로 고려 인종23년 즉 서기1145년에 처음으로 지어서 바쳤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實物은 그 발견된 것이 없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初刊本을 底本으로 삼아 覆刻도 하고 改刻도 하는 사이에 誤字마저 허다하게 끼어들어 혼란만 가중되었다.

그래서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오자로인해 엉뚱하게 잘못전해지는일이 非一非再하였다. 三國史記의 初刊本을 찾고자하는 努力은 文獻史學者나 書誌學者들에 의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오늘토록 이렇다할 성과가 없었다.

다만 最近 趙炳舜氏의 誠庵古書博物館장서 속에서 三國史記의 殘缺이기는 하나 脫字나 誤字가 적은 古本이 발견되어서 관계학자들을 흥분케하더니 이번에는 完帙필사본을 찾아서 16세기 正德本의 오자와 탈자 1천여군데를 보완하게 되었다고 한다.

51권51책으로된 완질필사본인 「宣撰三國史記」는 일본宮內廳書陵部에 비장되어 왔던 門外不出의 도서로서 앞에서든 誠庵古書博物館 趙관장의 노고로 찾게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에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 사찰이나 서원등에서 왜군들이 약탈해간 당시의 귀중본들이 많이 산재해 있으며 이번에 발견된 宣撰三國史記도 그런冊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미 이것말고도 국내에 알려진 일본안의 三國史記 수장처는 10여군데에 이르고 있어서 그 소재의 보다 정확한 파악과 또 내용의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서 우리 古代史의 空白이 하루빨리 메워지고 잘못된 부분이 바로잡혔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개인의 독지에 힘입느니보다 국가가 예산을 책정해서 종합적으로 일본에서 연구 검토케 할수있었으면 한다.

海外토픽

女軍모집 잠정中止

★美, 임신등전투력영향

미육군은 여성지원병모집을 오는9월말까지 당분간 중지키로 결정했다. 관리들은 여성지원병모집인원은 금년 모집목표인 1만8천5명보다 줄어들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같은 조치는 여군들의 지구력, 임신, 이혼모및 체력과같은 요인들이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고있다는 일선지휘관들의 주장에따라 여군병사의 수를 6만5천명선에서 제한키로 결정한데 따른것이다.

여성지원병모집은 오는10월1일부터 개시되는 82회계연도(FY)에 재개될 것이 분명하지만 모집인원감소로 문이좁아진데다 육군은 고등교육을 받은자에 한해 응모자격을 부여하는등 규정을 강화해 더욱 어렵게됐다. 【워싱턴=AP】

夜勤여성 장애많아

★월경불순등 낮 근무보다

밤근무를 하는 여성근로자들은 낮근무여성들보다 월경불순과 비정상임신율이 높은 것으로 8일 일본 노조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일본 春鬪전국위원회의 조사결과에따르면 간호원 교환수등 밤근무교대자 1천4백36명중 39%가 월경불순으로 고통을 받고있는반면 정상근무자들은 8백20명중 30%가 월경불순을 경험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월경때 심한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밤근무자가 35.5%인데 비해 정상근무자는 21.8%로 나타났다. 【東京=AP】

◇浸水된 大陸上서 윈드서핑

폭우로 침수된 스위스 탈윌市의 한 대로상에서 한청년이 윈드서핑을 즐기고있다. 【탈윌(스위스) 10日UPI電送=聯合】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863-9519

RABBIT • CONVERTIBLE • DIESEL • JETTA • SCIROCCO
AUDI 4000 • AUDI 5000 • TURBO • VANAGON • WINDOW VAN
BUS • CAMPMOBILE
ALL ROADS LEAD TO
Don Valley
VOLKSWAGEN LTD + AUDI
AUDI
1695 EGLINTON AVE. EAST
TORONTO • ONTARIO
TEL. 751-3131
• LEASING
• SALES
• SERVICE
• PARTS
• BODYSHOP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사무용 학생용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뎀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 : 30,
저녁 5-10 : 00
토~일 5-10 : 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도의 중국음식, 뱅킷 가드에 담아서 위하는 대로 대접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 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Spadina코너)
☎ : 977-3142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실시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M
621A Bloor St. W. 한국인 밑은편.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 에서 Bayview 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전화 : (416) 222-9480

신생 浦鐵工 9회말 大逆轉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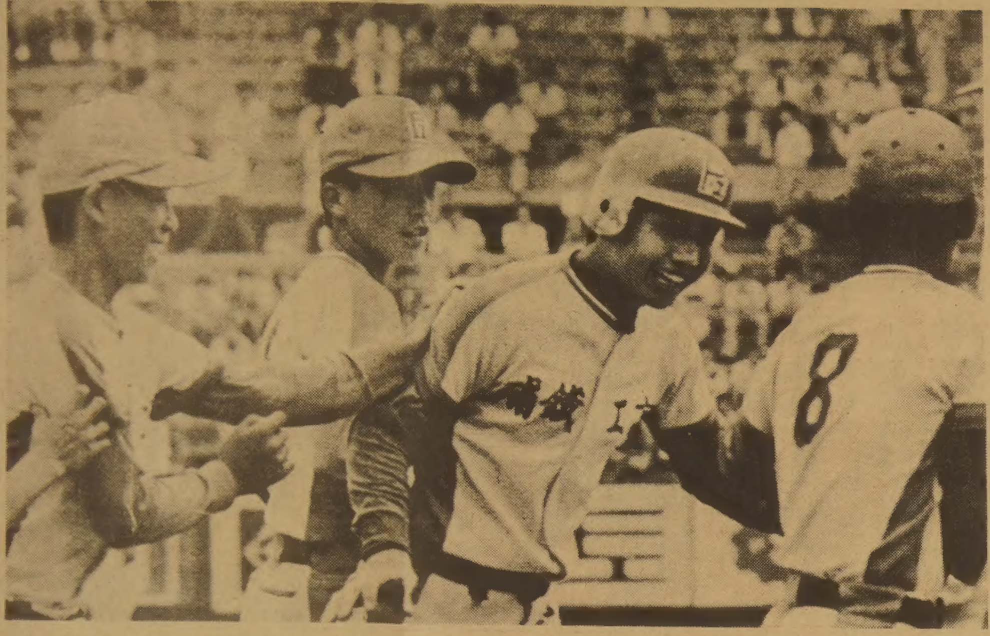
방심한 東大門商 두들겨

善隣은 慶南高에 콜드게임勝

4대3

鳳凰大旗 고교野球

9회말1死。신생浦鐵工高의 선전도 보람없이 3-1로 앞선 東大門商의 승리가 굳어져가고있었다。그러나 浦鐵工의 3번金順源은 4번째 타석에서 첫안타로 가냘픈 역전의 실마리를 잡았다。아차하는순간 4번 鄭成龍의 2루타、5번金聖範의 중전3루타가 잇따라터지고 행운의 야수선택에이어 투수겸 7번 柳明善이 통쾌한 역전결승타를 날렸다。봉황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5일째인 10일 서울운동장에 모인 2만5천여 팬들은 신생 浦鐵工1년생들이 펼친 4-3의 역전 드라마에 열광했다。善隣商高는 慶南高를 9안타 7포볼로 맹폭、4회까지 매회 득점을기록하며8-0、7회콜드·게임으로이겼으며 올해 대봉기 대회 우승팀인 大邱高는 京東高와 난타전 끝에 12-5로낙승、2회전에 진출했다。



◇5號 홈런의 기쁨 東大門商—浦鐵工대전。4회말 2死후 浦鐵工의 4번 鄭成龍이 우월동점 솔로 호머를 때리고 홈인、동료들의 환영을 받고있다。

이날 浦鐵工의 4번 鄭成龍은 대회5호、京東高 4번 李天宰는 대회6호 홈런을기록했다。

9일 1회전 경기서는 光州一高가 8회말 5번 東吉千의 3루타、6번 尹漢奎의 좌전 결승타로 東山高에 4-3으로 힘겹게 역전승 했으며、在日同胞는 永同商高에 5회콜드·게임 10-0으로、釜山高는 京畿高에 7회콜드·게임 8-0으로 각각 승리、2회전에 진출했다。全州高는 徽文高와의 계속경기서 10-5로 낙승했으며、江陵高는 德壽商高와의 연장 계속 경기서 14회초 2死2루에서 8번 權東喆의 중전 결승타로 4-3으로 신승했다。

浦鐵工-東大門

믿어지지 않는 뜻밖의 역전극이었다。신생팀이라지만 만만찮은 적수인 浦鐵工을맞아 東商은 6회초에 2안타、야수선택、패스트볼 2개로 2득점、3-1 리드를 잡고 9회말 마지막 공격에 나선 浦鐵工의 선두타자를 땅볼로잡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8회까지 東商 黃南植의 사이드로 커브에 2안타로 눌리던 浦鐵工은 9회말 선두 2번 李錫湖가 세이프티·번트를 시도했으나 실패。그러나 세번씩 범퇴하여 3번구실을 못하던 金順源이 우전안타로 돌파구를 열고、4번 鄭成龍이 우중월 2루타、5번金聖範이 우중월 3루타를 터뜨려 순식간에 3-3、타이스코어를 만들었다。변산을노린 東商유격수의 판단착오로 6번康昌武는 야수선택으로 살아 2盜、1사2、3루의 찬스가 계속되었다。7번인 투수柳明善은 통쾌한 좌전 결승타로 게임을 뒤엎었다。

浦鐵工은 花郞旗대회서도 大田高에 9회말 역전승을 거두어 전국대회서 2승1패를 기록、'역전의주인공'으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浦鐵工의 4번 鄭成龍은 4회말 대회 5호 우월솔로·호머를 날렸으며 4타수2안타 2타점의 수훈을 세웠다。

마운드亂調…난타전

大邱高、5회勝機…京東에 대승

大邱高-京東高

京東의 선전인지、대봉기 우승팀 大邱의 졸전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난타전이었다。京東의 강타에 놀란 大邱는 선발 李滿雨를 우익수로 보내고 포수 李成根을 마운드에 올렸다。大邱의 맹타에 혼비백산한 京東도 선발 趙永文을 우익수로、우익수 吳鎭世를 마운드로、다시 吳鎭世를 趙永文로 교체、포수로 내려앉혔다。

1、2회를 조용히보낸 大邱는 3회초 4번 李成根의 2타점 우중월 2루타를 포함、5안타 2사사구 1도루로 맹공、한꺼번에 5점을거두어들였다。京東 선발 趙永文과 2루수 李相信은 잇단 악송구로 大邱의 선취득점을 거들었다。

京東도 3회말 분기、선두 9번 吳鎭世의 중전안타로부터 7번李相信의 중전안타에 이르기까지 4안타 4四球、2死球로、3득점、만만치않게 달려들었다。

大邱는 5회초 5번裵孝旭과 1번姜起雄의 좌중월2루타등 4안타 2四球 4도루와 4실책을 묶어 다시 5득점、승세를굳혔다。

大邱는 14안타 3실책、京東은 9안타 4실책을 기록하며 난전을 펼쳤으나 大邱가 공수에서 한수위였다。

善隣商-慶南高

『이번에도 준우승이냐』 청룡기와 화랑기대회서 각각 2위에 그친 善隣商은 극성 동문들의 질타속에 금년 세번째인 이대회 서전에서 쾌승했다。

1회초부터 선두1번 金雄大가 포볼을 고르고 보내기번트로 2進、3번 朴魯俊도 포볼을 얻어 1死1、2루의 찬스를 포착。4번 金健友의 타구가 라이너로뻗어 좌익수에게 잡혔으나 5번 趙永一 6번李幸가 연달아 좌월 2루타를 날려 간단히 3점을 선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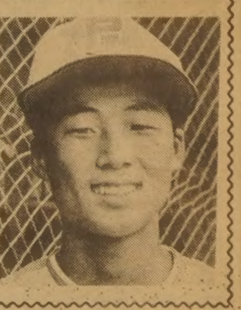
2회초에는 2안타 2포볼 1적실로、3회초에는 2안타 1포볼로 각각 1점씩을 추가했으며 4회초에는 연속 포볼로나간 두주자를 趙永一의 우월적시3루타로 불러들여 2점을 추가、7-0의 큰 리드를 잡았다。

전통의명문 慶南의 체면은 말이아니었다。

2회말 선두4번 朴七星이 첫안타를 날리고 5번徐敏杓가 적시에 우중월2루타를 터뜨렸으나 慶南의 鄭鍊恢감독은 1루주자를 3루에서 스톱시켰다。

더러는 無死에 무리할께 뭐냐、더러는 다음타자를 어떻게 믿느냐、이견이 분분한가운데 6번林鐵浩는 번트실패로 투수에게 플라이아웃당했고 7번申水龍은 3振、8번辛在根은 1루땅볼로 물러섰다。

鳳凰스타



投打서殊勳의 1년생

浦鐵工 투수 柳明善

『타석에 들어섰[illegible] 날린것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9회말 1死후 역전 좌전안타로 東大門商을 격침시킨 신생 浦鐵工의 7번 柳明善의 말이다。

역전 결승타를날린 柳는 이날 浦鐵工주전 투수로도 등판、9회까지 31타자에게 5안타 四死球 4개를 기록하는 호투를하여 투타서 당연수훈을 세웠다。

168cm、56kg。1년생으로 미니급투수에 속하는 柳는 大邱中재학시절에는 벤치만지킨 불운한 선수。그러나 浦鐵工에 진학한후 劉台中감독으로부터 피나는 훈련을 받아 주전투수로서 자리를 굳혔다。劉감독은 『체격에비해 배짱이좋고 성격이 원만하다。체력이 약간 모자란다』고 말했다。

왜관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柳順萬씨(45)의 3남1녀중 장남으로 김치찌개와 가수 조용필의 노래를 좋아한다。

光州一、8회 攻勢 東山격파

在日同胞도 永同商완파

光州一-東山高

3-3에서 맞은 7회말공격。光州一高는 2루타 보내기 번트로 3루까지 나갔던 선두 1번 崔盛浩가 3번 車東哲의 플라이로 생환되었다。그러나 光州一高는 8회말 끝내 승운의 꼬리를 잡았다。1사후 5번 東吉千의좌중월 3루타에이어 6번 尹漢奎의 좌전 결승타로 4-3의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다。

光州一高로서는 고된 시련이었다。믿었던 에이스 車東哲이 5회초 집중4안타를맞고 폭투와 실책이 겹쳐 순식간에 3실점 3-1로 리드당했다。光州一高는 5회말 7번 金星圭 9번 裵坡李의 우전안타와 東山의 2실책으로 2점을 만회、3-3의 동점을 만들었다。

在日同胞-永同

1회초 연속 3안타를 치고도 홈을 밟지 못한것이 화근이 되어 3년만에 맞은 永同商의 전력이었다。

초반 기습공격을 당했던 在日同胞는 2회말부터 무서운 강펀치를 휘두르기 시작、5회까지 葛鍾伸의 대회4호 2월 솔로·호머를 비롯한 장단 14안타로 永同商을 10-0으로 KO시켰다。2회말 선두 6번 金成智가 우월솔로 호머를 날리고 3회말 葛鍾伸의 홈런을 포함한 4안타로 2점、4회말 5안타 1적실로 5점、5회말 3안타로 2점을 보태 5회 콜드·게임승을 거두었다。在日同胞는 9명의 타자중 7명이 안타、7명이 타점을 기록했으며 2번 葛鍾伸은 4타수 3안타 4타점、4번 尹得司는 3타수 3안타 2타점을 올렸다。

한국、도미니카 꺾어 2승1패

美3승 쿠바2승 濠는日눌러

4회 打者일순 大擧6점

9—1 大陸間컵야구

【에드먼턴=聯】한국은 10일상오(한국시간) 에드먼턴에서 속행된 제5회 대륙간컵야구대회 3차전에서 도미니카를 9-1로 대파、2승1패를 기록했다。

이날 濠洲가 日本을 7-6으로 꺾음으로써 결선진출 전망이 밝아졌다。현재 미국이 3승으로 선두、쿠바가 2승으로 그뒤를 쫓고있다。

한국은 9일 2차전에서도 파나마에 13-8로이겼었다。

한국은 도미니카선발 후안의 강속구에 눌려 좀처럼 득점의 찬스를 잡지 못하다가 4회말 1번 金一權과 2번 李海昌이 연속 안타를 때리고 스틸에 성공、무사 2·3루의 찬스를 만든다음、3번 金正洙가 좌측 펜스를 맞고 떨어지는 통쾌한 2루타를 날려 2점을 선취했다。

4번 金用熙의 좌전적시타、5번 張孝祚의 우전안타에 이어 6번 柳中一의 땅볼을 3루수가 1루에 악송구 한다음 또다시 1루수가 2루 악송구를 범하는敵失 2、7번金貞洙의 희생플라이등 한국은 4회말에서 9명의타자가 안타6、희생플라이1、敵失 2개를 한데묶어 6점을 거둬들여 대세를 결정했다。

도미니카는6회초올란도의 솔로홈런으로 영패를 모면했다。

한국은 안타수에서 11-7로 앞섰다。친선경기서 부상당했던 포수 沈載元도 이날 경기에 출전했다。

◇3차전

도미니카 (2승2패)	000	001	000	1
한국 (2승1패)	000	610	20×	9

▲홈런=올란도(6회초 도미니카)

◇2차전

파나마 (3패)	010	400	012	8
韓國 (1승1패)	020	050	15×	13

▲홈런=金貞洙(2회말·2점) 金用熙(8회말·이상 한국) 로베르토(2회초·9회초·2점) 모리치오(4회초·2점·8회초·이상 파나마)

◇종간전적(10일상오현재) ①美國 3승 ②쿠바 2승 ③韓國 2승1패 ③캐나다 2승1패 ⑤도미니카 2승2패 ⑥日本 1승2패 ⑦濠洲 1승3패 ⑧파나마 4패

朝鮮大、日팀격파 韓日大學축구

【淸州=聯】日本關西선발대학 축구팀은 韓·日친선경기 2차전서 朝鮮大에 3-2로 패하고 光云工大와의 3차전서 2-2로 비겨 내한전적 1무2패를 기록했다。

朝大는 8일 光州무등경기장서 펼쳐진 2차전서 전반을 2-2로 끝낸뒤 후반3분 鄭信鉛의 결승골로 3-2의 승리를 거뒀다。

한편 光云工大는 9일 濟州市 공설운동장서 속행된 3차전서 關西선발과 2-2로 비겼다。

◇전적 ▲제3차전 光云工大 2-2 關西선발 ▲제2차전 朝鮮大 3(1-2 2-0)2 關西선발

춘계 中高축구 8強대열 合流

驪州商·鶴城·漢陽·永登浦工·宇信·安養·協成

驪州商 鶴城高 漢陽工 永登浦工에 이어 宇信高 安養工 協成商高가 8강전에 올랐다。宇信高는 10일 議政府공설운동장서 벌어진 추계전국 중고 축구연맹전 고등부 결승토너먼트 이틀째 경기서 FW 李基根이 해트트릭(3골)을 기록하여 강호 中大附高를 3-0으로 꺾고 8강에 합류했다。이날 安養工도 馬山工과 맞서 鄭龍國과 李貞圭의 수훈골로 2-1로 신승했다。

9일 열린 결선 첫날 경기에서는 驪州商 鶴城高 漢陽工 永登浦工이 각각 승리를 거두고 8강 고지에 먼저 올라섰다。

◇결선 제2일

우신고교 3	(2-0	1-0)	0 중대부고
안양공고 2	(1-1	1-0)	1 마산공고
협성상고 0	(0-0	0-0)	0 신흥실고 〈승부킥3-2〉

◇결선제1일(9일)

여주상고 1	(0-0	1-0)	0 홍주고교
학성고교 1	(1-0	0-0)	0 경신고교
한양공고 1	(1-0	0-1)	1 광운전공 〈승부킥7-6〉
영등포공 1	(1-0	0-0)	0 서울제고

팔레스타인 臺灣등 亞洲농구大會 참가

【캘커타(印度) 9日=聯】제11회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가 오는11월12일부터22일까지 韓國·日本·필리핀등 20개이상의 아시아국가들이 참가한가운데 印度의 캘커타에서 열릴것이라고 印度의 관리들이 8일 밝혔다。

東亞수영 閉幕

韓國新 2 大會新 55개

제23회 東亞수영대회가 10일 3일간의 경기를 마치고 폐막、한국신2개、대회신55개의 기록을 보였다。이틀째인 9일 남대 자유형 1백m서 李薰喆(한국체대)은 55초48을 기록、자신의 한국기록 55초97을 0·49초 단축하고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또한 남고 평영 1백m서 千仁泰(포항수산고)는 1분10초11을 마크、종전기록 1분10초60을 역시 0·49초 단축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한편 최종일 경기서는 한개의 한국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매이저 리그 10일 再開

【클리블랜드(오하이오州) 10日=聯】49일만에 파업이 타결된 美國프로야구는 10일상오(韓國시간) 클리블랜드 인디언즈구장에서 올스타게임으로 재개됐다。이날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의 올스타게임에는 부시부통령이 시구를 했다。

亞洲농구 한국팀 朴韓씨 새코치로

대한농구협회는 오는 11월 印度에서 열리는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 대비、대표팀 코칭·스태프를 일부 교체、郭炫彩 대표팀코치 대신 朴韓 高大코치를 선임했다。金仁建감독은 유임되었다。

李光錫 판정패 日서 와따나베에

【東京9日AP=聯】프로복싱 한국 플라이급3위인 李光錫은 9일 도오꾜에서 벌어진 日本의 와따나베·지로선수와의 논타이틀 10회전에서 심판전원일치의 판정패를 당했다。

◇제5일 1회전

동대문상	001	002	000	3
포철공	000	100	003	4

▲동상투수=黃南植 포수=權仁德 ▲포철투수=柳明善 포수=金順源 ▲홈런=鄭成龍(4회말·포철공)

대구고	005	051	001	12
경동고	003	110	000	5

▲대구투수=李滿雨 李成根 포수=李成根 全鍾和(3회) ▲경동투수=趙永文、吳鎭世(1、5회) 吳鎭世(4회) 포수=李炳炯(8회) 李炳喆 ▲홈런=李天宰(5회말·경동)

선린상	311	200	1	8
경남고	000	000	0	0

〈7회콜드게임〉 ▲선린투수=金健友 朴魯俊(6회) 포수=趙弘紀 ▲경남투수=辛在根 趙容徹(2회) 포수=朴七星

◇제4일 1회전

경기고	000	000	0	0
부산고	301	301	×	8

〈7회콜드게임〉 ▲경기투수=鄭鍾國 李眞熙 포수=李英昊 ▲부산투수=金宗奭(3、5회) 成炫(4회) 田龍雨(4회) 포수=金

영동상	000	00	0
재일동포	012	52	10

〈5이콜드게임〉 ▲영동투수=金昌滿(1、4회) 黃昌吉(4회) 金吉川 포수=宋昌浩 ▲재일투수=金鎭日 포수=韓俊李 ▲홈런=葛鍾伸(3회말·재일)

동산고	000	030	000	3
광주일고	010	020	01×	4

▲동산투수=姜德澈 포수=成在龍 ▲광주투수=車東哲 포수=李潤守

◇제3일계속경기

강릉고	001	010	100	000	01	4
덕수상	000	201	000	000	00	3

〈13회부터 계속경기·14회 연장〉 ▲강릉투수=徐萬植 포수=權東喆 ▲덕수투수=金相元 辛良善(13회) 포수=金光培

휘문고	100	011	020	5
전주고	040	022	02×	10

▲휘문투수=金湖錫 李明雙(1、2、8회) 金谷嶶(6회) 포수=朴完淳 ▲전주투수=金大鉉 白宰宇(9회) 포수=咸周鉉

고포특별우대… 이 쿠폰과 함께 20%할인 …남자용 각종의류 및 악세사리 미스터오 FOR MEN

TIE CITY Square One 275-2187 Hwy 10 Burnhamthorpe

Mister O Cumberland Centre 2 Bloor St. W. 964-2606 Yonge Bloor St

Mister O Commerce Court Centre 869-0589 Bay Yonge King St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캐네디안식 거구장

거구장

※환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대소연화

영업시간 :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 : 목, 금 토, 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 : 신 현 희

특 별 메 뉴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요리전문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 1 블럭 북쪽 첫신호등서 좌회전
☎: 742-1618 곽정렬·김선남

공무원 名譽퇴직 활용

20년이상 勤續 停年5~1년前 殘餘기간 봉급 50%지급

2급이하 일반·외무직·군속·기능직 對象

정부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키위해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있는 명예퇴직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총무처가 10일 마련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안에 의하면 20년이상 근속하고停年 5년前부터 1年前사이에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중공적이 있는것으로 인정돼 명예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년까지의 殘餘기간에 받을 봉급액의 50% 예를들면 정년을 5년앞둔 명예퇴직대상자의 경우 30개월분의 봉급액을 퇴직금과달리 퇴직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총무처는 이규정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실시하는데 명예퇴직대상공무원은 2급이하의 일반직과 외무직, 군속 및 기능직이다.

이제도의 실시와 관련, 총무처는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 이 범위내에서 명예퇴직 공무원의 수를 정하며 지원자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각부처별로 복수추천을받아 공적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선정할 방침이다.

이규정은 매년 그해 명예퇴직공무원의 정원과 부처별 할당정원, 예산액등을 공고하도록 돼있다.

"韓半島평화 强大國에利益"

金총재、西獨서演說

西獨을 방문중인 金鍾哲국민당총재는 10일 본의 풀벨트호텔에서 『한국의 안보와 경제』라는 主題의 연설을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을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이해증진이 필요하며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통일의 달성에는 국제적인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협조는 이지역에 이익을 갖고있는 강대국의 이익에 결코 反하는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金총재일행이 국민당에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 金총재는 이날 연설에서 경제발전이 안보기반의 關鍵임을 강조하고 『그러나 경제력의 신장이 소득의분배, 의사결정의 참여도 등에서 국민의 내재적 衡平욕구를 충분히메워주지 못한다면 그신장과정에서 胚胎된 불안정이 사회구성원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이것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저해하게될것』이라고전제, 『80년대의 한국경제가 이러한 약점을 어느정도 補完할수있는가 하는것이 한국의 경제발전과 이지역의 안보기반확충의 관건이될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金총재는 또 『北韓은 계속하여 그들의 對南赤化통일노선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어떤 남북간의 접촉도 거부할것으로 짐작되나 中·蘇대립, 美·蘇관계, 日·蘇의긴장상태 진전에 따라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金총재는 한국경제전망에 관해 『82년까지는 물가의 안정을 되찾고 고도성장세를회복하여 소득분배도 크게 개선될 것이며 그후로는연8%의 성장이 이룩될것으로전망된다』고 말하고 『한국이 아직도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양질의 노동력과 의욕이 왕성하고 경험이 풍부한 기업인이 있다는 사실이 이를 가능하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泰·比·페루·말聯·印尼등 19개國과

비자免除협정 推進

海外여행 擴大따라

정부는 해외여행 확대방침에따라 泰國 필리핀등 새로 19개국을 상대로 査證(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추진중이다.

10일 외무부당국자에 따르면 査證면제협정체결 대상국은 泰國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자메이카 세네갈 시에라리온 코트디브와르 수단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印度 파나마 요르단 리베리아 모리셔스등 19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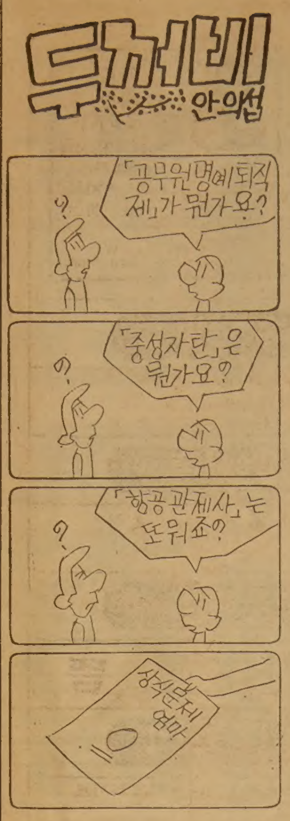
引渡된 中共軍遺骸 開城서 埋葬式가져

지난7일 板門店을 통해유엔軍측에의해 中共軍측에 인도된 6·25때 사망한 中共軍병사의 유해가 이날開城에매장되었다고 9일 北京방송이 전했다.

平壤주재 中共대사관 무관 于國清, 淳戰委北傀측 수석대표 韓柱庚등이 참석한 이 매장식에서 于는 北傀가 이 유해안장식을 『성대히』 거행한것은 中共에 대한 『친선의 情』을 보여주는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公職者윤리법 視察團서 歸國보고

국회 內務委는 10일낮 서울시내 J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각국의 公職者 倫理法의 운영실태를 돌아보고 귀국한시찰단의 보고를들었다.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⑰

東京시절 學友들

留學生간에 同志愛的 연대로 맺어져

李仁·金俊淵·金度演·白寬洙등과 친교

東京유학시절엔 많은 學友들과交友관계를 가졌다。유학생들과의 交友는 學友會, 조선기독청년회활동을 통해, 또 학업과 스포츠를 통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당시의 학우관계는 요즘흔히그러하듯 같은 학교동창이란 협소한울타리를 떠나 어느학교이건간에 선후배를 가리지않고 한국인유학생들간의 同志愛的인 연대의식속에 맺어졌다。

그런만큼 내가 말하는學友도 그 폭이넓어 그중엔 선배도있고 나보다 年上의 후배도 있었다。

東京시절의 학우들중에는 2·8독립선언의 주동자였던 金度演(慶應大)、尹昌錫(青山學院)、白寬洙(明治大)、宋繼白(早稻田)、徐椿(東京高師)이 있고 비밀결사였던 2月會의 같은 멤버였던 金俊淵(東京帝大)、俞億兼(東京帝大)이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早稻田大동창인 金成洙와 姜鍾秀은 나와 3銃士처럼 운동을통해 早稻田시대를 주름잡은 잊을수없는 벗들이다。

또 야구등 운동을통해 맺어진 학우로는 東京帝大출신인 朴錫胤、朴錫紀형제와 야구의名人 徐相國(早稻田)、仁村(金性洙)의 秀氏인 金秊洙(京都帝大)、金鍾遠(東京高商)을 들수있고 早稻田동창중엔 선배인 玄相允、李丙燾와 金洛永、朴勝喆이 있다。

渡日한 해인 1917년、正則영어학교에 다닐때 풍채가 늠름하고 눈빛이 형형한 유학생이 학교로 날 찾아왔다。그는 내가유학왔다는 말을듣고 반가와 찾아왔다며 『앞으로 고생이 많겠다』고 날 위로하고는 많은 助言을 해주었다。愛山 李仁이었다。

◇李 仁

◇金俊淵

◇金度演

◇白寬洙

나보다 2년年上인 愛山은 明治大졸업반이었다。그후 난 미국에서 愛山이 변호사로 애국지사들을 수없이 변론하다 投獄되는등 고초를 많이 겪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그에게 소리없는 성원을 보냈다。

常山 金度演과 郞山 金俊淵、俞吉濬선생의 아들인 俞億兼등과는 각별히 정축이 많았다。

慶應大 理財科에 다니던 常山은 성격이 곧고 청렴하고 술수를 싫어한 인물이었다。난 그의 그런 성격을 좋아했다。그는 훗날조선어학회사건으로 2년간의 獄苦를 치르기도 했는데 2·8독립선언에서 시작된 그의 불굴의 독립정신과 애국심은 대단했다。

東京帝大법과에 다니던 郞山은天才속에 七首를 숨긴 듯한 개성이강한 인물이었다。귀국후 그는 ML黨사건으로 감옥살이를했고 훗날50年代와 60年代엔 이른바 郞山波動을 일으켜 政界에 突風을 몰고오기도 했는데 이는 바로 말을 서슴지 않는 그의 성격 탓이었다。

建國후 初代내각에서 愛山이 법무、常山이 재무、내가 내무장관으로 기용됐을때 우리는 옛일을 회고하고 앞날을 기약했었는데 그때 만남이 다시 먼 옛일이 되었으니 세월의 무상함이 流水와 같다고나 할까。

郞山과 俞億兼、白寬洙등은 귀국후인 1925년 다시 만나 민족운동기관을 육성하기위한 朝鮮事情研究會를 조직했고 常山과 白寬洙등은 해방후 韓民黨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白은 애석하게도 6·25때 北傀에 被拉됐다。

東京유학생들은 日帝의 압흑기와 해방후의 격동기를 살면서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는 또 만났다。이제 常山도、郞山도、愛山도 차례로 故人이되고 政界의 老壯들이 거의 다 他界했으니 만남도 헤어짐도 과거의 曲折이 되었다。

海公(申翼熙)과는 東京에서 한 1년같이 있었다。早稻田 3년선배인 그는 당시 滄龍館이란 하숙집에 묵고있었는데 난 그와 인사정도만 나누고 친교는 없었다 海公은 早稻田정치과를 마친후 잠시 귀국했다가 上海로 亡命했다。

早稻田선배인 雪山(張德秀)은 내가 유학가기 전해에 졸업하고 이미 上海로 망명해 그와는 만나지 못했다。

여자유학생들은 그당시 60여명가량 됐다。日本여자대학에 다니던 朴順天、黃信德、李善行、韓小濟 길정희등이 당시의 인물들이다。나의 두번째 아내가 된 東京여자高師의 吳恩惠 역시 그중의 하나다。

학우회체육부장、기독청년회社交部長이란 직책때문에 난 내일이외에도 체육대회 주선하랴 학술강연·세미나 준비하랴 무척이나 바쁜 나날을 보냈다。그런중에도 우린 하숙밥에 배고프면 서로 하숙집을 찾아다니며 밥해먹고 特食을 마련해 대접하기도했다。

東京유학시절 잊을수 없는 은인으로는 나의 형님들하고 친구인 金基璟씨와 陸鍾仁씨가 있다。甲申政變때 일본에 망명했던 이분들은 우리를 불러 음식을 배불리 먹이고 재우기도 하고 자식처럼 돌봐주었다。또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을 陰陽으로 도왔다。

金씨는 함경도 端川사람으로 재력도 있었고 학식이 높은 덕망있는 인사였다。

陸씨는 지리학자 陸芝修교수의 부친이다。

지금도 잠시 눈을감으면 60여년전 젊음과 情熱、울분、패기로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던 學友들의 얼굴들이 아련히 떠오른다。

北韓뉴스

南阿 人種분규지역 투쟁支持·군사지원

아프리카의 紛爭국인 짐바브웨에 1백명이상의 대규모 군사고문단을 파견、물의를 일으키고 있는것으로 알려진 北傀는 역시 이지역의 분쟁국인 앙골라에 尹基福을 단장으로한 黨대표단을 파견(13일~우간다 방문)하는 이동안에서도 同國의 「투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나섬으로써 아프리카 분쟁지역에대한 北傀의 군사지원이 계속될 것임을 示唆、주목되고 있다。

北傀는 이날 黨기관지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앙골라가 南阿인종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있으며 나미비아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기때문에 이같은 앙골라에 대해 「적의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보낸다」고 강조했다。

北傀의 이 신문은 또한 阿洲지역의 인종및 영토분쟁은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분裂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앙골라에 대한 이같은 무력침공을 규탄한다고 말했다。【서울=聯】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流星의 賦 <154>

李炳注作 李友範畫

山空花自紅 ④

이이의 말이 조용조용 계속되었다.

『……신하의 명성이 오르면 자기의 명예에 그늘이 질지 모른다는 생각、이것은 일국의 왕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혹여 그렇게도 될 수있는 일이기도 해。그것을 내가 미처 몰랐던 것이 실수였어。지금의 상감에게 신임을 얻자면 반우반현(半愚半賢)이 최상인데 어찌 군자가 그런 술수를 쓸 수 있단 말인가』

홍성민은 속으로 이제사 그걸 알았나 하는 심정이었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다。홍성민의 생각으로선 그런 점에 있어 탓할 것은 임금이 아니고 이이자신인 것이다。이이의 성의、이이의 정열、이이의 현명은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언제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곤 배겨내지 못하는 그 버릇이 옥에 티였다。그런 점에 있어선 이이는 아득히 이황(李滉)을 추종하지 못한다。이황은 언제나 임금에게 드릴 계사(啓辭)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옳은 일인데도 실행할 수 없는데 그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그 이유를 먼저 살펴 그것을 배제할만 하면 그쪽을 아뢰고 당분간 또는 영구히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서면 일체 아뢰지 않았던 것이다。뿐만 아니라 이황은 자기의 우월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다。즉、

「내가 나서지 않고 누가 나서랴。」

「내 아니곤 안된다。」

하는 태도가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이에겐 그것이 있었다。사사건건 스스로를 내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태도였다。그런 때문에 상소(上疏)의 문안이 구구절절해도 읽는 사람은 그 내용에 치중(置重)하지 않고 언외(言外)의 뜻을 살피려고 했다。즉、

「이 상소는 잘난척 하기 위해 쓴 것이다。」

하는 기분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이의 장단점을 골고루 알고 있는 홍성민은 이이의 그러한 버릇이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자라、항상 외로운 처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고 이해를 아끼지 않았다。

이를테면 이황이 물러가며

「이준경이 쓸만 합니다。」

하고 임금께 천거한 일이 있었는데 이이는 이황의 그 말을 트집 잡아 공공연하게 비난한 적이 있었다。

홍성민은 이준경의 인간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황의 천거를 당연한 것이라고 보았고 이이의 그러한 공언(公言)을 불쾌하게 여겼지만、어렵게 자란데서 오는 기질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심하게 탓하진 않았다。

그런데다 이이는 자기의 칫수에 맞지 않게 대인연(大人然)하려고 해선 마땅히 적시(敵視)해야할 인간을 두둔하곤、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감싸주지 못하는 결과를 만들어선 면배(面背)에 원망을 사는 사례가 없지도 않았다。

홍성민은 임금이 이이의 이러한 점을 지실(知悉)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서운한 행동을 취하기도 하는 것이지 결코 그의 재능을 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그래서 홍성민은、

『숙헌、누구보다도 자네를 잘알고 있는 사람은 상감이다。자넨 기왕 자네가 가던길을 그대로 가면 되는거다。상감의 시기가 두려워 뜻을 굽힐 숙헌이 아니지 않는가』

『시기의 말이 옳아。그러나 자네에게 해둘 말이 있네』

張吉山 (1627)

黃晳暎作 崔然石畫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87)

길산은 그에게로 다가서서 먼저 허리를 굽혔다。

『이번에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소이다。도울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 가겠읍니다』

『언제쯤 파주에…들르시겠읍니까』

이경순이 다급한듯 말하였고、길산은 조금 비켜서서 답하였다。

『청석앞에 들르게되면 여한 스님을 통하여 전갈을 올리지요』

이경순은 감사하다는 양인지 작별 인사인지 허리를 굽혀 보였다。옥여와 여환등도 그들을 배웅하러 문루에까지 나갔다。묘청도 함께 떠나갔다。묘청은 문루까지 걸어가며 길산과 얘기를 나누었다。

『몇년 전에 제게 찾아오셨을적에는 생각과 수행이 부족하여 허튼 소리를 하였지요』

『허튼 소리라뇨…』

길산의 반문에 묘청은 웃었다。

『여환을 사도라고 몰아붙인 일이 생각 안나십니까?』

『그러셨지요마는 양주 사비의 소생이라고 스스로거리낌없이 말하셔서 저는 정을 느낀 생각은납니다』

『아…』

묘청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금강산에 떠나시던 길이었나요。생부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주노를 피하여 입산하신 어떤 분에 관해 물었읍니다』

길산이 담담하게 말하였고、묘청은 의아하다는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대장부는 그외에도 잊어버릴 일이 많고 기억할 일도 많은듯 합니다』

묘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생부께서 승려가 되셨다 하니、그분도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묘청과 길산은 한참을 나누었다 손님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가버리고나서 월정사 경내에는 여환과 장길산과 오계손 셋만이 남아있었다。

여환은 그가 머물러 커왔던 사찰이라 고향이나 다름없어 며칠더 머무를 눈치였고、오계손이는 그와 가장 가까운 김승운 계화부부와 헤어지지 못하여 한 사날 머물 모양이었다。원향의 일로 계화부부는 여환과 식구처럼 친해져서 그의 권유에 따라 함께 양주로 나가서 신당을 모시고 살아볼 계획이었다。

안무당은 그날 하루 종기가 되살아난듯 하더니 밤이 되자 길산에게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고、불끈 같은 손으로 길산의 손을 잡아 꼼지락거리며 매만지는 것이었다。

『원향이 좀…불러주어』

하여서 길산이 보살을 방에 알리니 원향이 아니라 계화와 배련이 까지도 달려왔다。안무당은 원향이를 머리맡으로 다가앉도록 이르고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말하였다。

『저어기 서해바다의 용왕님은 원래가 대국에서 오는 잡신들을 막아 지키시는 분이시여。이 바다 내다보는 구월산 산신님과 더불어서 옛적부터 이 터전 늘님을 모시고 단군 성조님을 보좌하던 분들이지。네가 어미의 몸을 빌어서 을 받은 데가 풍천 바닷가요、다시한번 얼을 찾은 곳이 구월산이니 그 두 신을 잊지말아야 한다。북묘향、동금강、서구월、남지리、사방에는 이 땅의 골골과 산맥의 혈을 둘러 지키는 큰 산신님들이 계시느니라。이 가운데 저 어사봉에는 아사달 옛터 전단군 성조님의 뜻이 새겨있으니 너는 기중 가장 크고 깊은 신의 뜻을 이어받은 만신이 되어야만한다。내 무구와 요령과 신칼을 네게 내린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비둘기사진 식자인쇄소
고급 인쇄를 원하시면 사진식자가 있는 비둘기 인쇄소를 찾으세요.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 493-8894 윤 종 대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성가및 설교테이프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오전10시30분~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가나안교회	이 정 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 병 한	주일오전 7: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 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 사 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 한 교 회	강 근 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 권 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 순 관	대 예 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 주 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 희 선	주 일 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8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 환 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 석 교 회	양 세 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 엘 교 회	최 상 봉	수요저녁 7:00 주 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 경 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 승 한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귀 상 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 옥 희 전 도 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½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 교 교 회	안 상 엽	주일 낮12:3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 도 교 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 필 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교 회 명	담임목사	예 배 시 간	주 소	전 화
성 산 교 회	계 화 삼	주일오후 1:3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 이 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 태 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영 락 교 회	김 재 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 세 택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 창 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 용 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 용 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 형 출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 관 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 주 교 회	고 종 옥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 례 교 회	홍 신 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 현 교 회	박 경 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 인 환	주일오후 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 상 대	주일오후 1:00 (영 어 예 배) 주일오후 2:00 (대 예 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 인 교 회	유 재 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 희 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 낙 풍	성경공부 2:30 예 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5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 532－6160

출퇴근 하시면서 여아 돌봐 주실분
☎ : 921－5684(B) 921－8102(R)
(BLOOR×SPADINA서브웨이 옆)

스토아 헬퍼구함 (영×휜치지역)
☎ : 222－2848

(1)출퇴근 하시면서 애기봐 주실 할머니
(2)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 : 2414755

주방헬퍼구함(남자1명, 여자1명)
628 BLOOR ST. W 한국관
☎ : 536－0290

전자제품 만드실분 약간명 모집
잘 건설된 전자공장에서
경험있는 전자제품 만드실 분과
전자 기술자를 모집 합니다.
오전, 오후, SHIFT WORK.
직접 내방 요합니다.
DORCHESTER ELECTRONIC CO.
40 FIMA CRESCENT
(Q·E·W· 427지역)

매매및 양도

좋은위치에 자리잡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illegible]
1801 LAWRENCE AVE. E SCARB.

UPRIGHT 피아노 세일
TUNE 되어있는 우수한 상태
$680 ☎ : 451－6751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프렌차이스)
주매상 : $7000이상 렌트 : $1200
리스: 5년+5년옵션
주5일영업. 다운페이먼트 5만불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내방 요망.
169 QUEEN ST. E

현 전면허증을 가진 레스트랑과 라운지 매매
120개좌석, 긴 리스, 한국, 중국레스트랑 하기에 적합한 위치. 캐쉬 $295,000 또는
$165,000 다운페이먼트와 나머지는 몰게지로 가능.
연락 : 피터 ☎ : 368－9557

3베드룸 방갈로 매매
크기 40×120피트
베이스먼트 다 되어있고 옆에따로 붙어있는 가라쥐 있음.
문의전화 : 422－0816

OPENWINDOW BAKERY & GROCERY
1550 Bloor St. W.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 233－2576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토타리오
☎ : 783－1984

남녀 운동복점 매매
또한 재봉틀도 있고 재단업도 할수있음.
☎ : 531－2611
1552 BLOOR ST. W.
SMITH SPORTSWEAR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렌트

방세놓음(독신원함) 8월24일 입주가능
PAPE서브웨이에서 1브럭 $130
☎ : 466－3764 (오후4시이후 연락바람)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 AM～8 PM 토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627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웅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검 부 원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함 영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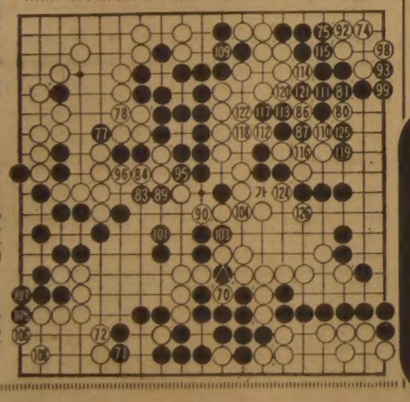
PICTURE FRAME WAREHOUSES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Tel.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잔 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Am Coin Investments Ltd.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11譜 170～226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黃군—。
자네성화에 못이겨 오늘의 譜는 틈틈 실어보겠네。수순을찾기가 좀벅차겠고 게다가 12수나 패를따내고 되따낸 때문에 자네실력으로는 힘이 퍽들걸세。

그동안 외면을 해오던 白70의 패싸움이 재연되었는데 이제 또아이들말마따나 필장치도 않았지。이싯점에서 白4점의 생사는 승부유관이어서 오기다릴아닌 필사의 항쟁이었다네。

名人은 그런대로 이때를 미끼로하여 있는힘과 기술을 다부려야 할판、곁에서보기가 아슬아슬할 정도였네。시간만해도 상대의 거의 곱이나 더소비하고있었지。또 어떻게 보면 白74이하로 패감을쓰며쓰며 바둑을 마무리지을 요량같기도하고。

白80이 미묘한예를 찌른 패감으로서 전문가들은『묘수』라며 허를너무

끝내기는 컴퓨터

른점입세。장차白110이하「간」의 집수를 내다본때문。

한편 도전자는 침착·냉철。모처럼 잡은 승세를 놓치지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黑101로 후퇴하더군。이렇게 자중하고 白으로하여금 102로▲표의곳을 기어가게 하더라도 충분하다는 판단이네。

그런데 본보 白26다음에 黑이 千慮一失의 패착을 범할줄이야。

그건 다음譜를 보기로하고 지금 자네는 白112로 어째서 黑113자리에 두지않고 1집손해를 보았는지 궁금할테지。맞았어、바로 그점이야。1집손해는 틀림없지만 그대신 白124와「가」가 선수인까닭에 白126을 두게되어 오히려 유리한것일세。

名人은 [illegible]같이 컴퓨터식끝내기를 사용하지만 이세는 이때까지도 黑의수중에 [illegible]

[illegible] 73、79、85、91、97…。[illegible] 82、88、94、100…70。1 ◎…◆…123…86。【一凡】

걸작만화

「예방책을 쓰지 그래?」

번역·통역
CHARLES YU(유화석)
10 Sunrise Ave. Unit 203
Tor. M4A 2R1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 : 759－9505(5시이후)

주간女性

英펑크·로크音樂 世態 신랄히 反映

現폭동 5년전「無政府상태」曲으로 豫言

“英國 미래없다”·“마거리트 물러가라”

“都市는 콘크리트 정글” 등 노래로 批判

저항·不滿토로…社會性갖고 젊은意識대변

◆◆◆◆◆◆◆

팝뮤직과 세태는 어떤 因果관계가있는것일까. 英國의 로크음악팬들은 최근 英國에서 무정부상태까지 이른 폭동이 일어나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英國의 펑크·로크음악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무정부상태를 노래해왔기때문. 이들은 폭동을 예견하여 그들의노래에 그 내용을 담아왔던것이다.

◆◆◆◆◆◆◆

海外演藝

펑크·로크라면 젊은이들의 저항과 불만을 토로하는 로큰롤세대의 음악이다。기성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울분을 표출해내는 사회비판적인 젊은이의 노래。英國의 펑크·로크 그룹들은 사회성이 강한 노래로 젊은이의 의식을 대변하여 사랑을 받아왔다。

76년 英國의 로크그룹「섹스 피스톨즈」는「영국의 무정부상태」라는 노래를 불러 크게 히트했다。또「하느님이여, 여왕을 구하소서」라는 노래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 뿌리깊은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英國의 펑크로크 음악은 오래전부터 英國내부의 불안한상황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일을 예견한 내용을 담아왔다。(英國 로크그룹의 연주모습)

이 곡에서 그룹은『英國의 꿈에는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77년 백인폭동이 英國을 휩쓸었을때, 로크그룹「클래시」는「백인폭동」이란 곡을 취입했다。이들은 이 노래에서『유색인종들은많은 문젯점을 안고있다。그러나 그들은 벽돌한장 던지기도 꺼려한다。…폭동을 원한다。백인폭동。우리를 자신의 폭동』이라고 하여「백인폭동」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79년 창단되어 인기를얻었던「루·츠·무브먼트」는「마거리트 물러나라」같은 노래로 정면으로 영국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 노래는 마거리트·대처 수상이 사임해야 한다고 욕박지르는 내용。또 코벤트리의「더 스페셜즈」는 가난과 파괴를 상세하게 묘사했으며 이들이 79년 최고 히트를 기록했던「콘크리트정글」에서는 英國의 도시가 안고있는 문젯점을 극명하게 표출하기도했다。

춤며 최근의 히트곡인「아무것도 하지않아요」는 경찰의 횡포에 대해 정면 대결하고있다。흑인가수 린벌·콜딩이 이 노래를 썼는데 그는『경찰이 와서 내 이빨을 후들겼지요。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았지요』라고 비꼬았다。

흑인·아시아계, 그리고 白人청년들은 모두 경찰의 횡포에 불평한다。이들이 내세운 이슈는 보통「수스」라 불리는 법때문이다。경찰이 혐의자에 대해 어디에서나 몸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法이다。英國의 인기있는 레게음악 가수이자 작사자인 린턴·존슨은 79년 출반돼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승리의 힘」이란 앨범중「소니의 레타」(「反수스」詩)란 노래로 이 法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내세웠다。

경찰의 횡포에 불만을토로한 또 하나의 레게음악 주니어·머빈의「경찰과 도둑놈」은 77년「클래시」에의해 리바이벌됐는데 英國 뉴웨이브계열음악중 가장 정치적인것으로 평판이나있다。

도시내부의 불안한 상황을 묘사한 대부분의 레게음악은 현상자체를 노래하는데 머물러있다。그러나 클래시는 앞으로일어날 현상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77년 출반된 첫번째 앨범「클래시」등의「취어기회」같은 곡에서는 실업의 화산을 경고했고「백인폭동」에서는 폭동에 대처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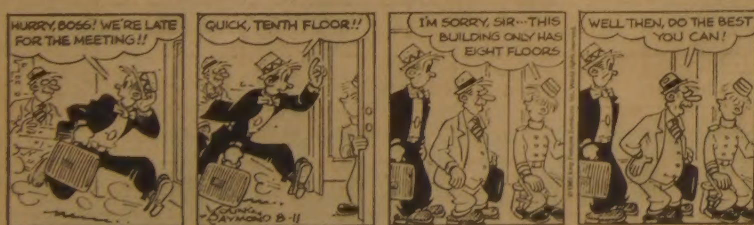
79년에는「브릭스턴의 총」이라 불리는곡이 포함돼있는 앨범「런던 콜링」이 있었다。이곡은 런던브릭스턴 거리의 흑인들을 그려냈다。

또 이 앨범중에는「클랩프타운을 위한 노래」라는 노래가 포함돼있는데 [illegible]을 뛰어넘어라, 정부가 그 벽을 허물어뜨리도록。당신은 그걸 거부할수 있는가, 분노가 시간을 갖게하라。노여움이 힘을 가질수 있게。당신은 그걸 사용할방법을 알게될것이다」라고 노래한다。

그러나 이들의노래는 폭동을 유발하는것과는 관계가 멀다。이들은 실업이나 경찰과 청년들과의 긴장을 부추기지도 않았으며 도시폭동을 일으킬만한 요인도 찾아볼수 없다。다만 실제로 폭동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폭동을 유발할 요인들을 찾아냈을 뿐이라는 평이다。

英國의 로크그룹이 부르는 노래는 아마도 미래에 닥쳐올 사태를 해결할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사회비평적인 성격을 강렬하게 담고있는 영국의 펑크·로크음악은 현세태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대한 예언적인 내용을 표현하고있기 때문이다。【外紙에서】

블론디 딘·영 作 本紙特約·連載漫畵



"빨리오세요, 사장님! 회의에 늦었어요!!"
"빨리, 10층!!"
"죄송하지만요…이 빌딩은 8층밖에 없는데요。"
"그럼 최선을 다해보게!"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灰色 노우트 ⑧

趙善作 作
禹慶熙 畵
<171>

이제는 두번째로 일어난 내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차례이다。은행으로 아버지를 찾아다닌 일을 생활의 변화라고 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헤어지신 이후 내쪽에서 자청해 아버지를 뵈러 간 것은 정릉의 일이 있은후가 처음이 되는 것이다。그전에는 아버지께서 사람을보내 요구를 해와서야 마지못한 표정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곤 했던 것이다。그렇게 나타나서도 쓴약 먹은 얼굴로 은근한 말한마디 건네는 법 없이 당신의 질문에 마치 꿀단 아이처럼 불이 부어 [illegible]거리다가、얼마씩 용돈을 주시는 부정(父情)의 표시마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 장물(贓物)취득자처럼 누가 볼세라 [illegible] 집어넣고 당신 앞을 물러나오곤했던 나였다。

그랬던 내가 이제는 자청해서 당신을 뵈러 가고、또 당신 앞에서 재롱을 부릴 듯이 상냥스럽게 굴곤 했다면 대단한 변화가 아닐는지。아버지께서도 처음에는 당황하셔서、얘가 어디가 어떻게된게 아닐까 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곤 하셨다。그러시다가는 차차 내가 정상이라는것을 아셨고、얘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모양이다 싶으셨는지 내 그런 변화를 여간 반기는 눈치가 아니셨다。

그렇게 정릉의 일 이후 나는 아버지께 예닐곱 번쯤 찾아가 뵈었다。연말(年末)이 가까와지면서부터는 업무로 력 바쁘신 눈치였는데도 (당신의 직책은 인사 담당 이사였고、그 시기에 행내의 대규모 인사 이동이 있는 듯했다) 내가 찾아가 뵙겠다고 전화를 드리면 시간을 조금 바꾸거나、정 짬이 없으실때는 나를 직접 당신의 집무실로 오게하는 등、모처럼만에 이룩한 부녀간의 데탕트 무드를 깨뜨리지 않으시려고 이만저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셨다。그도 그럴 것이 벌써 십년이상 냉전 체제의 불편을 겪어온 아버지셨다。또 라진 빨을 당신은 그렇게 오랫동안 견뎌온 것이었다。그렇던 딸이 마치 늦어온 애인처럼 애교가 흘러 넘치는 얼굴로 나타나서「아빠、나 스테이크 좀 사주세요」「아이스크림 집에 데려가 주시겠어요?」하고 어리광을 부리거나、당신의 앞에 [illegible] 이 적으며「비싼 옷 한 벌만 해주세요。제가 입은 이 원피스 얼마짜린 줄아세요? 평화시장에서 육천원 주고 산거예요」하고 투정을 부릴때 당신은 복까지 차오르는 행복감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눈치셨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 속에 엉큼한 하나를 숨기고 있을 뿐이었다。정릉의 일 이후그렇게 자주、또 태도를 돌변하여 아버지를 찾아가 뵈온 것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해다거나 당신을 이해해서는 결코 아니었고、혹시 그가 아버지앞에 나타나서 정릉의일을 토설할는지도 모른다는은근한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커다란 갈등이었다。정릉에서 돌아오면、그가 내몸을 건드린이상 그렇게 입제는 아버지와 만나지못하리라는 생각을했고、또 속 그런생각이 황당을 한쪽구석으로 밀어내기는 했어도、어느 틈엔가는 불안이 마치 암세포처럼 불어나서 내 가슴을 꽉 메우는 것이었다。그럴때면 나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아 암담한 어둠을 응시하곤 했다。

하나의 가정(假定)에 대한 갈등이 이렇듯 심각한줄 나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었다。나는 그에게 마치 내 고삐를 쥐어준 듯한 느낌이었고、그는 이제 나를 상대로 어떤 야비한 짓도 마음대로 할수 있을것만 같았다。

CENTRAL AUTO -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8.15경축

제1회 재카나다 전 한인 체육대회 와 기념 쇼

경기프로

경기시간	경기종목	경기 구분	경기장 구분	선수(팀)
	유치원생 경기			
11:30	과자 따먹기	개인	F	제한없음
	바구니 터트리기	단체	F	10명
13:30	세발자전거 리레이	단체	T	4명
	국교생 경기			
11:30	200m 리레이	단체	T	남녀 각4명
12:30	바구니 넣기	단체	F	20명팀
16:00	줄다리기	단체	F	18명
	중학생 경기			
12:30	100m 경기	개인	T	남여각 4명
16:00	장애물 리레이	단체	T	4명
17:00	400m 리레이	단체	T	4명
	고등학생경기			
13:00	200m 경주	개인	T	무제한
14:00	800m 리레이	단체	T	남여각 4명
	일반부 경기			
16:30	줄다리기(남)	단체	F	15명
17:30	다리묶고 달리기	단체	F	8명
18:00	바늘귀 끼기(여)	단체	F	부인4명
13:30	공굴리기	개인	F	부인, 무제한
	노년부 경기			
13:00	통치기	단체	F	10명
14:00	공나르기	단체	F	10명
14:30	장년축구	단체	F	
17:30	마라톤	개인	T	무제한

인기가수 송 대 관
장 미 라
정렬의 가수 서 유 미
장 미 애
김 숙 희
박력의 가수 토 미 킴
최 정 민
태 진 아
인기코메디언 이 순 주
지 미 김(MC)
특별출연 백화전속모델

장소 LAMPORT STADIUM

일시 1981.8.15. 9.00 AM

우리 모두 참여하여교민 단결 과시하자

民正, 20일까지 後援會구성

法人 2백50개·個人 1백명線

10개이상 系列保有한 21개그룹은 除外

民正黨은 8일 중앙집행위원회 財政委를 차례로 열어 後援會구성을 위해 회원대상 기업및 개인5백명을 한정하고 이들 대상자들로부터 회원승낙서를 받아 오는20일까지 法人2백50개, 개인 1백명등 3백50명으로 黨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權正達사무총장은 이날 회원 3백50명을 확보하여 이달안에 중앙선관위에 후원회등록을 마치겠다』고 밝히고 『금년안에 단계적으로 1천명까지 회원을늘려 20억원의 정치자금을 募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후원회구성에는 국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위해 특정지역이나 특정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루 안배할 계획』이라면서 『法人과 여론이 좋지않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사회各界저명인사들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民正黨이 후원회대상에서 제외시킨 大企業은 10개이상의 系列기업을 보유한 ▲國際 ▲錦湖 ▲起亞 ▲南鮮物産 ▲大宇 ▲大韓전선 ▲東亞건설 ▲斗山 ▲럭키 ▲美都 ▲三元 ▲三星 ▲雙龍 ▲鮮京 ▲韓國화약 ▲曉星 ▲韓國生絲 ▲進洋 ▲코오롱 ▲現代 ▲韓進등 21개그룹이다.

民正黨은 「多數人에게 小額」이란원칙을 세우고 募金액기준을 ▲法人 3백만원이하 ▲기업인 1백만원 이하 ▲저명인사 5만원이상으로 정하고 ▲대표위원, 중앙위의장, 총무 등 黨5役은 30명 ▲사무차장, 정책위의장, 재정위원장 20명 ▲市道黨위원장, 재정위원은 10명 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權총장은 『民正黨의 후원회는 회원들이 정관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財政委에서는 李馬재정위원장은 이날『후보대상자들에게 書翰을 보낸후 간부들과 재정위원들이 개별적인 접촉을 벌이기로 했다』면서 『法人은 연간 外形거래액이 50억원이상으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후원금을 미끼로 청탁의소지가 있는 대상자는 배제하고 조건없이 참여하겠다는 사람들만 끌어들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페루議員團 5명 全대통령이 接見

全斗煥 대통령은 8일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페루의 산드로·마리아떼기·치아페上院의장등 일행 5명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相翊·제헌의원 친선협회장과 가르시아·마이크 駐韓페루대사대리가 배석했다.(사진)

經協규모 意見조정

南總理, 韓日外相회담 대책논의

정부는 8일 南惪祐국무총리주재로 高位關係官회의를 열고 오는20일의 韓日外相회의에 따른 대한대책을협의했다.

약2시간동안 계속된 이날회의에서는 韓日양국간의 외교적懸案과 특히 일본측에제시할 對韓經濟協力의 규모등에 관해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이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申秉鉉부총리, 盧信永외무, 李承潤재무부장관, 孔魯明 외무부정무차관, 崔東奎 亞洲局長등이 참석했다.

日 政務次官團 5명 11일來韓

【東京7日=聯】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 내각의 정무차관단이 오는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日本외무성이 7일 발표했다.

외무성은 한국외무부의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이들 일행이 아이찌·가즈오(愛知和男)외무성 정무차관, 야마자끼·다꾸(山崎拓)방위청정무차관, 노다·다께시(野田毅)통산성 정무차관등 5명이라고 밝혔다.

日 公明黨위원장 來31일 訪韓예정

創黨17년만에 처음

【東京8日=聯】일본의 제2야당인 공명당의 다께이리·요시까쓰(竹入義勝)위원장이 창당17년만에 처음으로 오는31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8일 日정계소식통이 밝혔다.

다께이리 위원장의 방한은 한때 연기 또는 취소설이 나돌았으나 이소식통은 公明黨의 관계긴밀화를 위해 오는31일부터 9월4일까지 한국 국회의장초청형식으로 다께이리위원장을 단장으로하는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최종방침을결정, 한국측과 절충을 벌이고있다고 전하고 한국측도 다께이리위원장의 방한을 희망하고있어 그의방한에 변화가없을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서도 美國行機 管制거부

國際聯 61개國에 촉구따라 美파업 全世界로 파급

◇지쳐버린 夫婦승객…空港서 낮잠 미국항공관제사들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접속항공기가 24시간이상 연착하자 지쳐 낮잠에빠진 젊은 벨기에부부승객。【UPI】

佛·伊·스웨덴 즉각同調

英·和도 곧加勢 "충돌위험 17件"

【에드먼턴·런던7日AP·UPI=聯合】레이건행정부가 美파업항공관제사들에 대해 해고·구속등 강경조처를 취하고있는 가운데 국제항공관제사단체연맹(IFATCA)은7일 세계61개국 관제사단체들에 대해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항공관제를 거부할 것을촉구했으며 유럽항공관제사들이 이에 호응, 이날 일제히 美국적및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항공관제를 거부하기 시작함으로써 미관제사파업의 파문은 국제적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해리·헨슐러 IFATCA회장은 이날 美관제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미상공의 안전이 불확실해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계사들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온다』는이유를 내세우면서 전IFATCA회원 단체들에 대해 미국행항공기들에 대한 항공관제를 거부하라고 촉구했다.

헨슐러회장은 미관제사파업이후 美상공에서 항공충돌사고가 발생할뻔한 사례가17건이나 된다고 지적하고 관제사들은 美국경밖의 최근접지까지만 항공관제를 할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이탈리아·노르웨이·스웨덴등 유럽국 항공관제사들은 이날부터 일제히 미정부의 파업관제사해고조처에 항의, 미국적및 미국행 항공기에 대한 항공관제를 거부 또는 지연시키기 시작했으며 영국·네덜란드·덴마크등 다른 유럽국 관제사들도 곧이어 동조할 기세를 보였다.

美, 軍관제사百28명 추가投入

【워싱턴7日UPI·로이터=聯合】레이건미행정부는 강경대응방침을 이어 美관제사들의 파업은 7일 정부가 ▲국내운항회수축소동결▲군관제사추가동원▲파업복귀 거부 관제사들에 대한 해고방침을 고수한반면 관제사들의 파업은 외국관제사기구의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決意를 보임으로써 일층 격화되고 있다.

드루·루이스운수장관은 이날 미국내선운항회수를 정상수준의 75%로 현수준에서동결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가 관제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있기때문에 그안전도는 종전보다 더높아질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이스장관은 레이건 대통령이 휴가차 캘리포니아로 떠난가운데 가진 이날 회견에서 레이건정부가 존속하는한 해고된 관제사들을 결코 재임용하지않을것이며 현파업위기가 극복되면 레이건대통령에게 당초부터 관제탑을고수한 근무자들이나 직장복귀자들에 대해서만 처우를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항공국(FAA)은 이날 관제사들의 계속파업으로 인한 일손부족을 매우기위해 1백28명의 軍관제사들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민간항공관제탑에 근무하는 군관제사는 근5백명선으로 늘어났다。

KAL 美洲線 延發着

관제사罷業여파 美통과승객·어린이는 탑승거절

美國의 항공관제사파업으로 美洲노선 대한항공기들이 최근 1주일째 정시보다 1시간~2시간씩 늦게도착되거나 30분씩 빨리출발하는등 그영향이 한국에도 파급되고 있다.

7일 밤9시40분 金浦공항을 출발, 뉴욕으로 가던 대한항공 5081便은 중간기착지인 앵커리지에서 관제탑의 지시를 받느라 2시간동안 발이 묶였다.

또 이날밤 9시30분 로스앤젤레스행 대한항공 012便도 정시보다 20분 앞당겨 金浦공항을 출발하기도했다.

이같은 차질은 하루평균1만여대의 항공기들이 이착륙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공항에서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적은 인원의 관제사들이 통제에나서고있어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것.

이에따라 대한항공은 美洲행 승객들중 미국비자없이 미국을거쳐 캐나다와 南美쪽을 여행하는 승객이나 보호자없이 미국 국내선으로 연결되는 어린이들은 탑승시키지않고있으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에서 미국국내선으로 갈아타는 승객에게는 도착후에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각서를 받은후에 태우고있다.

또 평일에 金浦공항에서 승객이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운송해 주던 승객탑승화물은 로스앤젤레스나 뉴욕까지만 실어다 주고 있다.

美國內線 절반取消 休暇승객들 큰不便

【LA지사】지난3일 상오4시(현지시간)를 기해 시작된 미국항공관제사들의 총파업으로 미국내선 비행스케줄의 절반이 취소되고 연발착하는 미국내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여행객들이 미국 각지의 공항은 휴가를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여행객들이 비행기를 타지못해 큰혼잡을 빚고있다.

그러나 서울발 LA행 KAL 국제선은 3일현재까지 운항스케줄에 영향을 받지않고있으나 대한항공을 탑승, LA서 미국내선을 갈아타려는승객은 이날현재 큰 불편을 겪고있다.

鳳凰大旗 고교野球

오늘의 대진 (9日) ◆1회전

▲徽文高—全州高 (8시)
▲江陵高—德壽商 (9시)
▲京畿高—釜山高 (10시)
▲永同商—在日同胞 (12시반)
▲東山高—光州一 (3시)

내일의 대진 (10日) ◆1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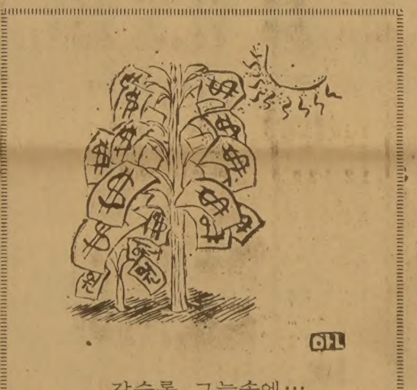
▲東大門商—浦鐵工 (10시)
▲大邱高—京東高 (12시반)
▲善隣商—慶南高 (3시)

어제의 전적 (8日) ◆1회전

	1	2	3	4	5	6	7	8	9	계
培文高	1	4	0	1	2	1	0			9
南大田	0	0	0	0	0	0	1			1
明知高	0	0	0	0	0	1	0	0	0	1
世光高	2	0	0	0	0	0	1	0	X	3
中央高	0	2	0	0	0	0	0	0	0	2
大田高	0	0	0	0	0	0	0	0	0	0

한독약품 협찬

社會漫評



갈수록 그늘속에…

싱글러브 어제來韓

駐韓미8군사령부 참모장을 지냈던 존·K·싱글러브 예비역소장이 8일하오 한미친선회의 초청으로 金浦공항착 방한했다.

地平線

우리나라 사람의 감정기복이 크다고 생각하는 외국사람들 가운데, 그 연유의 일단을 날씨에서 찾는 이가 종종 있다. 寒帶처럼 춥고 긴 겨울, 熱帶처럼 덥고 긴 여름을 살다 보니, 때때옷 같은 原色의 콘트라스트에도 그런 영향이 나타난다는 풀이다. 한갓 추측이나 다름 없는 얘기지만, 우리나라 한해 날씨가 極과 極의 대조를 이룸은 사실이다.

▼예컨대, 기상학에서 한해의 날씨 특성을 나타내기위해 그리는 클라이모그라프를 보자. 가로軸에 월평균기온, 세로축에 습도를 잡고, 월별로 좌표를 찍어 연결한 것이다. 3도시의 그라프를 한장에 그리면 그것은 多角形의 획으로 그린 「ㅈ」자 모양이된다. 위에 가로누운 多角形이 마닐라, 길쭉한 제2획이 서울, 그 허리께에 걸린 제3의 多角形이 런던이다.

▼이 그라프의 모양은 이렇다. 38선 이남에 자리한 서울의 겨울기온은 51도 위쪽에 위치한 런던과 맞먹으나, 습도가 적어 더 춥게 느낀다. 반면 서울의 여름은 기온과 습도가 모두 북위15도께인 마닐라에 육박한다. 그러나 런던의 여름은 서울의 허리께─즉 5·10월이나 같다. 이 패턴은 유럽 여러 도시가 마찬가지다. 같은 溫帶라지만, 우리나라 날씨는 極과 極이 벌어져 있는 것이다.

◆강수량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다시 런던의 예를 들면, 날씨가 온난한 4~9월 반년사이 강수량은 1년치 5백44㎜의 50%, 강수량 1천2백23㎜인 뉴욕은 53%. 이에 비해 서울은 같은 반년사이 1년치 강수량 1천2백59㎜의 83%가 내리며, 그것도 6~8월 석달에 60%가 집중된다. 이처럼 분명한 雨季─장마철이, 동남아 몬순지대에 공통되는 우리기후의 한 특성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 여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사실은 우리 여름은 하나가아니라 셋이다. 5월末 立夏를 여름의 시초라고 한다면 그뒤 한동안 런던의 여름과 비슷한 초여름·孟夏가 계속된다. 다음은 6~7월의 장마, 그 뒤끝이 마닐라와 다름없는 한여름·盛夏。유럽과 다른 우리 여름의 가장 큰특징은 이 2, 제3의 여름이다.

▼따지고 보면 여름이 셋이기에 우리는 쌀을 먹고산다. 장마철의 충분한 물, 한여름의 불볕이 있어 벼농사가 가능하다. 이한가지 예로, 농작물의 이삭이 패서 익기까지, 매일매일의 평균기온을 합산해보면, 보리가 1천8백도인데 쌀은 3천8백도라고 한다. 이 熱量의 공급원이 8월의 태양이다。국창의 大暑에보름 동으로, 우선 더위 주변의 부질없음을 생각한다. 아울러 며칠전부터 아침이면 졸렬쌀쌀해지는 가운데 冷氣와 병충해 방제문제가 마음에걸리기도한다.

經濟短信

▲韓信、三扶 유상증자‖한신공영과 삼부토건은 9월중 각각 67.7%와 50%의 유상증자를 하기로결정했다。韓信은 배정기준일이 9월17일、삼부는 9월10일이다。

▲韓·星港經協委‖大韓商議는 8일 싱가포르 商議연합회와 韓·싱가포르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키로 합의하고 오는 9월중 한국측 위원회를 창립할 예정。

▲특수 鑛業權제한‖국무회의는 7일 鑛業法시행령개정령을 의결、石油·우라늄등 특수광물의 출원법인을 대한광업진흥공사、油開公、動資硏및 자본금(또는 출자총액) 5억원이상인 법인으로 제한。

▲動資部次官 出國‖崔東奎 동자부차관은 8일 제3차 韓·印尼 자원협력위원회에 참석하기위해 대표단10명과 함께 出國。

▲ADB부총재 내한‖아시아개발은행(ADB) 부총재 밤바와레씨가 한국의 경제발전상과 ADB차관사업의 추진상황등을 살펴보기위해 8일하오 내한했다。

▲三養 합작공장추진‖三養食品(대표 朴鶴善)은 中南美와 아프리카지역에 합작투자 혹은 플랜트수출방식에 의한 라면생산공장 건설을추진。

달러續騰 金값續落

【런던7日로이터=聯】美國의 달러貨는 7일 런던외환시장에서 日本의 엔貨를 제외한 모든 주요통화들에대해 계속강세를 보이는한편 한때 온스당 8백달러선을 돌파했던金값은 이날 그절반값에도 채못미치는 온스당 3백98달러에 거래되었다。

金국민總裁 向獨

金鍾哲 국민당총재는 西獨을비롯、歐美지역방문차 申喆均사무총장、姜模弼의원등과함께 8일하오6시 KAL편으로 출국했다。

國內 처음…追加葬式 고분

慶南陜川 築造시기다른 多槨式

【釜山=聯】우리나라 고분에서 처음으로 같은무덤안에 追加葬式으로 가족유해가 안장된것이 발견됐다.

경남陜川郡 三嘉面良田里일대의 고분발굴작업을 펴고 있는 東亞大學박물관 학술조사팀은 1일 이들 고분이 嶺南지역에서는 최초로 발견된 橫穴式무덤이라는것도아울러 확인했다.

지난 6월22일부터 이지역에서 발굴작업을 벌이고있는 東亞大조사팀에 따르면지금까지 8기의 고분을 발굴했는데 같은 무덤안에 5~10개이상의 遺骸를 갖춘 多槨式고분으로 축조되었다는것。

北韓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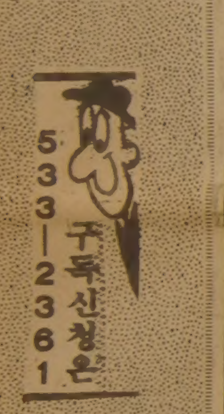
中共、吉林省延邊에 「朝鮮文學硏」설립

【서울=聯】中共은 최근 吉林省延邊 朝鮮族自治州에서 「朝鮮文學」학술토론회를 개최하고 韓半島의 문학연구사업을 확대、보급키위한 조처로 「朝鮮文學 硏究會」를 설립키로했다고 4일 北京방송이 보도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07
은: 온스당 US 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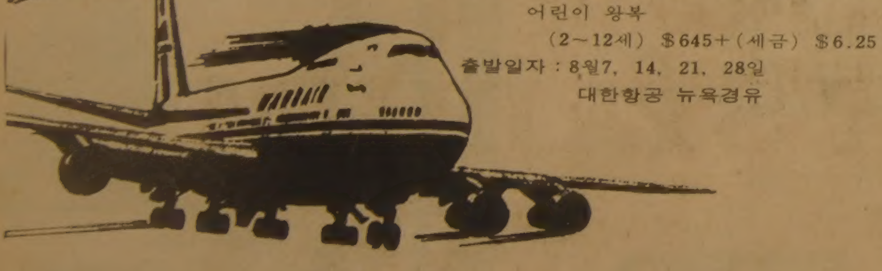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어디로 모실까요? IATA

모국방문 특별요금
요금: 성인왕복 $1180+(세금) $12.50
어린이 왕복 (2~12세) $645+(세금) $6.25
출발일자: 8월7, 14, 21, 28일
대한항공 뉴욕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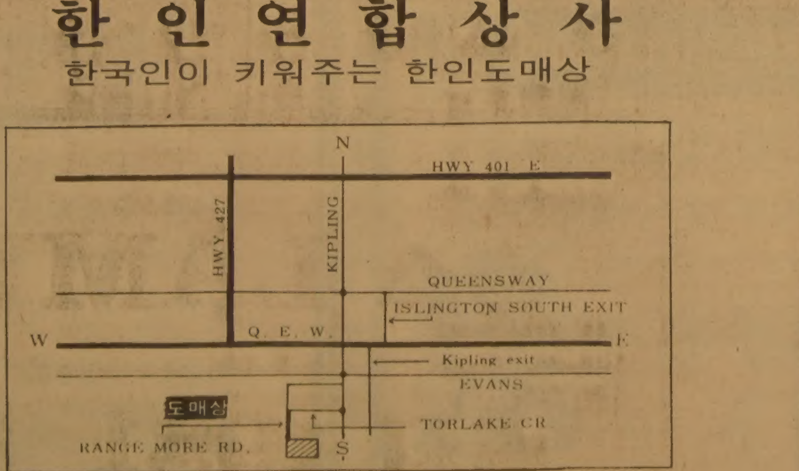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서울여행사

631 A BLOOR ST. W. TORONTO,
B) 535-8801 R) 293-9970
535-6004
최동주

한인연합상사

한국인이 키워주는 한인도매상



취급품목
GROCERIES
FROZEN FOOD &
COLD MEAT
VARIETIES
CONFECTIONARIES
CIGARETTES
TOBACOS

★주문전화: 251-6578 MISS 정
27 RANGEMORE RD.
TORONTO, ONT.
(구HIT 도매상)

영업시간: 월~토 8시~6시30분

※토요일 오후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레이건의 高壓자세

管制士파업 아랑곳없이 여름休暇

처음부터 不法규정…拘束도불사

對蘇정책관련 強한 이미지굳혀

國內線 80%정상회복…利用줄어 좌석비기도

【워싱턴8日=황후烈특파원】레이건행정부는 파업한 관제사들에게 초강경의 곤봉을 휘두르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7일부터 예정대로 1개월간의 여름휴가에들어가 파업한 관제사들에대한 강경책을 고수한다는점을 은근히 보여주었다.

레이건행정부는 『파업을 하지않는다』는 서약서를 쓰고 연방정부에 채용된 관제사들의 파업을 처음부터 불법적인것으로 규정했다.

48시간이내에 일자리로 돌아가지않으면 해고한다는 레이건대통령의 지난3일의 명령을 어긴 1만2천명 관제사들에게 연방정부는 해고통고를 우송했다고 루이스교통장관은 이미 밝혔다. 루이스장관은 이들이 해고된이상 불법적인 파업은 끝장난것이라고 말하고 2백30명의 관제사가 신규채용됐다고 밝혔다.

해고통고를받은 관제사들은 1주일이내에 협박, 질병, 휴가등의 정당화된 사유를 내세우지 못할경우 해고는 확정된다고 루이스장관은 말했다.

파업한 관제사들을 대표해온 PATCO(美직업항공관제사기구)의장 로버트·폴리이씨도 이미 구속한 8명의 관제사처럼 구속할 방침을 레이건행정부가 세웠다는 보도마저 나오고있다.

레이건행정부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파업이 끝났다는 판단아래 1만2천명의 관제사가 남긴 공간을 재빨리 재정비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있다.

57개의 소규모 공항관제탑을 폐쇄하여 약 1천명의 관제사를 「붐비는 공항」으로 옮기며 2천명의 군관제사를 차출하고 은퇴한 관제사중 5백명을 다시 채용하여 매월 3백명의 관제사를 새로 양성할 것이라고 행정부측은 밝혔다.

루이스교통장관은 파업전 하루 1만4천2백회이던 국내항공운행편중 7일로 76%까지 회복했으며 85%운항이 곧 실현된다고 말했다.

미국내선 운항은 4분의1이나 줄었으나 승객들 스스로 항공교통편을 줄여 오히려 비행기좌석은 비게되었다고한다.

승객1백18명을 태울수있는 보잉737의 경우 파업후 승객수가 평균 80명정도로 줄었다한다.

승객들의 수가 줄어든것은 비행기여행에 오래 기다려야하는 번잡함이 따를 것으로 미리 짐작한점과 사고율이 높아질것이라는 예상이 있기때문이라한다. 파업후 승객들의 수는 줄었으나 보험에 드는 승객의 수는 오히려 35%나 늘어났다.

레이건대통령이 관제사파업에 강경책으로 나온것은 노동정의에 대한 그의 보수적태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수있다.

관제사들의 파업이 미국국민들의 냉담한 반응을 받은것도 강경책의 뒷받침이 되었다.

관제사 파업은 정부측에 생각할 여유를 주지않았다. 또 평균 3만3천달러의 관제사연봉에 1만달러의 수당을 더 요구한것이 다소 지나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주었다.

관제사들은 평균 5만달러의 조종사봉급을 겨냥하지만 그직책이 다르며 연1만5천~1만8천달러를 받는 공장노동자에 비하면 관제사연봉은 나쁘지않다는 지적도 있다.

취임후 처음으로 직면한 파업에 강경하게나선 레이건대통령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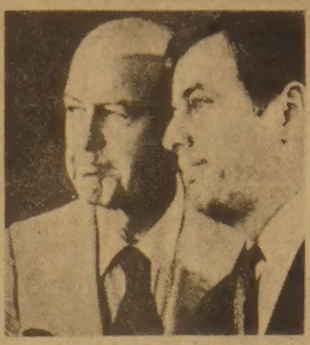
레이건은 카터와는 달리 소련에 확고히 맞서 물러서거나 동요하지않는다는 이미지로 국민에게 인기를 얻어 좋은 지도자상을 굳혀가는터이므로 거기에 흠이 가는 일은 하지않을것이다.

레이건이 이문제에서 자세를 흐트러뜨릴경우 소련에 주는 영향도 적지 않을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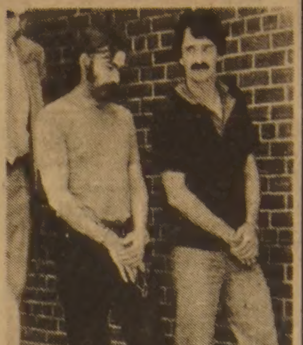
정부방침대로 해고될경우 파업전 수준의 안전운항상태를 회복하려면 21개월이 걸릴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이런상황에서 여객기회사는 손님이 적은 항로는 폐쇄하고 할인표는 없애며 승객요금을 인상하게 될것이라는 예상이다. 팬암항공사는 9월1일부터 직원들의 봉급을 10% 인하할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진다.

아직까지 국제선운항에는 영향이 가지않았으나 유럽관제사들이 파업한 미국 관제사들에 동정을 보이고 있는것이 주목을 끈다.



◇드루·루이스교통장관(右)과 J·린·헬름즈연방항공국장이 항공관제사 파업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AP】



◇美직업항공관제사기구(PATCO)의 제291기역(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 위원장인 스티븐·웰래드(右)가 7일 심문을 받은후 신원이 밝혀지지않은 다른 수감자와 함께 수갑이 채워진채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의 한법정을 떠나고있다. 【알렉산드리아7日AP=聯合】

過渡정부 구성合意

볼리비아 새大統領 임명키로

【라파스7日AP聯合=聯合】볼리비아의 반군지도자와 군사평의회지도자는 7일 회담을 갖고 과도정부를구성하고 새 대통령을 임명하기로하는5개항의 해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반군지도자나투수·부수에의해 7일밤 발표된 계획안은 쌍방모두 양보한선에서 이뤄졌다.

국영방송을 통해 밝힌 군사평의회성명은 합의가 이뤄졌다고만 전했다.

나투수·부수는 반군활동거점인 남동부의 산타 크루스시에서 반군방송을 통해 「이제부터 나의 사령부를 인계하고 私的활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美신속배치군無力"

中東서對蘇戰때60일내50%死傷 / 잭·앤더슨주장

【워싱턴7日=聯合】미국의 신속배치군이 소련의 중동유전지대침공시 중동에투입돼 쌍방간에 전투가 벌어질 경우 개전60일이내에 10만병력의 미신속배치군중 약 4만6천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하게될 것이라고 저명한 칼럼니스트 잭·앤더슨씨가 7일 주장했다.

앤더슨씨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린 칼럼에서 국방성의 비밀분석자료를 인용, 신속배치군이 소련의 무력행사에 오랫동안 대응할수 없다면서 그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군이 이경우 예상되는 엄청난 부상자들을 치료하는데 충분한 의료요원을 확보하고있지못하기때문에 많은 부상자들이 목숨을 잃게되는결과를 빚게된다고 말하고 역사적으로볼때 인명피해가 20%를 상회할때 전투의 효율성을 상실하게되는게 보통인데 인명피해율이 46%에 달한다는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波정부、自由勞組 비난

協商실패후 국영방송에 大大的성명

【바르샤바8日UPI=聯合】폴란드당국은 7일 국영통신인 인터프레스로하여금 식량난 해결을위한 정부―자유노조의 회담이 실패한후 자유노조가 발표한 성명의 보도를 거부토록 하는반면 정부측의 對자유노조비난성명만을 크게 취급케 함으로써 자유노조를 상대하는 정부의 정책이 변경됐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인터프레스는 이날 자유노조의 성명을 묵살한채 자유노조가 정부와의회담을 일방적으로 중단 시켰으며 이는 「오만하고 무책임한」태도라는 정부측의 비난 성명과 정부측협상대표였던 부수상 미에치스와프·라코프스키의 강력한 발언내용만을 반복보도했다.

이국영통신은 지난 3일에 있었던 정부―자유노조 회담 직후 까지만해도 자유노조에서 발표한 성명의전문을 폴란드 정부공보대변인의 논평과함께 보도 했었다.

자유노조는 정부와의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자 2건의 성명을 발표한후 그 성명서를 자유노조 바르샤바 본부 건물앞에 운집한 군중들에게 배포하면서 오는 10일 자유노조지도자들이 회동하여 전국적인 항의운동계획을 조정하기전에는 어떠한 파업이나 시위운동도 벌이지 말것을호소했다.

波지원 論議

美·英·佛·西獨

【파리7日聯合=聯合】미국 프랑스 서독 영국등 4개국 고위관리들은 7일 파리에서 회담을갖고 폴란드의 대외부채상환지원을 비롯한 폴란드의 당면문제들을 논의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밝혔다.

이날 회담의 자세한내용은 공식발표되지 않았으나 소식통들은 이들 4개국이 2백70억달러에 달하는 폴란드의 대외부채상환을 돕기위해 재정지원을 해주는문제를 중점토의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는 지난5일 미·영·서독 3국에 5억달러의 對폴란드부채상환자금 지원을 촉구했었다.

메아리

벌써 28년이란 빠른세월이 흘러갔다. 1953년 7월27일, 판문점 하늘엔 구름이 끼었고 세찬 바람마저 불었다. 상오 10시12분 한국전쟁의 비극을 억지로 덮어버린 휴전협정의 조인식은 한마디의 말도 나눔이없이 목조건물에서 끝나 버렸다.

판문점은 이때부터 한반도 분단사의 새로운 상징적인 지점이 되었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휴전협정에 서명한 유엔군사령관은 클라크장군이지만 한국전쟁을 이끌어 온것은 맥아더장군 이었다.

현역에서 물러난 맥아더는 휴전협정후 날카로운 군인의 통찰력을 발휘하여 이런 경고를 남겼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정을 믿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다만 힘이없어 휴전에 응했을뿐, 힘을 기르면 또 나설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의 정체다. 다시 남침하면 그들은 지난번 처럼 전면공세를 펴지않고 기습과 一點突破로 일거에 결정타를 꾀할 것이다』

6·25의 손실은 흔히 2차대전의 태평양전쟁과 비교된다. 일본측의 전사자만 2백50만으로 알려졌다. 확실한 숫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엔군측 추계로 중공군의 한국전 사상자가 90만, 북괴 52만여에 달한다. 남북한 민간인과 유엔군의 인명피해까지 합치면 태평양전쟁의 참화에 못잖다.

이 엄청난 비극의 기록을 남기고도 판문점엔 지난 28년간 긴장이 가라 앉을줄 모른다. 도끼만행이 벌어졌고 땅굴이 파졌다. 크고 작은 非人道的인 도발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 휴전선을 침투하다 사살된 무장공비나 간첩의 시체를 북괴는 번번이 생떼를 써가며 인수를 안했다. 그들은 영혼의 안식을 바라는 우리의 「人道」를 외면해가는 것조차 거부했다.

지난 7일 유엔군측은 판문점을 통해 우리의 「人道와 善意」를 넘겨 주었다. 비무장지대 남쪽에 있는 한 민간인 공사장에서 나온 6·25때의 중공군시체와 유품을 수습하여 그의 가족에게 돌려보낸것이다. 이번엔 중공측에서 조용히 우리의 성의를 받아들여갔다. 30년만의 혼백의 귀향이다. 북괴의 생떼가 없는 판문점의 평화를 보는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한데 북한집단은 언제나 그들 간첩과 공비의 시체라도 받아가려 할는지, 안만해도 부지하세월인것 같다.

板門店의「人道」

加트뤼도首相 訪韓해도

輸入제한완화 도움안돼

【토론토7日=聯合】오는9월로 예정된 피에르·트뤼도 캐나다수상의 韓國방문이 한국의 對캐나다시장수출을 제한하는 캐나다의 정책을 완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을줄것으로는 보이지않는다고 오타와의 한 정통한 소식통이 7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트뤼도수상의 방한으로 열리는 韓―캐나다 정상회담의 첫번째의제는 쌍무무역및 경제협력의 확대문제가될 것이나 캐나다가 수입자유화의 폭을 넓히면서까지 대한쌍무무역과 경제협력을 확대시키려 할 것같지는 않다고 시사하면서 캐나다가 유럽및 다른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도 수입제한정책을 쓰고있음을 지적했다.

中共黨에 몰수土地 옛地主들 返還요구

【北京7日聯合=聯合】지난49년 중공당이 중국본토를 장악할 당시 토지를 몰수당했던 지주와 부농출신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돌려주도록 요구하고있다고 中共廣東省의 南方日報가 보도했다.

北京에서 입수된 南方日報는 지난4일자 신문에서 前지주들이 최근 毛澤東의 정책이 상당히 수정되면서 몰수당했던 토지와 가옥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오고 있다고 밝혔다.

WP紙에 8백80만弗 損害배상청구

「지미의世界」波紋…校長등 "少年찾으려다 곤욕"

【워싱턴7日=황후烈특파원】워싱턴市 교육위원회 로크리지위원, 그의 부인이며 학교교장인 밀드레드여사및 한 학부형이 작년 가을 워싱턴 포스트紙에 실린 날조된 마약 중독 소년 「지미의 세계」 기사로 워싱턴 포스트社와 필자 후크양 및 몇사람의 편집자를 상대로 8백80만달러(61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워싱턴市 고등법원에 제기 했다고 7일 워싱턴 포스트지가 보도했다.

로크리지워싱턴市교육위원등은 이날조된 기사로 『욕설, 곤혹및 조롱』을 받았으며 그「지미」소년을 찾으려고 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손해에대해 2백30만달러를 청구하고, 또 워싱턴 시가 이허위기사로 인해 州단위로 승격하는운동에서 큰 피해를 입은데 대해 6백50만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이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스타紙 終刊號 1백28년의 역사를 가진 워싱턴·스타紙가 연간2천만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견디다못해 7일 終刊號를 발행한후 자진폐간했다. 【워싱턴7日AP=聯合】

韓日관계 새轉換期

光復36年에 다시본 오늘의 日本 <4>

◇고오베市의 한국퍼레이드—재일교포들이민속춤을추며행진하고있다.

유랑민 在日同胞

偏見·差別극심 犯罪者취급

누릴權利없이 힘든 義務만

거의 日人행세…歸化도 어려워 "民族性포기"요구

일본땅에서 檀君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陶藝家뿐이다.

임란때 南原城에서 볼모로 끌려와 3백년동안 면면히 이어온 사쓰마야끼(薩摩燒)의 14대종손 沈壽官이 그대표적예다. 비취색 청자와 순백색 백자의 고장인 한국은 일본 도공들의 성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일동포는 자기 뿌리를 감추고 두개의 이름으로 행세한다. 金씨는 가나야마(金山)나 가네다(金田)로, 安씨는 야스다(安田)로 둔갑한다. 재일동포들이 일본사람으로 행세하는것은 재일동포에대한 차별이 그만큼 극심함을일러준다.

바둑올림픽에서 名人과 本因坊 두개의 타이틀을 따내, 2관왕이된 趙治勳9단은 일본신문을 보지않는단다. 6살때 현해탄을 건너온 그는 재일한국인으로 살면서 「한국」과 「조선」에 대한 좋지못한 기사를 너무나많이 봐왔다. 그는 그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어느샌가 신문을 보지 않으면 이 가슴쓰린 일을 당하지 않겠지, 하는마음에서 신문보기를 거부했다.

재일동포의 不良化가 많았던것은 한국사람의 힘이 특별히 세기 때문이아니다. 재일동포 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갖지못할때 생긴 반동의 행동이었다. 한때 주먹세계의 왕좌를 누렸던 동경의 도오세이까이(東聲會)회장인 마찌이(鄭建永)나 오오사까의 야나가와구미(柳川組) 조장인 康東華등 중심으로 재일동포들이 몰린것도 민족의 분노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볼수있다.

힘겨운 의무만 있고 누릴 권리가 없는 재일동포는 제대로 사람대접을 받지못하고 부평초처럼 살고있다. 재일동포는 연간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2천억원의 세금을 내고도 참정권은 고사하고 생활권마저 확보하지 못하고있는 형편이다.

재일동포는 번번한 일본회사엔 취직을 할수 없다. 설령 취직이 됐다해도 차별대우에 견딜수없어, 자퇴하기가 일쑤다. 75년 朴鍾碩군의 히다찌(日立) 제작소 입사거부문제, 金敬得씨의 일본 사법수습생 채용거부 문제등은 민단의 거단적인 캠페인으로 해결됐지만, 재일동포청년은 취직전선에서 이같은 민족차별을 한번쯤은 경험해야한다.

74년4월 일본 법무성이 실시한 외국인의 직업통계에 의하면 재일 외국인 가운데 관리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국인이 6.1%로 가장많고 재일동포는 0.4%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단순 노동자는 미국인이 0.01%인데 비해 재일한국인은 11%나 되었다.

국적조항에 따른 차별에 못견디어 일동포가 귀화하는 경우에도 그 수속은 까다롭고 복잡하다. 2년동안면밀한 조사가 뒤따른다. 독립하여 살아갈 재산이 있는가, 불미스런일이 있는가등을 체크한다. 거기다가 귀화조건으로 민족성의 포기를 다짐받기까지 한다는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귀화했다해도 곧장 일본사회에 끼워주는 것이아니다. 호적에는 여전히 「新日本人」이란 낙인이 찍혀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재일동포는 이럴수도, 저럴수도없는 딱한 형편에 있다.

50년대초 덜레스 美국무장관은 對日平和조약안을 기초할때 한국정부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서명토록 계획했었다. 이를안 요시다(吉田茂)수상은 『재일동포는 대부분 공산당이며 이들이 전승국 국민이되면, 일본사회의 혼란이 야기된다』고 고자질했다.

요시다(吉田)수상은 한발 더나아가 美점령군사령관 맥아더장군에게 재일동포의 추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재일동포는 52년4월19일 일본법무성 민사국장이 「한국인등에 대한 國籍및 戶籍사무처리」라는 통달을내어 일방적으로 국적을 처리했다.

일본정부는 까다로운 出入國管理令(57년)과 外國人등록법(52년)에의해 재일동포의 손발을 묶었다. 외국인등록법은 14세 이상의 在日外國人의 지문을 채취하게돼있고 또 매3년마다 등록증을 경신해야한다. 이것은 재일동포에대한 범죄자취급으로 볼수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항시 휴대해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징역·금고·벌금을 과할수있도록 규정돼있어 심지어 공중목욕탕에 갈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증을 소지한다.

또 出入國관리령은 불법입국자는 물론 治安교란자와 금고이상의 刑罰을 받은자및 재정상 바람직하지않은자로서 빈곤자, 신체장애자, 생활보호대상자는 강제퇴거의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있다.

실제로 77년 福岡의 한어머니가 남편과 이별, 혼자5남매를 양육할길이 없어 생활보호대상자가 됐는데,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이유로 체류허가가 나오지않아 수용된 일이 있었다.

일본정부는 재일동포가 불가피하게 생겨난 역사적 사실을 인식, 안심하고 생활할수 있는 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다. 【東京=宋孝彬특파원】

◇돛단自轉車 파리大學生인 미셸·데이비드君이 風力으로 달리는 돛단 自轉車를 考案, 보우빌해안을 시원스럽게 달려 試運轉해보이고있다. 【키스톤=聯合】

海外토픽

萬里長城 총5만㎞

★地球한바퀴돌고도남아

BC770년부터 明朝(1368~1644)에 이르기까지 2천년에 걸쳐 구축된 각지의 만리장성을 서로 연결한 경우 지구주위를 한바퀴 돌고도 남을 것이라고 중공관영 신화사통신이보도.

이 통신은 하나의 구조물이라고 통상적으로 알려진것과 달리 여러부분으로 이루어진 만리장성의 총길이는 5만㎞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지구주위는 4만㎞에 불과하다고 강조. 【北京聯合=聯合】

自信任務 自責안해

★廣島원폭 投下 美조종사

36년전 일본히로시마에 세계최초로 원자폭탄을 투하했던 B29기의 조종사 폴·티베츠씨(66)는 자신이 원폭투하에 대해 매일밤 악몽을 꾸거나 엄청난 죄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많은 영화나 신문, 책들과는 달리 자신의 원폭투하임무에 대해 두번 다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고 실토. 【신시내티AP=聯合】

오늘의 歷史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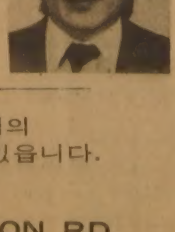
- ▲孫基禎, 베를린올림픽서금메달 <1936>
- ▲제2차 上海사변 발발 <1937>
- ▲美, 日本 長崎에원폭투하 <1945>
- ▲그리스·터키·유고, 발칸 군사동맹 조인 <1954>
- ▲싱가포르, 말레이지아연방서 분리독립 <1965>
- ▲제1차韓·日정기 각료회의 개최 <1967>
-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 <1974>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학생친선축구대회

제4회 몬트리얼·토론토 학생 정기 친선축구 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하오니 토론토 학생들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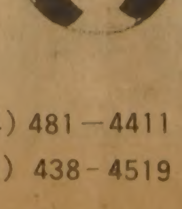
시간 : 8월23일 오후 3시

장소 : 몬트리얼 켄트 공원

주최 : 몬트리얼 서독 친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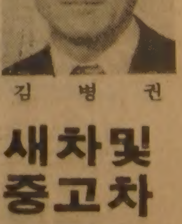
후원 : 몬트리얼 한인회

연락처 : 몬트리얼 유동훈 ☎ : (514) 481-4411
토론토 신우원 (416) 438-4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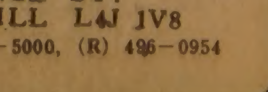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해방36년

日帝에 항쟁한 강렬한 民族意志를 오늘에 다시 統一意志로 불붙일 것을 주장하는 광복절기념강연회가 8일 하오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열렸다。 한국독립유공자협회가 마련한 이 기념강연회에는 동협회 회장 趙擎鎬씨와 朴成壽교수, 崔昌圭교수등이 강연했다。 解放36년에 즈음해서 되돌이켜 보는 당시의 獨立意志는 과연 오늘에 있어서 어떤 뜻을 지니는가。 강연의 중요내용을 녹음·요약해 소개한다。

「抗日 獨立精神」 어디로 가고있나

獨立유공자協 광복절紀念강연

韓민족 最大종교는 「愛國魂」

"自主와信賴의 민족力量 되살려 ◎ 식어가는 統一 意志에 自覺을"

◇日帝35년에서 해방되었던 그 8월의 서울거리。다시 36년을 맞는 오늘, 우리의 獨立정신은 어떻게 다시 展開돼야할것인가。

朴成壽교수(崇義女專)는 강연 「독립운동사의 새 인식」에서 日帝에 항쟁한 독립운동사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네가지 意義를 설명했다。

그意義의 첫째는 갖가지 受難속에서도 끈질기게 항쟁하여 민족의主體性을 자각하고 自主獨立의뜻을 굽히지않게해 『독립해야 한다』, 『독립할 수 있다』는민족적 力量을 신뢰했던 점이다。때문에 민족의 역량을 믿지않고 외세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일인가를 터득하게 했다。

둘째는 민족의力量에 바탕을 둔 完全獨立의 성취를 위해서는 침략자와의、어떤 평화적 교섭이나 타협도 있을수 없었다는 점이다。때문에 전쟁방식에 의한 抗日운동만이 유일한 獨立路線이라고 믿어졌으며 외교에만 의뢰해서 외교적인 타협방법으로 가려는것은 『더운 피를 차게하고, 산 넋을 죽게하는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게했다。

세째로는 민족역량의 민을 바탕으로 완전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主義·主張과 地位·地方에 따른 분열을 막고 하나로, 한 통일체 (Monolith)로 뭉쳐야 한다는것을 보여주었던 점이다。내부분열은 외세의존과 외교적인 獨立求之이상으로 抗日戰力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네째로는 독립운동의 주류는 몇몇 소수자나 개인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이루어진 것이아니라 韓民族의 대부분이 참가한 민족 意志의 거대한 結晶體라는 점이다。이 때문에 오늘에와서 독립영웅의 이름으로 개인 숭배를 강요하는 일이 있다면 그 것은 명백한 역사 왜곡의 죄로 간주될것이다。

朴교수는 이같은 네가지 특징은 다른 나라의 독립운동사와 비교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말하고 『이 독립운동의 특성은 식어가고 있는 오늘의 統一意志에 깊은自覺을 깨우치는 반성의 자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운동자들은 日帝의 패망을 확신했고, 완전 自主독립을 믿어 의심하지않았다。이런 확고한 信念과 期待는 해방으로 이끌어가는 한 정신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었다。

「독립정신으로 본 새韓國史의 전개」를 강연한 崔昌圭교수(국회의원)도 『독립운동에서 발휘한 민족의 확고한 신념과기대를 다시 살려 통일로 가는 민족의 정신적인 에너지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崔교수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의 상황에서 독립정신이 어떠냐는 소극적인 상황론이 아니라, 그 상황론에서 한걸음 나아가 독립의지와독립정신을 근거로해서 현재의 우리 역사를 얼마만큼 새 역사로 이끌수 있느냐하는 적극적인 의식과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방후 兩斷된 한국역사는 35년동안日帝에유린당하여 지칠대로 지치고 파괴될대로 파괴된 어머니인 國家와 억울한 分斷으로 반쪽을마비당해 36년간이나 반신불수로 지내온아버지인 民族등 불완전한父母를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劇的으로 표현했다。

白岩 朴殷植선생은 독립정신을 강조하며 國魂(나라 혼)의 앞머리에 國敎(나라 종교)를 두어야한다고 주장하곤 했다。그리고 『우리의 國敎는 愛國魂이다』라고 말하고, 『한민족의 역사앞에 최대의 종교가있다면 그 것은「애국혼」이다』라고 설명했다。

崔교수는 『우리 민족이 강한 도전자를 이길 수있었던 것은 생명력과 에너지, 거기에 덧붙여지는 마지막 알파의 要因인애국혼 때문이었다』고분석했다。

그는수난을극복하는 힘에 대해 자신을갖고, 3·1독립선언에서 드러났던 것과같은 自主, 애국혼의 강한 의지를 다시 불붙여 새역사의 主體가 될때 우리는 統一이라는 民族史의한 승리를 기록할수있다고강조했다。

崔교수는 『우리들의 독립정신, 수난극복의 에너지는 가장 소중한 민족 理性의 본질로서, 새 역사를 창조하기위해 다시한번 확인하고 갖이 새겨 가져야 한다』고 맺었다。

인간과 휴식

罪씻음으로 心靈의 樂을

日曜日 아침을위한 말씀

韓基萬 <여의도침례교회목사>

휴식을 영어로 레크리에이션이라합니다。Re라는 접두사와 creation이란 명사가합해진 말로서 휴식의 뜻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즉 휴식이란 재창조를위한 멈춤인 것입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중 한가지는 많은사람들이 정신적인원인으로 여러가지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것인데 그것은 사회구조의 분업화에 따르는 인간의 기능화와 개인의 개성을 무시한 획일화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조물주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삶을 누리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들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사회의한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만 것입니다。가장 높은수준의 물질 문명과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가정 중 50~60%가 파괴되고 있는데 사회학자들은 그 원인중 하나가 가족들이 피곤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즉 일에 쫓겨 지쳐버린 몸과 마음이 침울하고 부정적이 되어 충동에 대해 지나치도록 강하게 반응하여 가정에 있어 가장 큰 비극인 이혼이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 지친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하여 죽기를 원하는 기록이 있읍니다。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있을 때 엘리야는 갈멜산위에서 1對4백50의 대결이라는 이방신선지자들과의 숨막히는 긴장의 시간을 보낸 후 대승리를 거두었읍니다。그런데 그 대결로 말미암은 영육간의 막중한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방 선지자의 총수격인 이세벨로 부터 『너도 내일이면 정녕 죽으리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읍니다。신앙의 거장이지만 피곤한 엘리야는 도망하여 로뎀나무 밑에 은거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간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곤비한 현실을살피시고 단잠과 떡과 음료를주심으로 평안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셨읍니다。쉼을 통해 다시 일어선 엘리야는 이스라엘 구원의 사역을 계속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달력을 보면 한 주간의 첫날이 쉬는 날인 일요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우주의 시작을 기록한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거처할 천지를 6일동안 창조하신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안식일로 선포하셨음을 말하고 있읍니다。

즉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맞이한 첫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면에서 쉼, 안식, 휴식을 누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인간에게 있어 휴식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정신적·육체적으로 휴식을 갖도록하여 삶의 기쁨을 갖게 하셨읍니다。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휴식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고 나름대로 휴식한다고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피곤을 초래하는 실수를 계속하고 있읍니다。그 이유는 참된 의미의 휴식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참된 안식을 어디에서 찾을수 있읍니까? 옛날 세상적으로 볼때 부족함이 없이 온갖것을 다 누리고 있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인생의 모든 수고를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결론지으며 참된 안식과 기쁨이 지식이나 쾌락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로 부터 오는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것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읍니다。육체의 쉼만 추구한다면 공허감이 남을 뿐입니다。정신적인 쉼만 추구한다면 새로운 갈증이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근본적인 휴식은 심령의 안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심령의 안식은 인간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주실수있읍니다。인간을 문제가운데 빠뜨리고 지치게하여 쉬지못하게 하는것은 인간의 죄입니다。참된 휴식은 죄의해결에서 올 수있을것입니다。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죄에빠져 방황하는 무리를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내가 너희를 쉬게하리라。나는 마음이 온유하고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그러면 너희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쉼은 하나님의 선물 입니다。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베데스다 연못가의 38년된병자가 7일에 한번씩 2천번에가까운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냈지만 진정한 안식일을 얻을수 없었으나 어느날 예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쉼을 누릴 수 있었읍니다。성경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기록하고있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이상 피로한 시지푸스의 수고를 하지 않고 생명과 풍성한삶을 누리도록 하기위해 이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앞에나아와 겸손한마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나를위해 십자가에 못박혀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믿음으로 심령의 힘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으니 영혼의쉼이야말로 참된 레크리에이션이라 하겠읍니다。휴식의 계절인 이여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그리스도를만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의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文豪의 名言

러스킨 <1819~1900>

英國의 文明批評家。옥스퍼드大學卒業후「近代繪畵論」으로 주목받음。후에 社會問題에 관심을 가져 理想的社會 건설을 위해 私財투입。옥스퍼드大學美術史교수를 지냄。

생각컨대 세상에서 바른生活을 보낸 남자로, 婦人의 사랑에의해 깨끗해 지지않고, 그思慮에의해 도움받지 않고, 또한 그思慮分別에의해 인도되지않은 사람은 하나도없을것이다。

婦人의 도움없이는 바른生活 어렵다

× × × ×

러스킨(John Ruskin)의 著書표제는 엄청 不可解한것이많은데 「참깨와 百合」(Sesame and Lilies 1865)도 그가운데 하나다。

보통 「참깨」는 아라비언 나이트의 「알리바바와 40人의 盜賊」故事중 「열려라 참깨!」(Open Sesame!)란 신호로 알리바바가 철벽을 열어 안에든 財寶를 몽땅 털어갖게 됐다는 해석이다。

이책은 2개의 講演과 改訂版에 첨가된 제3의 講演으로됐다。

제1講演 「王者의寶庫」에서 그는 英國讀者의心得을 헤아리기위해서 讀書란열심으로서해야한다고말한다。

이것이 즉 讀書論이다。

要旨는 「人生은짧고 따라서 조용한여가를 얻어낸다는것은 극히 힘들다。그러기에 보잘것없는책을 읽어 시간을 낭비해선안된다。

리 가치있는 책을, 아름다운 體制로 인쇄, 적당한값으로 누구에게도 널리 추하고 俗된 모양으로한다가活字를 적게해서 視力을 해치도록 만들어 너무싸게팔아도 안된다。

설령 오늘 우리들이 비참한 상태에있는 어려운 국민으로 心身을 전전히 기를수 없다손쳐도, 적어도인간인이상 食卓에 나쁜 술이나 고기를 놓을수없는것처럼, 書架에 印刷가 더럽고 철자가 조잡한책을 꽂고 마음편히 있을수는없다。

비록 느리게라도 절약해 일생동안 유익한 양서를 모아 그작은 書架를 가정의 필수품의 하나로 만들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百合」은 舊約聖書 雅歌제2章「나는 샤론의꽃, 골짜기의 百合꽃。소녀들속에 내 사랑하는자가 있는것, 가시덤불속에 百合꽃이 있는것과 같다」에서 나온것으로 百合은 婦人의 純潔을 상징하는것으로 생각된다。

제2장 「女王의花園」에서 러스킨이 말하고자한것은 「男性과 女性은서로 한쪽이 갖지못한長點을 가졌다。따라서 양자는 똑같이 교육돼선 안된다。女性은 어디까지나女性다와야 하는것으로, 대저 세상의 圓滿한 幸福이란, 남자다운 남자와 여자다운 여자와의 和合協力에 의해 이룩된다」는것이며 바로 그의 婦人敎育論이다。

러스킨은 1864년 맨체스터에서 「王者의寶庫」「女王의花園」이란 강연을 했는데 이것이 이듬해 「참깨와 百合」으로 出版됐다。인용은「女王의 花園」序文에서。

風速計

宗敎는 많아도 宗敎藝術은 없다

종교적인것이 예술적인것을 꼭 수반해야할 필요성은 없으나 종교적승화와 예술적 승화는 인간정신의 가장고귀한 면을 표현해주고있다는점에서종교예술에대한 새로운관심이 제기되고있다。

이같은 관심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있는 종교의 부흥、특히 기독교가 두세기의 역사를 통해 이젠 우리민족의 종교로 성장했다는 점에서、그러나 이 기독교가 아직도 우리문화의 특징을 상징해주는 기독교예술을 창작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수있다。

蘇興烈교수 「空間」誌 제언

蘇興烈교수(梨花여대)는 종교예술의 부흥과 관련한 제언을 「空間」誌 8월호에 제기、『오늘날 우리사회에는 온갖 종교들이 부흥하고있지만 종교예술에서는 그만한 창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했다。

蘇교수는 『우리조상들은 종교적이면서 또한 예술적이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예술적인것을 상실하고 종교적인것만으로 그치고말것인가』고 반문하고있다。蘇교수는 또 건전한 종교집단은 지역사회의 문화적인 발전에 참여해야한다고 강조、자기자신들을위한 교회나 사찰의 건축은 그것의 물리적 존재로서 이미 그지역사회의 문화풍조에 영향을주며、또 그것은 언제나 그시대 그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위대한 창작품으로 남게될 가능성을 지니고있다고 말했다。

나의告白

박계형 <소설가>

四旬節에 찾아온 젊은그분

「나는罪人」이란사실 일깨워

인간에게 가장 처절한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생에 대한 모든 미련과 희망과 애착을 빼앗기는 순간일게다。우리는 살기위해서 태어난다。생에 대한 기대와 꿈과 포부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즐겁게 밀어간다。나는 참으로 꿈많은 소녀였었다。

되고싶었던 것도 많았고 갖고싶었던 것도 많았었다。물론 나는 나의 소시적에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진 못했다。그러나 사과의 맛을 알기 위해서 사과전부를 다 먹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인생을 몇입 베물어 먹어보자마자 당장그 헛된 내막에 식상해버리고 말았다。인생이란 그속임수의 내용이 철저하게 그 밑구녕까지 들여다보이고 마는 것이다。

멀리서는 좋다고 보이던 모든 것들이 가까이 와보니 모조리 신기루가 되어 사라지고 힘껏 쫓고자하는 모든 인생의목표물들이 실상은 이 신기루를 향한 무모한 추적이라는 인식이 삶에 대한 모든 소망과 의욕을 내 가슴 속에서 걷우어 가버렸다。

생에대한 나의절망은 생활의 유복함과 안락속에서 내게 밀어닥쳤다。나는 스스로 안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린 자였으며、가져봄으로써 잃어버린 자였고 앞선곳도 없이 생의 벼랑으로 밀려난 자였다。생에의 희망과 집착을 빼앗긴다는것은 정신적 사형선고며、허무와 퇴폐에 이르는 염세주의의 시발이다。

그러나 내가 본 곳은 천국이었다。키에르케고르의 말처럼 나의 절망은 더 높은 새로운 희망에로의문이 되어주었다。「예수」라는 이름을 향하여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매달렸다。

애초에 내가 그분께마음이 이끌린 것은 그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와서였다。새로운 희망의 문을 그분을향하여열고 나는 힘껏 부르짖고 탐하고 믿었다。그런 어느 사순절의 밤、예수는 나를 찾아주셨다。찾아와 줍시사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홀연히 나를 만나러오셨다。

나는 마치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알키메데스처럼 뛰어나가 소리쳤다。오、세상에、나자렛 청년예수가、2천년전 십자가에 매달려 피투성이가되어 죽으신 그 가엾은 젊은이가 정말로 하느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오셔서 일깨워주신 것은 다만 내가 죄인이라는 참혹한 사실뿐이다。文學에서도 人生에서도 나는 죄만 지었고 하늘을 향해서도땅을 향해서도 얼굴을 들수 없는 몰염치한 죄인이다。

宗敎

소 식

이슬람聖典 韓譯출간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는 이슬람교의 聖典인 코란을 우리말로 번역, 출간했다。외국어대학 아랍어과 金容善교수에의해 8년간의 작업끝에 완역된 코란의 한국어판 책이름은 「韓譯註解 聖꾸란」。이슬람교의 기본경전인 코란에는 민형법·의식·도덕률·사회개혁·이교도와의 聖戰등에 관한 계시가 수록돼있어 아랍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코란이 외국언어로 번역되기는 이번 한국어판이 45번째。그러나 본래 코란은 이슬람교 안에서는 그 뜻의 이해여부와 관계없이 원문그대로 읽도록 돼있다。

大邱에 가톨릭神學校

천주교 大邱대교구는 문교부의인가를 받아 大邱市 鳳德洞1329에 善牧신학대학을 설립, 내년신학기부터 60명을 모집키로 했다。善牧神大는 서울가톨릭대학 신학부와 光州大建神大에 이어 한국 제3의 가톨릭신학교가된다。

「할머니봉사회」 발족

기독교할머니봉사회가 10일 상오11시 서울종로5가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모임을갖고 발족한다。

盂蘭盆齋日맞아 法要

오는 14일 (음력 7월15일) 은 선망부모와 현세부모를 위해 3보께 정성을 드리며 3악도에 떨어진 조상의 혼백을 제도하는 불교의 명절인 우란분재일 (盂蘭盆齋日)。부처님 당시의 目連尊者이래로 부모의 은혜를 갚는날로 유래해온 이날을 맞아 天台宗 총본산 救仁寺에서는 전국의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법요를 봉행한다。

天道敎「地日」기념식

天道敎는 118회 地日기념일을 맞는 14일 상오11시 천도교 중앙총부 대교당을 비롯 전국 2백여 교구및 전교실에서 기념식을 갖는다。地日기념일은천도교제 2 세교조海月崔時亨이 1세교조 水雲 崔濟愚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날이다。기념식에 이어 교회발전에 공로가 큰 同德들에게 표창패 수여가 있다。

漢灘江서 佛靑야영회

서울불교청년회는 자비의 실천, 지혜의 도야, 강건한 체력의 향상을 위한 불청야영대회를 15~16일 이틀간한탄강제 2 보트장에서갖는다。

圓佛敎「三同會」 인가

圓佛敎교단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三同會가 보사부로부터 인가돼 앞으로 적극적인 자선사업을 펼칠수있게됐다。三同會는 노인복지 심인불구 보육원 어린이집 탁아소의 설치운영및 유지관리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있다。

불교曹溪宗신도修鍊會

불교曹溪宗 전국신도회 (회장 朴完一) 는 불교지도자를위한 하기특별수련대회를 오는14~17일 경기도淸平산장호텔에서 개최한다。이번 수련대회에는 시도지부회장 중앙이사 교구본사지부회장 각급 시군지회장 신행단체장등이 참석한다。

馬三樂박사 송별 예배

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는 한국에서 20여년간을 선교사로 일하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馬三樂박사내외의 송별예배를 11일하오2시 서울 연동교회에서 갖는다。

재건대원 福音化집회

한국자활인복음전도회 산하 샛별교회는 10~14일까지 재건대원 복음화를 위한 특별집회를 갖는다。서울西大門區弘濟1洞시장 2층에서 모이고 있는 샛별교회 집회는 10~12일은 어린이들위한여름성경학교, 13~14일은 어른들을위한 밤예배로 짜여져있다。

流星의 賦 <153>

李炳注作 李友範畵

山空花自紅 ③

눈은 멎지 않고 해는 저물었다。

결국 그날 밤 정철과 홍성민은 이이의 병실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자시(子時) 가까울 무렵 정철이 잠에 빠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시가、잠들었나?』

어둠 속에서 이이의 말이 있었다。

『잠이 오질 않구먼』

홍성민의 대답이었다。

『우리 나이 벌써 48세。이해를 넘기면 49세인데、신생(申生)에겐 49세가 최악의 액년(厄年)이라네』

『숙헌도 그런 걸 믿는가?』

『몸이 병중에 있으면 망발된 생각을 하게도 되는거여』

『사람에게 있어선 액년 아닌해가 없고、복년(福年) 아닌 해가 없다네。마음이야 마음。화복(禍福)은 재심(在心) 아닌가』

『그렇테지、그렇테지만』

하고 이이는 망설이더니

『나는 최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어。내 인생은 실패가 아닌가 하고 말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숙헌의 인생이 어째서 실패일 수 있는가。학(學)은 일세에 휘황하고 벼슬은 인신(人臣)을 극하는 존보 앞에까지 가 있는데』

『시가、내 말을 들게。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 모두 곡해(曲解)를 낳으니 이것이 화단(禍端)이란 말일세。만일 내가 오래 살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곡해를 풀기라도 하겠지만 이대로 죽는다면 만사휴이(萬事休矣)가 아니겠는가』

『숙헌、무슨 그런 말씀을 하는가』

『아니네 시가、내 말을 똑똑히 들어두게。금상(今上)은 총명하다。영리하다。그러나 왕자(王者)의 그릇은 못되는것 같아。왕은 신하의 현명(賢明)을 가시기하면 못쓰는거네。한편 높은데 앉아 신하의 각재각능(各材各能)을 총람하여 의연해야 할것이어늘 상감은 신하와 겨루어 스스로의 우월한 재능(才能)에 있어서도 나타내어야만 직성이 풀리는、그런 성미인것 같아。신하 가운데 자기의 재능보다 우월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아넘기지 못하는 거라』

『그렇진 않을걸세。자네에게 하는 태도로 보아선 결코 그렇게 말할 순 없어』

『시가、그렇게 보이게 하는、바로 그곳에 상감의 총명이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거게 또 말못할 그 무엇이 있어。상감이 나를 칭찬하는 것은 자기의 우월을 만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지、진심으로 신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 아냐』

『그렇지 않다니까、숙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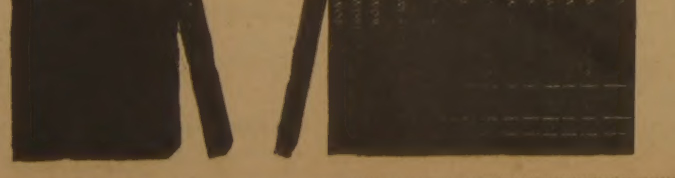
『들어보게、시가。왕은 대신이나 중신을 칭찬할 필요가 없는거네。그들의 제청이나 건의를 들어주는 것으로써 칭찬의 보람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그런데 우리의 상감은 빈 말로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않지만、제청과 건의의 윤허엔 인색하거든。자기가 칭찬해 놓고 자기가 칭찬한 신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건가。무소불능(無所不能)의 권능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상요목(勸上搖木)이 아닌가。그래서 나는 왕자의 그릇을 생각해 보게 된거요…』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 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A ,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0

T. P. ADVERTISING GROUP
바우종합광고회사
●간판부 : 각종간판 · 유리문 싸인 · 쇼－카드전문
●그래픽 디자인부 : 신문광고 · 상업디자인 · 비지네스및 개인명함 · 회사나 단체 마－크 · 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쇄부 : 도서(책자) · 편집및 출판(월간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현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769－4366(저녁7시이후)

"차를 도매가격으로 살수 있읍니다"
무슨차든지 주문을 주시면 DEALER 가격보다 훨씬 싸게 살수 있읍니다.
ADDISON(G·M) DEALER
ELGIN(FORD) DEALER
ONTARIO크라이슬러 에서
차를 보시고 PICK UP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 : 362－3592로 연락 바랍니다.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메이커
숙녀복(size 5 ~ 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 534-2003

世光 猛烈투수陣, 奪三振 10개

明知를 1安打로 막아 3-1

中央도 大田高 쉽게 이겨 2-0

鳳凰大旗 고교野球

世光高 培文高 中央高가 제11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의 1회전관문을통과, 2회전에 올라섰다. 世光高는 8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대회 3일째 1회전경기에서 에이스 韓禧敏의 다채로운 변화구와 郭英陳의 계투로 明知高 타봉을 2안타 4포볼 10삼진으로 봉쇄하는한편 1회말의 적공으로 3-1로 승리 했다. 培文高는 중앙무대에 처음 등장한 南大田高를맞아 9명의 타자들이 고루 안타 또는 타점을 기록하며 9-1, 7회콜드게임으로 대승했다. 中央高는 2회초 吳成珏 李鍾隆 金珠烈등 하위타선의 폭발로 승기를잡아 大田高를 2-0로 물리쳤다.

世光高·明知高

1회말 첫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世光은 선두1번 盧敏龍이 중전안타, 2번 宋津宇가 좌전안타를 날렸다.

2루 주자는 질풍같이 달려 3루에 스틸, 明知수비가 멍하니 서있는틈에 2루에안착. 宋津宇의 타구가 파울이나 아니냐는 시비로 옐이 울라있던 李正雄 明知감독은 액땜을 하려는듯 주전포수李根成을 재빨리 崔太容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世光은 찬스를 놓치지않고 3번 姜熙燮이 라이트에, 4번 全勇星이 센터쪽에 깊숙한 회생플라이를날려 2점을선제했다.

世光이 사이드드로 韓禧敏은 땅을 스치듯 들어와 좌우로 흩어지는 다채로운 변화구로 明知 공격을 5회 까지 무안타, 1포볼, 6삼진으로 世光타선역시 침묵, 6회까지 안타하나 더하지 못했다.

明知는 6회초 1사후8번 金起洙가 처음 韓禧敏으로부터 좌전안타를 때앗고 9번 趙在律의 포볼로 1, 2루의 찬스를마련, 2사후 2번 李光根의 세이프티번트 안타와 3번 陳永惜의 포볼로 밀어내기로 1점을 만회했다.

明知의 추격에 쫓긴 世光은 7회초 선두5번 崔東昌이 포볼로나가 明知투수의 제악송구로 3進한후 8번 英陳의 스퀴즈번트로 홈인, 2점차의 리드를 고수했다.

◇쐐기박는 3점째 홈인 世光高와 明知高의 대전。7회말 포볼로 나가 투수 견제악송구로 3루까지 진출한 崔東昌이 韓禧敏의 스퀴즈번트로 홈인, 3점째를 올리고있다。

培文 콜드게임勝

첫出戰 南大田 손못써 9-1

培文高·南大田

培文의 대진운이 좋았다. 처음 중앙무대에 나선 南大田은 그라운드에 익숙치못한 탓인지 培文의 왼손투수李明三에게 3회까지 무안타로 눌리며 집요하게 대량의 실점을 허용했다. [illegible]

2회초에는 선두7번 高丁植의 파워3루타를 비롯한 선제점을 [illegible] 南大田은 그라운드에 익숙치 못해 안타를 쳐도 득점과 연결 [illegible]

中央高·大田高

[illegible]

南大田선수들은 매일6교시 수업을 마친후 3시간씩 연습, 「공부하는 야구선수」로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8일 培文高에 9-1, 7회 콜드게임패를 당했지만 『최선을 다한것만으로도 만족한다』며 당당한 표정.

德壽商역시 南大田과 팀컬러가 비숫하다. 개교 70주년을기념해 지난해 11월15일 팀을창단한 德壽商은 투수金相元 포수金允培를 제외하고 15명을 모두 재학생가운데서 뽑았다. 『2년간은 콜드게임을 각오하고있다』

南大田 德壽商 聖光 浦鐵工은 모두 新生팀

"中央무대에서 배우겠다" 熱誠도 대단

[illegible]

이미 1억원에가까운돈이 들어갔고 올해안에 1억5천만원을 목표하고있다. 선수들 역시 매일 4교시 수업을 빼먹지 않고있으며 모두가 주전과 부가하고있는 막강한후원회.

聖光과 浦鐵工은 모두1년생들로구성되어있다. 聖光은 60년대에 2년간 야구팀을가졌지만 무각을나타내지 못해 해산됐다가 10여년만에 다시 재출발을했다. 지난해 南道교위서 주선한 야구선수 트레로 좋은 선수들을 받았다. 특히 趙相憲은 大邱中시절 홈런타자로 이름을 날렸으며 투수 吳永錫과 浦鐵工은 柳明浩 徐敬教 등 자질있는 투수와 대형포수로 기대를 모으고있는 金順源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중학부의 2관왕 大邱中과 浦項中선수들로 구성된 浦鐵工은 지난번 화랑기대회서 8강에진입, 다크호스로서의 면모를 보였으며 내년에는 전국대회 4강권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있다. 【혼】

◇제3일1회전

배문고	140 012 1	9
남대전고	000 000 1	1

〈7회콜드게임〉

▲培文투수=李明三 포수=高丁植 ▲南大田투수=金順子·金洪章(5회) 포수=趙[illegible]

명지고	000 001 000	1
세광고	200 000 10×	3

▲명지투수=金起洙 陳永惜(5회) 趙在律(7회) 포수=李根成 崔太容(1회) ▲세광투수=韓禧敏 郭英陳(6회) 포수=安[illegible]

中央高	020 000 000	2
大田高	000 000 000	0

▲中央투수=李鍾隆 曺ㄱ煥(2회) 포수=俞炳宣 ▲大田투수=聽午大 俞炳德 포수=崔哲熊

大學生子女2名이하 公務員

學資·獎學金대여

총무처는 7일 秋期학자금 대부계획을 마련, 대학에 재학중인 2명이내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에게 오는10일부터 31일까지 學資金을 無利子 또는 低利로 대부키로 했다. [illegible]

趙榮增 첫골을 記錄

北美 프로축구 守備맡아

[illegible]

한국, 緒戰서 美에 逆轉敗

大陸間컵야구 9회말 3點홈런 맞아 6-4

【에드먼튼(캐나다)=聯】 한국은 8일 상오11시(이하 한국시간) 캐나다 에드먼튼에서 열린 81년도 대륙간컵국제야구대회(일명 슈퍼월드컵) 8개국 풀리그 1차전에서 美國에게 6-4로 역전패, 1패를 기록했다. 한국은 8회까지 4-1로 앞섰으나 9회말 보크등으로 2점을 허용한후 金始眞이 맥모렐에게 결승3점홈런을 허용, 승리를 놓치고 말았다.

한국은 1회초 2死후3번 金在博의 솔로호머로 1점을 앞섰다.

美國은 6회말 1死후9번 맥도웰 1번오웬이 연속내야안타를 때리고 포수金鍾雨의 2루견제구가 빠져 2, 3루가 됐을때 2번 보틀러의 희생플라이로 1-1동점을 이루었다.

한국은 7회초 金在博의우전안타, 4번 金用熙의 번트안타와 투수의 악송구로에무사1, 3루의기회를가졌다. 5번 張孝祚, 7번 金貞洙의 연달은 내야땅볼로 3루주자가 홈에 뛰어들다 2명이 아웃됐으나 계속된 2死만루에서 8번 金鍾雨의 2타점 좌전적시안타와 9번 [illegible]의 적시내야안타로 3득점, 4-1로 앞섰다.

◇제2일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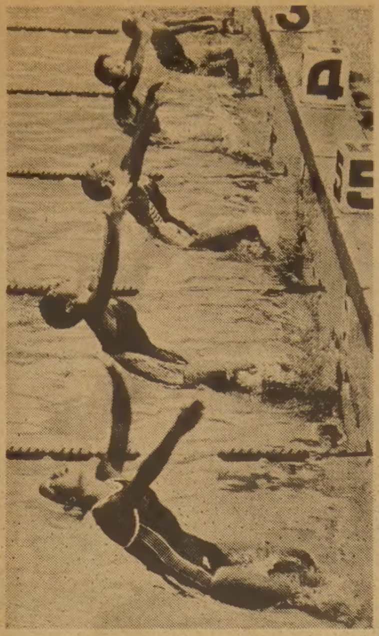
한국(1패)	100 000 300	4
미국(1승)	000 001 005	6

▲홈런=金在博(1회초) 맥도웰(9회말·3점)

쿠바(1승) 6-0 호주(2패)

일본(1승) 7-1 캐나다(1승1패)

도미니카(2승) 11-4 파나마(2패)



◇여중 배영 2백m 예선 스타트。

東亞수영대회 開幕

첫날에 大會新9

제53회 동아수영대회가 전국46개팀에서 4백46명이 참가한가운데 8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첫날 대회신9개를 기록했다.

李忠原 李薰喆등 국가대표선수들이 거의 출전치않았으며 여자부의 趙眞娥(이화)도 저조한 기록을 보였다.

梨花女高의 金善姬는 여고자유형 1, 2백m 2종목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金은 자유형2백m에서 2분19초89를 기록, 종전대회기록을 1초12 단축했으며 1백m에서도 대회기록을 0.84초 앞당겼다.

또한 개인혼영2백m 한국최고기록보유자 趙眞娥(이화)는 자신의 한국최고기록 2분30초97보다 5초92나 뒤지는 2분36초89를마크했다.

韓體大·全南體高 覇權차지

梁正模금메달기념 KBS레슬링 閉幕

【釜山=聯】 梁正模올림픽제패기념 제6회 KBS배쟁탈 전국아마레슬링대회가 韓體大와 全南體高가 일반및 학생부 패권을 차지한 가운데 7일 九德체육관에서 막을내렸다.

◇최종일 전적

◆단체종합

▲일반부=①한체대 13점 ②동국대 82·3점 ③동아대 78·3점

▲학생부=①전남체고 2 0·6점 ②전북체고 19 6·7점 ③경남사진종 16

◆체급별우승자

▲일반부자유형 주니어·플라이급=이상배(동국대) ▲플라이급=안승문(한체대) ▲밴텀급=정승기(원광대) ▲페더급=김수한(동국대) ▲라이트급=김동찬(한체대) ▲웰터급=손민규(동국대) ▲미들급=백현명(한체대) ▲라이트·헤비급=양기상(부산위생) ▲학생부자유형 주니어·플라이급=노경진(함평농) ▲플라이급=이근호(남산공전) ▲페더급=장사용(전남체고) ▲라이트급=진형균(삼진종) ▲미들급=김태우(군산동) ▲라이트·헤비급=오재연(함평농) ▲헤비급=조동재(대전체고) ▲동그레코로만형 주니어·플라이급=박경칠(전남체고) ▲플라이급=주광종(괴산고) ▲밴텀급=설해룡(영남고) ▲라이트급=정병청(전남체고) ▲웰터급=유상옥(함평농) ▲미들급=김용훈(강원고) ▲라이트·헤비급=박보근(부산체고) ▲헤비급=남재영(영남고)

金光玟 방어전연기

【釜山=聯】 9일하오 九德체육관에서 벌어질 예정이던 프로복싱 동양태평양권투연맹(OPBF) 라이트급챔피언 金光玟과 도전자인 동급 7위 필리핀의 라토·페나와의 타이틀매치는 金선수의 눈부상이 악화돼 무기연기됐다.

柳煥吉, 比선수對決

東洋도전 前哨戰

프로복싱 동양 태평양권투연맹(OPBF) 페더급1위 柳煥吉은 9일하오 문화체육관서 동급 泰國1위 콴라윳·티포뉴트와 맞선다. 柳는 이 경기서 승리하면 오는11월 OPBF동급 챔피언인 日本의 로얄·고바야시에 도전할 예정이다.

韓國 아시안게임誘致 충분

AGF會長 體育室운동장등 視察

라자·날린드라·싱 아시아경기연맹(AGF)회장은 한국은 아시안게임을 치르기에 충분한 체육시설과 교통·호텔등의 여건을 갖추고있다고 말했다.

싱회장은 7일하오 體育室서 올림픽경기장과 泰陵국제사격장등의 시설을 돌아본뒤 이같이 말하고 오는 86년의 제10회 아시안게임개최는 오는 11월27·28양일간 印度 뉴델리에서 열리는 AGF임시총회에서 확정되며 서울·平壤·바그다드 3개도시중 1개가 선정된다고 밝혔다.

올해의 선수선정 브라이트너 選手

西獨축구誌 키커

【함부르크(西獨) 7日聯=AFP】 西獨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수위팀인 바이에른·뮌헨팀의 주장 파울·브라이트너(29)가 축구주간지인 키커誌가 최근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5이닝奪3振7개 好投

世光선발投手 韓禧敏

선발 투수로 등판, 5회 3분의1 이닝동안 1안타, 7삼진의 호투를 보여 世光高승리에 주춧돌이 되었다.

1m83, 71kg으로 무수로서 체중이 다소 모자란다는 평. 앞으로 몸무게가 4~5kg만 더붙으면 이상적인 투수로 성장할것같다는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5회까지 한개의 안타도 내주지않고 호투하다가 6회에 첫 [illegible]

[illegible] 永東中 1년때부터 야구유니폼을 입은 韓은 허리를 다쳐 1년간 배기장을 가진뒤 3학년때 다시 글로브를 끼었다. 世光高 1년때까지 우익수를 맡아오다 1년전에야 투수로 데뷔, 지난 [illegible] 金純聲감독은 『禧敏이는 투구할때 몸이 고 [illegible] 점만 보완하면 사이드드로 투수로서 대성할것』이라고 칭찬한다. 韓泰浩씨(51)의 3남1녀중 막내.

할렐루야 찬양의 밤

주님을 찬양드리는 성가와 밴드, 무용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 하오니 바쁘신 중에라도 오셔서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 연:

무 용 : 할렐루야 무용단 10명
빤 드 : 6인조 빤드(지휘 : 옥 성 빈)
성 가 : 본교회 찬양대
찬조출연 3명
특별출연 : 조 광(한국무용가협회 이사)
구성, 안무 : 옥 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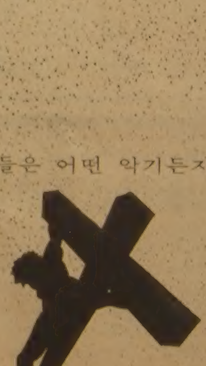
곳 : 300 QUEENS, DR. TORONTO, ONT. M6L 1M5
때 : 1981년8월23일(일) 오후4시
주 최 : **연합한인펜티코스탈교회**
교 역 자 : 심 상 대

성가대지휘및 반주자 청빙 :

믿음과 소명감을 갖고 봉사코자 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우는 잘해 드리겠읍니다.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사진 1매
기 간 : 1981년8월31일까지
연 락 처 : 300 QUEENS, DR. TOR. ONT.
전 화 : 223-1914, 226-2583
교 역 자 : 심 상 대
빤 드 부 : 음률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떤 악기든지 다 환영합니다.
빤드부담당 : 옥 성 빈
전 화 : 274-8439(R), 278-4867(B)

"하늘에선 주께 영광!"



연합한인 펜티코스탈 교회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⑯

2·8獨立宣言

와세다대학에 입학한 이듬해 東京에서, 한국인유학생들이 독립을 絶叫하는 「2·8獨立宣言」의 기치를 높이 올려 日帝를 놀라게했다。2·8독립선언은 3·1독립선언에 직접적인 자극을 준 독립운동의 快擧였다。

2·8독립선언이 나오기 전 在日유학생들간에는 日帝의 가혹한 武斷정치에 대한 저항의식과 자주독립정신이 팽배해 있었다。

유학생들은 1911년에 결성된 한국유학생 學友會와 朝鮮기독청년회, 조선여자 친목회등을 중심으로 단결해 있었다。이들 모임은 겉보기엔 친목단체처럼 보였으나 실은 애국사상으로 무장된 結社였다。1919년께 일본엔 2천5백명가량의 한국인 유학생이 있었고 그중 2천명이 東京에 있었다。이들중 상당수가 유학생학우회, 기독청년회에 참여했다。

유학생들은 학술회, 토론회등은 물론이고 예배, 성경공부, 야구, 육상대회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끼리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눴다。

1918년이 저무는 초겨울 어느날, 신문에 눈이 번쩍뜨이는 기사가 실렸다。고오베(神戶)에서 발행되는 「크로니클」이란 英字紙에 民族自決主義를 주창한 윌슨美대통령의 14개조항이 보도됐다。그해 11월 1차세계대전이 終戰된후 파리講和회의에 제출한 미국의입장을밝힌 세계平和案의 내용이었다。식민지는 보상을 받지도 말고 民族自決원칙에의해 독립되어야한다는 조항을 보고 나는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

그당시 일본엔 官報인 「저팬·타임즈」, 외국인들이 관여하는「애드버타이저」, 고오베의 「크로니클」등 3개의 英字紙가 있었다。

春園이 성명서 작성…三·一運動촉진
형무소 찾아 投獄된 9명 뒷바라지

신문은 또 미국의 대한국민회에서 韓人대표로 李承晩, 鄭翰景, 閔瓚鎬등 3명을 파리강화회의에보내 독립을 호소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실었다。그 기사를 보고 나는 용기백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당시 나의 中央학교선배인 呂運弘이 일본에 潛入, 미국의 소식을 전하고갔다。

이해 12월말 東京의 明治회관과 조선기독청년회관에서 유학생망년회와 웅변대회가 각각 열렸다。유학생들은 이 모임에서 自主獨立 운동을 醒事하기로 했다。

유학생들은 운동을 도모하기위해 金度演(慶應大) 崔八鏞(早稻田) 白寬洙(正則영어학교) 宋繼白(早稻田) 徐椿(東京高師) 尹昌錫(靑山學院) 崔謹愚 金尙德 李琮根(東洋大) 田榮澤등 10명의 실행위원을 뽑았다。그뒤 田榮澤이 빠지고 金喆壽(慶應大) 李光洙가 추가됐다。한편 宋繼白과 韓달수가 본국으로 密派됐다。東京소식을 전하고 국내상황도 파악할겸 자금을 구하기위해서였다。

이들은 中央학교의 崔麟 宋鎭禹 金性洙 玄相允 崔南善등과 연락, 자금을 구했다。

본국에선 일본에 연락하러 張德秀가 日人으로 變裝하고들어왔다。

이즈음 白寬洙는 李光洙에게 선언문을 만들게했다。後警의 눈을피해 2개월간에 모든준비를 은밀하게끝냈다。

1919년2월8일 상오 10시30분, 東京 神田區에 있는 조선기독청년회관 1층에 4백여명의 남녀유학생이 모여들었다。

◇2·8독립선언의 제1線 主動者로서 獄苦를 치른 인사들。前列㊧로부터 崔八鏞 白寬洙 宋繼白 徐椿, 後列㊧로부터 金喆壽 尹昌錫 金度演諸氏。(1920年)

尹昌錫이 개회선언을 했다。곧이어 白寬洙가 나오더니 在東京한국인유학생 學友會 총회란 모임의 간판을 순식간에「朝鮮靑年獨立團」으로 바꾸고 선언문을 낭독했다。

『조선독립단은 我2천만민족을 대표하여 자유와 정의의 승리를 得한 세계萬國의 前에 독립을 期成하기를 선언하노라…』 2·8독립선언이었다。

회관은 독립을 외치는 함성과 만세소리로 진동을 했다。놀란 日警들이 몰려들어 유학생들의 가두진출을 봉쇄하고는 대거 연행해구금했다。재판에서 金度演, 白寬洙, 徐椿, 宋繼白, 崔八鏞, 尹昌錫등 주모자9명은 1년~1년반을 언도받고는 市谷형무소에서 징역살이를 했다。복역중 宋繼白은 옥사했다。

유학생들은 당시 1, 2, 3線으로 조직돼 波狀투쟁을 하기로 했었는데 崔承萬, 崔元淳, 鄭光好, 卞熙鎔등이 2차계획을 세워 투쟁하다 체포돼 호된 獄苦를 치렀다。低學年인 나는 後事를 도모하기위한 3線에 속해있었다。

一線주동자들이 투옥되어있을 때 나는 조선기독청년회총무인 白南薰씨와 함께 형무소를 자주찾아 그들을 위로하곤 했다。

그때 常山(金度演의 雅號)은 오히려 『고맙소이다만 이렇게 자주찾아오면 큰일 납니다』라며 걱정을 해주곤 했다。

이어 국내에서 3·1운동이 일어났다。상당수 유학생들은 학업을중단하고 귀국해 항일운동에뛰어들었다。이해에 나도 학업을 중단했다。

己未年 3·1운동의 독립만세는 이땅을 진동시키면서 우리의민족정기를 세계만방에 알렸다。

韓國庶民列傳
激動의 近代를 살다간 偉大한 한국人들

영원한 北間島人 柳基淵

평생모은淨財 獨立運動에
"돈벌어愛國"學校·敎會세워 子女에 企業통한 봉사강조
亡國恨품고 北間島로…大農場 일궈
몸에 밴 節約정신…남에겐 즐겨 베풀어
사랑방은 항상 志士·敎人들로 가득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다。사람이 그의 조국을 사랑하고 독립을 위해 노력하는데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수 있다。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 펜을 들고 쓰는 사람, 말로써 사자후를 토하는 사람, 외교역량으로 국제적 도움을 청하는 사람…。그중에서도 그는 「돈을 벌어서」 애국을 하고자한 사람이다。

돈을 번다는것은 양심에 反하는 짓을 해야만 하는것으로 잘못 생각되고있는 요즘이지만, 바로 그런 世態에 警鐘이 될만큼 그의 「돈」은 깨끗했고, 그의 정신은 오늘에도 시퍼렇게 살아있다。柳基淵(1861~1934)。

淨財를 독립운동가 돕는데에 썼던 그는 또한 北間島땅이 영원히 잊지 못할 「북간도의 인물」이다。

1905년 乙巳보호조약이 체결되자 많은 憂國志士들이 北間島로 망명해 갔다。亡國의 설움에겨워서, 가난과 부패와 무정부상태에 분통이 터져서, 그들은 北間島땅에서나마 힘과뜻을 모으려 했었다。

그런 北間島땅에는 우리동포 사회에 한가지 공통된 현상이 있었다。그것은 어디에 정착을하든 반드시 학교를세운 사실이다。

땅을 사들이고 밭을 일군 다음에는 그중 제일 기름진 땅을 學田으로 떼어놓았다。거기서 나오는 소산으로는자녀들의교육에만 쓰도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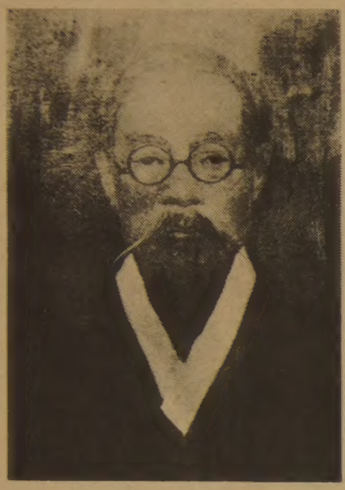
마치 門中齋소산을 가지고 조상을위한 경비에만 쓰듯이 學田制가 있었기에 오로지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한 학교를 세울수 있었던 것이다。

학교 다음으로는 교회가섰다。아니 교회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학교가 서는 곳도 없지않았다。그리하여 학교가 교회일 수도 있었고 교회가 학교일 수도 있었던 것이 당시 北間島 이주민 사회의 특징이었다。

柳基淵은 그 북간도땅에서 평생 배움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그는 그곳에 수만평의 농장을 가질 만큼 경제기반을 닦았고, 이 재력으로 오로지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독립운동가들을 뒷바라지하는 데에만 썼던 것이다。

그는 본래 경북醴泉땅에서 났다。고향에서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익히다가 그의 나이 20세때 단신 서울로 올라왔다。

[illegible]



◇「영원한 北間島人」으로 기억되는 柳基淵。그의 기업을통한 나라사랑의 정신은 오늘에도 이어지고있는 「기업인의 귀감」이다。

세자주권을 박탈당하는 억울한 경험도 겪었다。

일본은 관세없이 그들의상품을 우리나라 시장에 마구 쏟아 놓았다。그것이 開港의 댓가였다。

젊은 柳基淵은 농산물 또는 해산물 도매상으로, 또는 싱거 미싱의 대리점 경영으로 착실히 재력을 키워가면서 경제력만이 국가의 주권 [illegible] 깎았다。平壤에서 사업기반을 쌓아가던 그는 당시 「3만」시대를 이룬 청년애국지사 李承晩·鄭淳萬·朴容萬등의 『젊은 사람들을 많이 외국에보내어 새교육을시켜야 빨리 나라가 개화되고 그럼으로써 나라가 온전히 설수있다』는『개화입국론』에 깊이 감동했다。그는 그의 9세된 장남(一韓)을 [illegible] 건너로 보낼수있었던 父情, 그것은 개화에의 희구만이아니라 빼앗기고 짓밟힌 어지러운 나라를 벗어나 신천지 미국땅에서 견문을넓히고 경륜을쌓아 누구보다도 크게 나라를사랑하는 인물로 성장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일합방의 불길한 그림자를 예감한 柳基淵은 장남의 도미에 그치지않고 몇해후2남(仲韓)마저 중국에 보낸다음 자신은 결연히 일어나서 독립지사들의 활동무대이던 北間島로 들어갔다。

[illegible] 아야한다」는 것이 유일한생활철학이었다。자녀들에게는 『대동강물이라도 물지게로 지어나르지 말고 바가지로떠서 아끼자』고 가르쳤다。그자신이 얼마나 절약정신을실천했는지는 延吉에 처음도착하여 냉면집을하던때 식초값을 받아낸 일화로도 증명이 된다。

그는 냉면맛은 식초에달려있다는 商道義를 실천에옮겨 언제나 제대로 만든 식초를 내놓았다。하루는 어떤 손님이 냉면에다 식초를 마구 치는 것을 보고『우리집 식초는 물을 타지않았으니 그만 쳐도 제맛이 난다』고 일러 [illegible]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애국가를 부르고나서 하루일과를 시작했다。『피난처있으니 환난을 당한자 이리로 오게。땅흔들리면 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두렵지않네』로된 가사에 영국가 곡조를붙여부른애국가였다。

일명 局子街로 부르던 延吉에서 그가교회를 중심으로 매일같이 만나던 이들은 독립운동가인 金躍淵을 비롯해서 金永學·金酒範목사등이었고 그의 사랑방은 항상 교인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미국에 간 장남이 고학으로 미시간대학을 마치고、중국에 간 2남이 北京輔仁대학에 진학했을 즈음에는 그의 농토는 소산이 20여호에 이를만큼 큰규모로 늘어났다。

그는 미국의 아들이 보내온 회중시계를 농장사무실에 놓고 농부들과 같이 시간을 재면서 일하곤했다。

장남이 귀국하여 학계로 갈것인가、사업을 할것인가를 망설였을때 그는 단연 후자의 길을 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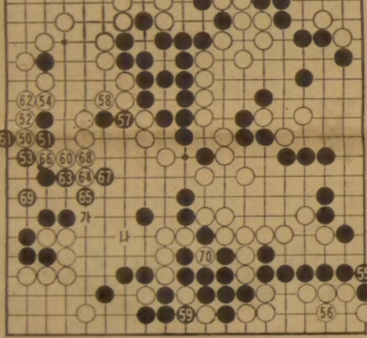
일본의 수탈정책에서 민족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국민을 일본의 경제적인 노예에서 건져내자는 것이 그가 평생을 지녀온 뜻이었기때문이다。장남이 1926년 서울 鍾路에 유한양행의 창립깃발을내걸자 그도 北間島에서 조용히 平壤으로 돌아온다。

[illegible] 라는 찬송가를 즐겨부르며 그는 73세로 세상을 떠났다。[illegible] 그의 정신은 오늘에도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李康雨기자】

제12기 名人戰 挑戰5番棋

第4局 第10譜 150~170 (각5시간 덤5집반)

白(名人) 曺薰鉉〈2勝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2敗〉



曺名人 필사의 추격

[illegible]

文化短信

국제와이즈맨클럽 大會 내년7월에 서울서 開催

세계54개국 1천여 이상의 소속 클럽을 가진 전통을 가지고있는 국제와이즈맨 클럽의 제55차 세계대회가 내년 7월20~2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열리는 세계대회를 계기로 한국 와이즈맨 회원 1천여명을 맞을준비에들어갔고 서울종로 YMCA회관 711호실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내년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게된것은 제56대 세계총재로 한국와이즈맨 명예총재 嚴씨가선되고 4년전부터 적극적인활동을펴왔기때문이다。

친교、교양、봉사의 3대 강령실천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게된 세계대회는 세종문화회관과 롯데호텔 메인홀에서 행사를갖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위한 선각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다짐하게된다。

에스페란토學會 國際大서 강습회

국제대학에스페란토학회는 10일부터 29일까지(하오6시30분~8시) 국제대학 206 강의실에서 에스페란토 무료보급강습회를 갖는다。강사에는 손호철씨(에스페란토협회운영위원)、접수는 10일까지 국제대학수위실。

國際法학회 세미나

대한국제법학회(회장 李漢基)는 14일하오3시 프라자호텔 22층에서 오오누마·야스아끼교수(大沼保昭·東京大법학부)초청 세미나를 갖는다。세미나의 주제는 「在日한국인의 법적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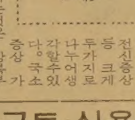
漢學연수원모집

泰東고전연구소(소장 任昌淳)는 給費漢學연수원을 모집한다。자격은 대학졸업자로 앞으로 3년간 漢學을 전수할 사람으로 연수과목은 漢學의 기본인 四書 三經과 史書·文學書등。문의처는 서울鍾路區 慶雲洞 儒道會(23)5105。

現代人의 健康百科

胃癌 증상
上腹部통증·구토·식욕부진 나타나

朴灵南【醫博·漢陽大 내과교수】



위암은 어느정도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세가 없는 경우가 많다。증상이 있다해도 위암 특유의 것이 아니라 위염과 위궤양의 증상과 흡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다시말해서 소화가 잘 안된다든가 상복부가 거북하다거나 하여 위염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크게다를바가없다。

위암환자가 호소하는증상은 국소증상과 전신증상으로 크게 나눌수있다。국소증상 가운데 흔히 호소하는것은 상복부의 통증이다。통증은 사람마다 달라 가벼우면 상복부의 불쾌감정도에서 심하면 두통을 나타낸다。사람에 따라서는 심한 통증을 호소하기도한다。통증은 대개의 경우 지속적이다。식사와의 관계는 일정치 가않다。

噴門部에 암이 있으면 통과장애가 나타난다。이같은 연하곤란이 심해지면 음식을 삼킨후 곧 토해내게된다。연하곤란은 딱딱한 음식일수록 심하게 나타난다。암인경우엔 치료를해도 증세가 좋아지지않고 날이 갈수록 점점더 짙어져 가는것이 특징이다。

幽門輪 부근에 암이 있으면 협착증상이 나타난다。이때문에 음식물이 정체、팽만감과 함께 구토 구역과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유문협착이되면 정체된 음식물과 위액분비로해서 명치부위의 가슴이 쓰리고 아프며 트림이 자주난다。

식욕부진은 위암의 초기때 부터 나타날수 있다。그러나 진행된 환자의 대부분이 식욕부진으로 고생을 한다。고기、생선과 같은 단백질과 기름기를 싫어하게 되는 식성의 변화가 일어나기도한다。

증세가 한층 짙어지면 토혈과 하혈이 나타난다。위암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보통때도 암성궤양 腫瘤표면으로부터 출혈현상이 일어나 潛血반응을 보이지만 때로는 괴사붕괴된 병소로부터 대출혈을 일으켜 토혈과 하혈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상복부에 암종(腫瘤)이 만져지는것이 보통이다。암종이 만져지면 주위의 다른 장기로 암종이 번져(轉移)갔다고 보아야 한다。위암환자는 또 위액이 無酸이거나 低酸일경우가많다。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나기도 한다。

전신증상으론 체중감소、빈혈、권태감등이 있으며 말기엔 腹水와 浮腫이 나타난다。그러나 위암의 초기증상은 암이아닌 良性의 위염환자에서도 나타날수 있어 증상만으로 암을 진단하기란 어렵다。

한국등 造船國 오퍼검토
印、貨物船32隻 해외發注

【뉴델리6日AP=聯合】인도의 국영해운공사(SCI)는 4억4천만달러를 투입、오는 9월말까지 32척의 화물선을 해외에 발주할 계획이며 이와관련、韓國·日本등 조선국가의 오퍼를 검토하고있다고 [illegible] 해운상이 밝혔다。

[illegible] 해운상은 이와관련 한국、일본、西독일、영국、폴란드、불가리아、유고등 조선국가들이 인도의 화물선구매계획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고 밝히고 이들 국가가 제출한 오퍼를 토대로 8월중 상담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일본등이 화물선구매계획에 민감한 반응을보이고있다고 강조했다。

張吉山 (1626)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86)

날이 새자마자 제일 먼저 떠날 행장을 차리고 오진암을 내려온것은 설유징과 대사가 오가고나서 법주스님은길 선법주였다。풀어가며 인사를 찾아 안부당의 방으로 왔다。안부당은 그날따라 새벽부터 정신이 맑아지며 이야기도 주고받고하던 중이라 대성법주가 뒤늦은 인사를올렸다。안부당은 그를 미처알아보지 못하고 월정사에 새로온 스님으로나 여겼는지 이불깃을 여미며 송구해하는 안색이었다。

『저 갑송이 올시다』

『뭐야…?』

『재인말 살던 갑송이요』

안부당이 갑송이를 코흘리개적부터 모를리가 없었다。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 보다가 웃음을 지었다。

『그래 그래、우리 길산이 짝패이던 항우 같은 갑송이로구나』

돌아와 갑송이를 알아보는것 같았다。안부당의 총기가 길산이도 마주당의 총기를 알아보는 것 만 흐뭇하여 법주 스님과 마주보고 싱긋이 웃었다。

『지금 금강산에서 수도중이랍니다。아주 신실한 수좌가 되었지요』

『옹、부처님께서 점지하신 이는 중이 되구야 만다는구나』

갑송이가 일어나려하니 안무당이 말렸다。

『강원도까지 길이 멀어서 곧 떠나야 한답니다』

안무당의 눈이 감기더니 나직하게 말하였다。

『암 떠나야지。재인말도 없어지고 탑고개도 없어지고…돌아가면 우리 수광대 어르신하구 내가 저승에서 만나게 엿볼이나 올려주어』

법주가 말하였다。

『먼저 가 계시면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났고 길산이 따라 나섰다。박에서 설유징이 기다리고 있었다。길산은 합장 대신에 대성법주와 손을 마주 잡았다。

『우리가 잃은 것은 모두 되찾아서 백성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한양에서 만나게 되도록…』

송속은 헤어졌다。설유징과 도인사가 끝났고 익숙하게 바랑을 짊어진 우람한 대성법주의 모습이 문루 밖으로 사라져 갈때까지 길산은 그자리에 서있었다。법주는 그가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탑고개며 모친의 무덤과 그곁에 묻힌 도화의 묘도 함께 둘러 보겠다는 의사를 비치더니、끝내 휘적휘적 떠나왔던 산문을 향하여 승려답게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아침공양을 마치고나서 해가 높직이 뜬뒤에야 김기강 선흥 이경순 우대용 박대근 동이 우트 물려 내려왔다。김기가 길산에게 말하였다。

『잘두령、산채가 휑하니 빈듯하여 어서 가보아야 되겠소。강서방하구 내가 먼저 가있을테니 모친의 병세를 보아서 며칠 더있다 가 오시지요』

『글쎄、좀 차도가 보이는 것도 같고 한 사나흘 보았다가 그저 그러시면 내 곧 뒤따라 가리다』

대근이 길산에게 다가서서 말하였다。

『먼저 애기한대로 인삼밭의 소출이 되고나면、내가 산채를 도와 힘을 보탤까 하오』

『전에 의논한것처럼 호마가 필요합니다。말과 총포가 있으면 관군은 얼마든지 쳐부술수가 있소』

『산채를 더욱 안전한곳에 심장하여야 겠어요。산에 가기전에 송도에도 좀 들러주오』

길산은 그의어깨넘어로 이경순을 바라보고 있었다。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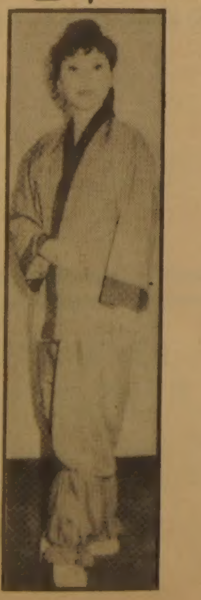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에서 좀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212) 762-5100
연락주소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김미영 한국 민속무용 연구소〉

MI YOUNG KIM'S KOREAN FOLK DANCE INSTITUTE

경력:
● 6세부터 부친 김윤학씨 사사
● 제1회 전국국교(이화여중·고 및 조선일보사 공동주최)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 제4회 전국중·고교 무용콩쿨대회 1등 수상 (이화여대 주최)
● 배화여중·고 동창회 주최 무용발표회 개최
● 김미영 무용발표회 수회 개최(한국예술극장, 전국)
● 무용연구소경영(서울돈암동 12년간)
● 일본및 유럽순회 공연
● 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 연구소 경영



〈만5세 이상 남·녀 어린이 지도 합니다〉
201 VAN HORNE AVE. #509(Donmill × Finch)
499-5079

※고전무용에 필요한 무대장치및 소도구 제작에 오랜 경험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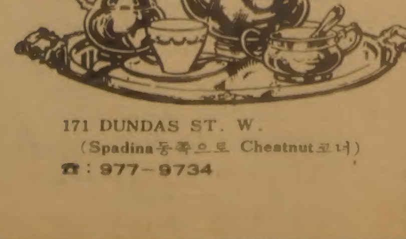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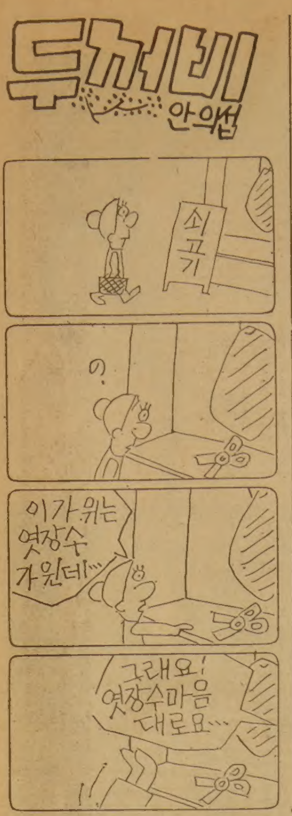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4 PM ~ 4 AM
토~일: 12PM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977-9734



暴力승려등 8명 구속

大檢 佛國寺·月精寺 紛糾수사

1명手配 19명은 계속調査

月精寺、佛國寺등 2대 사찰의 신임주지부임을 둘러싼 폭력충돌사태를 수사해온 대검중앙수사부(李種南대검검사)는 8일 두 사찰의 쌍방 주모자급 8명을 충돌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속하고 1명을 수배, 19명을 계속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두 사찰의 폭력사태에대한 수사처리지침은 어떠한경우라도 국법질서는 지켜져야한다는것이 정부의 강력한의지라는 전제아래서 취해진 것으로 불법집회및 시위、폭력사태는 결코 용납되지않는다는것을 보이는데 있다』고 밝히고『앞으로 불교종단에대한 더이상의 검찰권 개입은 없을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春川지검 原州지청은 月精寺폭력사태와관련、전주지측에서 李相烈스님(39·법명玄雨·전月精寺총무)과 金昌中스님(58·법명法海·普德寺주지) 신도 崔聖善씨(51·月精寺신도회회장) 등 3명과 신주지측에서 金喜鉉스님(42·법명能懸·신주지) 李龍紀스님(29·법명香峯·불교신문편집국장) 등 모두 5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문화재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李盛輝스님(40·법명道行·전月精寺재무)을 수배했다.

검찰은 李載瑛스님(62·三陟新興寺주지) 등 쌍방관련자 10명을 계속조사중이다.

검찰에 의하면 전주지측이 지난달16일자파승려및신도40명을모아 신주지로임명된 金喜鉉스님의 부임을 거부키로 결의하고「五大山정법수호위원회」를 결성、신주지의 입사를 저지키위해 사찰경내에 철조망등 방책을 설치했으며 신주지측구속자들은 지난달 30일 새벽5시께 자파승려40여명과함께 절뒷산을통해 실력으로 절에 불법침입、쌍방이 집단시위를 하면서 서로 치고받아 상해를 가했다는것이다.

또 大邱지검慶州지청도 佛國寺주지임명을 둘러싸고 난투극을 벌였던 전주지측 金相述스님(32·법명宗常·佛國寺재무) 李洪周스님(49·법명 和南·〃총무) 2명과 신주지측에서崔沐鎬스님(25·법명 眞元·芬皇寺총무)등 3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업무방해、문화재보호법위반등으로 구속하고 吳仁根스님(45·법명法遠)등 9명을 연행조사중이다.

구주지측 구속자들은 자파승려신도 2백여명을모아 지난달 23일과 24일 두차례에 걸쳐 절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집단시위를하며 종단이임명한 金月棲신주지를 때밀어내는등 부임을 방해했고 신주지측은 이에대항하여 상대방을밀고 넘어뜨리는등 폭력행위를 한혐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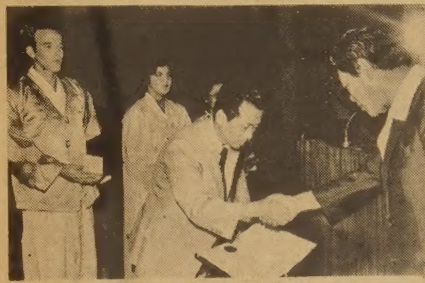
犯行사전계획 안세운듯

행방감춘 順天집 管理人수배

女甲富 피살

속보=서울 龍山區 元曉路 尹景花씨 집단피살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8일 범행에 사용했던 쇠망치와 가위、장갈등도 모두 尹씨 집안에 있던 것임을 확인、범인이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우지 않은채 들어 왔다가 尹씨와 다투고나서 범행한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경찰은범인이 피묻은 옷을 그대로 입고 대문을 빠져나갔을 것으로보고 이범인을 목격한 사람을 찾기위해 탐문수사를 벌이고있다. 또 경찰은 전남順天에있는 尹씨집의 전관리인 林모씨가 지난6월이후 행방을감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林씨의 소재를 찾고있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 465-8167



◇7일 서울「한국의 집」에서 베풀어진 환송식전에서 떠나는 평화봉사단원들이 千命基보사부장관으로부터정부가 주는 표창을 받고있다.

16년 정든韓國 아쉬운作別

美平和奉仕團해단…歸國길에

農漁村복지 향상에 獻身

1百50명 韓服차림 환송식참석

나병村에도 달려가 봉사

지난66년부터 우리나라의 도시、농어촌각지에서 16년동안 교육、보건 복지부문등에걸쳐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던 미평화봉사단이 7일 한국에서의임무를 모두 종결하고 해단했다.

정부는 이한하는 이들을위해 7일 서울「한국의집」에서 주한美평화봉사단 환송식을 베풀었다.

이자리에는 임기만료된 미국인 남녀단원 1백50여명이 한복차림으로 참석、정든 한국과의 작별을 아쉬워했다.

千命基보사부장관은 이날 환송식에서 이들을 떠나는 단원들에게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등을 수여하고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난66년故케네디 대통령의 뉴프런티어 정신에따라 창단된 평화봉사단은 그동안 한국에 1천7백64명의 남녀봉사단원을 파견했다.

이들중 1천1백43명은 각급교육기관등에 배치되어영어교육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쳤고 6백21명은 보건、복지분야등에서 활동해왔다.

특히 이들은 한국인들도근무하기를 꺼려하는 나병、결핵등 전염성질병관리、모자보건관리、장애자재활사업등에 4백40여명의 단원을 투입、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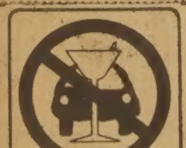
이들은 오는8월31일 안으로 모두 귀국하거나 다른근무지로부임키위해 이한한다.

韓國產 船舶시리즈 우표2種 새로발행

체신부

체신부는 오는 10일 한국산 선박시리즈 우표2종을 새로 발행한다.

올들어 4번째로 발행하는 이번 시리즈 우표는 원목선을 도안으로한 40원짜리 6백만장과 자동차 운반선을 도안으로한 1백원짜리 (사진) 4백만장이다.



政府米 유출

정미소專務등 둘 令狀

大邱서

【大邱=聯】大邱시경은 8일 정부미를 일반시중에 부정유출해온 시내 팔공정미소 전무 姜文秀씨(47·東區新川洞125의3)와 新川洞 제2농협 양곡직매소장 張龍基씨(33)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팔공정미소대표 姜文子씨(53·여)를 같은혐의로 입건했으며 양곡도매상 金永植씨(35·全南光州市東區大川洞)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미소전무 姜씨는 지난6일 상오9시께 정부에서수입한 日本산 현미 20kg들이 6백부대를 백미로 도정、부대당1만1천원씩 총 6백60만원을 받고 농협양곡직매소장 張씨에게 팔아넘겼다는것.

구독신청은
(416)
533·2361

遺品만 還國

바인타브락峰서 殺身한李延大씨

지난달 15일 히말라야산맥 카라코람 바인타브락峰(해발 6,960m) 정상에 도전했다가 조난、사망한 고 李延大씨(28·한국岳友會)의 유품이 동료대원들의 품에안겨 7일하오 7시 KAL편으로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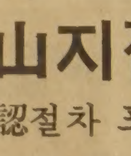
표주박

豫備軍근무나가며 박달란한 사촌형約婚女 친구와욕보여

○…경북聞慶경찰서는 8일 친구와 짜고 사촌형의 약혼녀를 차례로 욕보인 高한덕씨(21·聞慶郡山陽面兄川里)와 같은마을 고길호씨(22)등 2명을 강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마을 高모씨(23)는 약혼녀 李모양(19)이 멀리 전남에서찾아오자 자신이 예비군야간근무를 나가있는사이 사촌동생인 고한덕씨에게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는것.

○…그러나 고한덕씨는 이날밤9시께 같은 마을의친구인 고길호씨를 불러내 李양과함께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술을마신후 李양이 술에취해 정신을잃자 번갈아가며 욕을 보였다는것.【聞慶=聯】



大入學力고사 작년보다 쉽게出題

文敎部 82학년 出題방향 발표

高1~3年범위서 골고루

零點받은者등 脫落 검토중

82학년도 대학입학학력고사(11월24일실시) 문제는 고교1~3학년 교과과정 범위내에서 지난해보다 쉽게출제되며 출제과목과 출제의 방법、시험시간표는 종래의 예비고사와 동일하게된다. 문교부는 8일 82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출제방향을 발표、『대입학력고사 출제는 고교교육정상화의 정착을위해 학교수업과 자습만으로 충분히 풀수있는 쉬운문제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英語문제 配點등 변동없어

答案紙는 보라색 3倍크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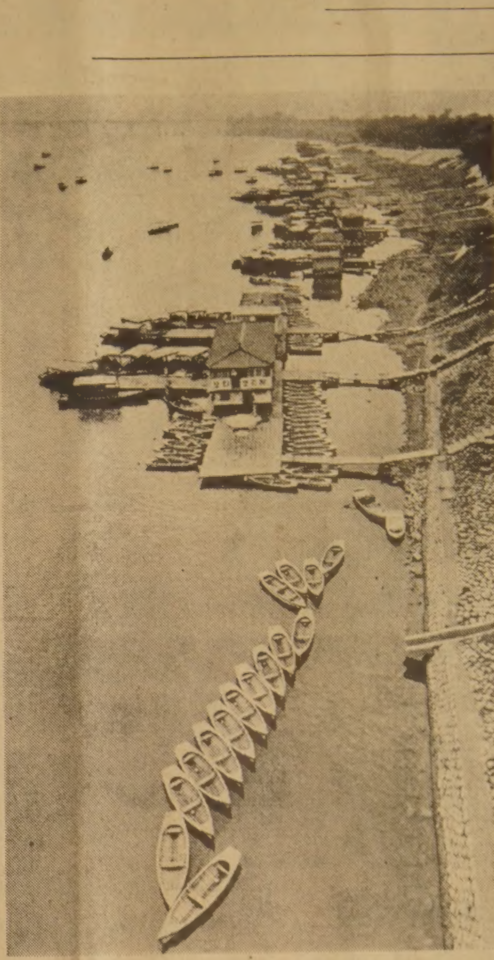
崔至熏학력평가 관리위원장은 이날『대입 학력고사의 취지는 대학교육을 무리없이 받을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는 정도』라면서『이번 출제는 과외공부가 전혀필요 없을만큼 쉬운문제들이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崔위원장은 또 올해부터 예비고사가 학력고사로 바뀜에 따라 종래 입정점수이상자에게만 발급되던 합격증대신 성적통지서가 발급된다고 밝히고、이통지서는 새학력고사령에 따라「학력고사의 전과목을 유효하게 치른 수험생」전원에게 발급된다고 말했다.

崔위원장은 그러나「전과목을 유효하게 시험친자」의 구체적범위는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면서 ▲부정행위자에게 성적통지서가 발급안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과목 결시자 ▲한과목이라도 0점을 받은자등에게 성적통지서를 발급할것인가의 여부는앞으로 연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崔위원장은 또 최근논란된 영어회화문제출제에도 언급、2~3년내에 영어과목의 출제방식을 바꿀생각은 전혀없다면서、82학년도의 영어문제도 지난해와 똑같은 영역에 같은 배점으로 출제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교부는 82학년도대입학력고사의 응시원서를 오는 9월24일부터 10월8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에 접수토록했으며 답안지 크기는 21.5×27.7cm크기로、지난해보다 약3배정도 크게 만들어 색깔도 빨간색에서 연보라색으로 바꾸는한편 기표란의 형태도 작은사각형에서 0형으로 바꾸었다.



◇避暑客발길끊긴 유원지 가을같은 서늘한 날씨가 연5일째 계속되자 피서지를 찾는 발길도 갑자기 끊어졌고 복더위때 한몫을 톡톡히하던 보트들도 찾는사람이 없어 줄지어 묶여져있다. (8일하오 뚝섬에서 鄭[illegible]기자찍음)

新政黨대변인令狀

택시配定·融資알선미끼 喝取

【大邱=聯】大邱지검특수부(朴永漢부장검사)는 8일 택시를 증차시켜주거나 은행융자를 받아준다고속이고 거액의 커미션을 받아먹은 新政黨중앙당 대변인 高在九씨(34·서울江南區方背洞 삼오아파트 2동202호)를 사기및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따르면 高씨는 지난해 1월하순 서울中區明洞 로얄호텔 커피숍에서 大邱 광성택시회사 대표 李千輪씨(54·大邱市中區仁橋洞89의1)등 2명에게 교통부고위간부에게 부탁、영업용택시 30대를배정받아주는대신 3천만원을 받기로하고 이들로부터 교제비조로 3회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냈다는것.

高씨는 이밖에도 지난79년 10월초순 大邱市中區下西洞 금호호텔에서 건축업자 郭光鍚씨(51·大邱市南區鳳德洞)에게 주택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융자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5회에 걸쳐 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高씨는 지난 78년 경북도교위 가짜교사자격증 부정사건때 가짜교사로 적발돼 大邱지검의 수배를 받아왔었다.

초가을날씨 5일째

來週엔 다시더워져

지난5일부터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받아 무더위가한풀꺾인 우리나라는 기온이예년보다 3~5도나떨어져 냉해가 걱정되는 서늘한날씨를 보이고 있으나 내주후반에는 다시 회복해 예년과비슷하거나다소높은 더운 날씨를보이겠다고중앙관상대가예보했다. 관상대에 의하면 9일은 북쪽을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받아 전국이 흐리고 곳에따라 소나기가내리며 기온도 예년보다 2도가량 낮겠다는것. 이같은 날씨는 내주전반까지 계속되지만 후반부터는 다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우리나라까지 확장、맑고 무더운 날씨로돌아온다.

한편 주말인 8일서울지방의 최고기온은 예년보다3·7도가 낮은 27도였으나 大邱 부산 光州 木浦등 남부지역은 모두 30도를넘어섰다.

15일 光復節날 通行禁止 해제

정부는 8일 光復節을맞아 15일 자정부터 16일새벽4시까지 通禁을 해제한다고 官報를 통해발표했다.

韓銀 前釜山지점장 구속

不法引出사건 "承認절차 포기 職務유기"

【釜山=聯】속보=한국은행 부산지점 2억5천여만원 불법인출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7일밤 前韓銀부산지점장 朴元雨씨(51)를 직무유기및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부산교도소에수감했다.

검찰은 ▲박씨의 현금지급행위는 법적근거가 없고▲한은총재가 공식통화 방법이 아닌 사적전화로 부산지점장에게 현금지급의 지시를할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朴씨는 범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1일 상오8시 출근、현금지급시간인 10시10분까지는 2시간이상의 여유가 있었음에도 본점에 확인하는등 적법한 지급절차를 포기했고▲위조문서에 기재된것이 상식적으로도 알수있게끔 국가기관의 명칭이 4번이나 틀렸고 인쇄날인된 실인이 성명과다르며 문서의형식도 제대로갖추지 않은점등을 자세히보지 않고 자신이 사기범을 의심했으면서도 안일한 생각에서 구태의연한 자세를갖고 행동했다는점을 들어 구속했다고 밝혔다.

◇朴元雨씨

검찰은 朴씨에대한 구속영장에서 밝힌 범죄사실로 한국은행 법에의해 공무원신분을 가진자로서 가짜 전화를 받고도 총재지시에 맹종하겠다는 생각에서 범인 遺의신분을 확인도않고 현금지급에 필요한 국고수표가 첨부되어 있지않음을 확인하고도 지점장의 권한을넘어 가지급형식으로 지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할 본점 계리부장과의사전합의및 총재의승인등 절차를 포기·직무를 유기함으로써 한국은행에 재산상손해를 끼친 혐의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詩壇

普門湖에서

崔勝範

불국사 가는 길
보문호 푸른 수면
떠노니는 白鳥
아침 햇살 속
新羅 뒤
천년 역사가
물결져 와
눈물 도네。

두리 둥실 에워싼
능선을 이리 곱고
어리고 맺힌 기운도
선하고 뚜르거늘
천년을
왜 그리 거칠었던가
꿋날이 찡
눈물 도네。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 월~목·9 : 30AM~7AM
금·9 : 30AM~8PM
토·9 : 30AM~6PM
주 소 : 629 BLOOR ST. W. TOR.
전 화 :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월,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편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웅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 (416) 977-9818

(香港) 횡콩네 사람들

廣州행 하루 두차례떠나

T V·라디오·카메라등 家電제품이 人氣

中共行 열차

秋夕엔 일주전 豫約해야

◇『진짜 竹의 장막 사시오』

【자보의 홍콩素描에서】

【홍콩=金漢積기자】

千字春秋

비행접시와 도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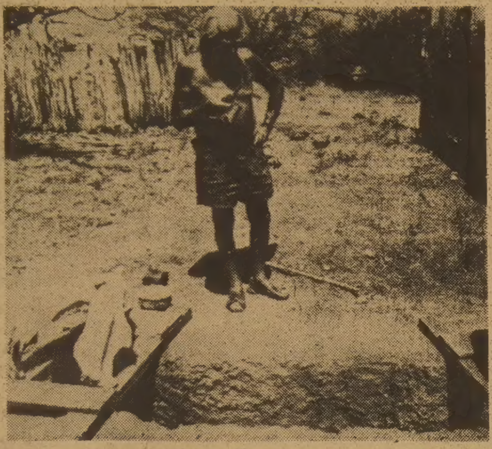
權寧大

〈한국에너지硏 고문〉

세계의 社會面 · 各界의 사회면

내가키운 獅子들은 지금도 부르면 달려옵니다

케냐平野서 獅子보호에 몸바친映畵「엘자」의 主人公「애덤슨」씨



◇한마리의 사자가 되어 사자들과 사는 애덤슨翁。손수 코끼리 아래뼈로 만든 화장실 앞에선 그는 자연으로의 복귀를 꿈꾼다。

영원한 動物낙원 이룩이 餘生의꿈

지난4월 아내잃고도 불같은 의지 안굽혀

한땐 보호地域 돈내고 빌리기까지

【코라·로크(케냐)=AP】

江原道 무우·배추 大豊

【春川·太白·寧越=聯】

營農機械化에 차질

東海岸농민 旱害극복사업으로

【浦項=聯】

達城공원 동물원서 사자가 새끼넷順産

【大邱=聯】

바다서 T V62臺 건져

침몰 실버스타號 積載品인듯

【東草=聯】

記者의 눈

冷血흐르는 國際社會

【崔海運기자·外信部】

歌手로즈 史上 최고의 개런티

1億17億원에 再協계약

RCA 社勢확장따라

노래도 映畵化 계획

【AP】

千4百여조합 82萬명加入 2,700億저축

인터뷰

個人아닌 「한국信協運動」에의 표창

막사이사이賞수상 康貞烈씨

한국信用協同組合의 創始者

高利債쓰는 零細商 안타까와 60年시작

푼돈모아 싼利子共濟활동

◇康貞烈씨는 앞으로도 信協운동에 온정열을 쏟겠다고 말했다。

【崔相泰기자】

부동산 매매

1.도나스 스토어에 온 힘을 기울여 왔읍니다.
본사직영의 스토어 에서 여러분이 기술 연마 하는데 퍽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주매상 : $12,000짜리
2. 〃 $10,000짜리
3. 〃 $ 7,000짜리
$ 5,000짜리
$ 4,000짜리

2.건물매매 5스토어+5아파트, 20년됨
ASKING : $450,000 다운 : $150,000
NORTH YORK소재

3.바라이어더 스토어 : 주매상 10,000
스카보로에 있음.

신용을 본위로하는 이훈모 부동산을 찾아주세요.

이훈모 부동산회사 ☎ : 221-2084
633-6813

(4975 YONGE ST·AT SHEPPARD ST)

직원모집

지난 5월 확장 이전하고 6월1일부터 캐나다 교민사상 최초로 일간을 발행하고 있는 본 〈한국일보〉사는 업무량의 격증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 자 : 기자 경험자 또는 기자로 훈련받고 싶은 분. 외부취재. 사진촬영. 번역. 편집등을 원하시는 분.
업무사원 : 전화응답. 자료정리등 총무부 근무.
발송사원 : 신문에 주소찍기. 우편국 발송. 식품점 배달등.
광 고 부 : 광고접수. 광고문 번역. 광고장부 정리. 디자인등.

①성별, 연령에 대한 차별은 없읍니다.
②무자격자라도 근무를 희망하시면 일차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③희망자는 이력서 1통 지참,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④신문사 일은 항상 새롭고 도전적입니다. 쉴새 없이 머리를 써야하고, 시간을 다투는 일들입니다. 교포사회는 물론 캐나다사회를 최단시간내에 알고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사귀게 되는 첩경입니다.
신문사의일의 특질은 활동적이며 진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발전을 원하는 진취적이며 건설적인 인재만이 적임자라 하겠읍니다.

1981년 8월 일

한 국 일 보 사

1025 DUPONT ST. (W. OF DOVERCOURT) (416) 533-2361-4

구 혼

한국의 모대학 불어강사로 근무하고있는 실력있고, 건강하고, 얌전한 28세의 미혼 여성임.

불어사용 지역에 살고있는 분이면 더욱 좋겠으나, 캐나다 어느 지역이건 상관없음.

건강하고 능력이 있는분의 연락을 바랍니다.

연락처 : 토론토 (416)533-2364
Mrs. 김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 : 532－6160

밤12시에서 아침 8시 까지 일하실 여자분 구함.
1468 QUEEN ST·W 도너츠 샵에서
☎ : 531－2689

스토아 헬퍼구함 (영×휜치지역)
☎ : 222－2848

출퇴근 하시면서 여아 돌봐 주실분
☎ : 921－5684(B) 921－8102(R)
(BLOOR×SPADINA서브웨이 옆)

주방헬퍼구함(남자1명, 여자1명)
628 BLOOR ST. W 한국관
☎ : 536－0290

(1)출퇴근 하시면서 애기봐 주실 할머니
(2)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 : 2414755

재봉사 약간명 모집
보통 공장에서 하는 일들이며, 또한 재단실에서
헬퍼하실분도 구합니다.
연락처 : 952 QUEEN ST. W. (오싱톤×퀸)

전자제품 만드실분 약간명 모집

잘 건설된 전자공장에서
경험있는 전자제품 만드실 분과
전자 기술자를 모집 합니다.
오전, 오후, SHIFT WORK.

직접 내방 요합니다.
DORCHESTER ELECTRONIC CO.
40 FIMA CRESCENT
(Q·E·W· 427지역)

매매및 양도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 233－2576

벡커매매
년매상 $300,000이상＋로타리오
☎ : 783－1984

작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가격 : $30,000＋스탁
☎ : 266－5715(오후6시 이후 연락바람)

OPENWINDOW BAKERY & GROCERY
1550 Bloor St. W.

UPRIGHT 피아노 세일
TUNE 되어있는 우수한 상태
$680 ☎ : 451－6751

좋은위치에 자리잡은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1801 LAWRENCE AVE. E SCARB.

미시사가 매매 TOWER REALTY LTD.
리스 20년 코너에 위치 드라이빙 레스트랑이나
도넛샵 하기에 이상적인 위치.
집주인이 새 건물을 짓는데 도와줄것임.
FRED MARTEZOS ☎ : 536－5000

드라이빙 레스트랑 매매
새로 시작한 비즈네스이며 앞으로 발전성 있음.
가족 비즈네스 혹은 파트너 둘이 할 수 있음.
아스킹 : $185,000 IHOR DZIADYK
☎ : 763－5555
R. CHOLKAN CO. LTD. REALTOR

남녀 운동복점 매매
또한 재봉틀도 있고 재단업도 할수있음.
☎ : 531－2611
1552 BLOOR ST. W.
SMITH SPORTSWEAR

GIFT & VARIETY STORE
연평균 주매상 $5000이상, 주 $300～$400
＋EXTRA인컴.
3200 ERINMILLS PARKWAY, 미시사가
(MILLWAY SHOPPING CENTRE, 1 BLOCK N. OF DUNDAS)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프렌차이스)
주매상 : $7000이상 렌트 : $1200
리스 : 5년＋5년옵션
주5일영업. 다운페이먼트 5만불
관심 있으신 분은 직접 내방 요망.
169 QUEEN ST. E

3베드룸 방갈로 매매
크기 40×120피트
베이스먼트 다 되어있고 옆에따로 붙어있는
가라쥐 있음.
문의전화 : 422－0816

머니 메니컬스
(1)과일＋야채－번잡한 몰
(2)버라이어티스토아－주택가
(3)AUTO BODY SHOP－ 발전된 비지네스

대지
(1)타운하우스
(2)아파트 빌딩
(3)단독 가족 LOTS

☎ : 336－2121·827－8300
LOUIS BATTISTA, JIM STALFORD

작은가게를 원하시는 분 : 리스5년＋5년옵션,
렌트 $650(2층 살림집있음)
☎ : 656－7753

렌트

방세놓음(독신원함) 8월24일 입주가능
PAPE서브웨이에서 1브럭 $130
☎ : 466－3764 (오후4시이후 연락바람)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액자, 오일페인팅(유화)판매 조 혜 숙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새한칼라 현상소
63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Can Am Coin Investments Ltd. －25년간 경력－
금동전, 은동전을 최고가격으로 드립니다.
329 QUEEN ST., WEST · TORONTO, CANADA · M5V 2A4
Telephone: (416) 366-3061 · 366-3062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30(R) 변 달 원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아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중 남

식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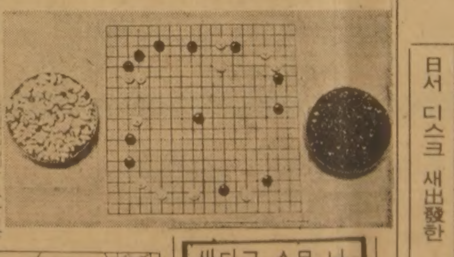
大 生 園
짬뽕, 각종만두, 두부탕, 닭튀김, 왕새우 볶음,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볶음밥, SEA FOOD.
월～목 11 : 30AM～1 : 00AM, 화 : CLOSE
금, 토 10 : 30AM～2 : 00AM, 일 2 : 00PM～12 : 00PM
☎ : 929－5048, 961－3539

주간女性 주간女性

새상품

바둑알 突起… 어디서나 손쉽게
「피크닉 磁石 바둑」

여행이나 등산 낚시등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즐길수있는 바둑판(사진)이 나왔다。가로 세로 22cm가량인 바둑판은 얇은 강철에 비닐이 입혀 반으로 접도록 되어있다。종래의 자석바둑판과 다른것은 바둑알의 중앙에 돌기가 있어 바둑알을 손쉽게 잡고 놓을수있는게 특색。바둑알을 포함한 바둑판의 무게는 4백g。한쪽면은 장기판으로도 사용할수 있다。상품명은 「피크닉자석바둑」。서울경호산업(☎ 1159)의 아이디어상품으로 가격은 2천원。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畵 딘·영 作

"가구조사중입죠" "선생님댁서 누가가장 이시죠?" "당신이잖아요, 여보" "나요!"

싸다고 소문 난 가나안
카텐
33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演藝소식

○○○○○○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가수 혜은이와 文珠蘭이 최근 신곡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재개했다。文珠蘭은 日本 킹레코드사와 2년간 전속계약을 맺었고、혜은이는 화비였던 작곡가 吉屋潤씨와 다시 손잡고 신규레코드사 太陽음향에서 활동한다。
○○○○○○

「잊게해주세요」신곡내놔 혜은이

팬들에게 새모습 보이겠다

○혜 은 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그래서 지난 2월 지방공연을 끝내고는 5개월동안 쉬면서 신곡을 준비했지요。팬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도 싶었고…』

혜은이의 말이다。깜찍한 용모에 윤기있는 얼굴、건강한 모습이다。

『사실 지난 5개월은 번민이 많은 세월이었어요。스승(吉屋潤씨)이나、매니저(金炳楨씨)나의 갈림길에서 방황했지요』

吉·金씨는 혜은이를 중심으로 포·시즌프러덕션을 이끌어왔다。그러나 최근 吉씨가 신규 레코드사인 太陽음향회장자리에 앉자 프로이가 가게 지고 말았다。그리고 혜은이도 吉씨를 따라 太陽음향사화 一프러덕션(대표金映鉉)에 전속한것이다。

혜은이의 새출발노래는 吉屋潤작사·작곡의 「잊게 해주세요」「밤하늘의무지개」「엄마없는아이」「부모님사랑」등 10곡。太陽음향의 출반 1호음반이다。「에사랑의 끝말은」「제3한강교」등 디스코風과는달리 애틋한사랑을 차분하게 노래했다는것이 작곡자吉屋潤씨의평。

日서 디스크 새出發한 文珠蘭

"다시 태어난 기분이예요"

○文 珠 蘭

『다시 태어난 기분이예요。가수로서의 생명이 끝난줄알았는데…』

日本에서 출반된 2장의 디스크(SP·LP)를 매만지며 文珠蘭은 울먹인다。그의 日本 킹레코드사 전속소식은 지난 27일 킹레코드사 제작부장 宇田川銀一씨와 작곡가三島大輔씨가 내한、디스크를전달함으로써밝혀졌다。

文珠蘭은 지난 4월 朴椿石씨의 주선으로 도일、3개월에 걸쳐 킹레코드사에서 「棧橋」「지로와나」(작곡三島大輔)를 비롯、우리나라에서의 히트곡 「공항의 이별」「가슴 아프게」「이슬비」등을 2장의 디스크에 담고 돌아왔다。이 음반 출반과 함께 2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했는데、인세를 받는 조건이라고。TV및 라디오 출연과 작품 발표회를 갖기위해 오는 7일 도일할예정이다。

文珠蘭의 새디스크 출반을 총지휘했다는 宇田川銀一씨는「文양은 매혹적인 저음이 자랑이다。日本 정상급의 가수에 절대 뒤지지 않는 좋은 가창력을 갖고 있어 기대된다」고 극찬했다。

모든 좋이 위해 生 〈170〉

灰色 노우트②
趙善作 禹慶熙畵

되풀이 강조하게 되는 바이지만 내가 아이를 원하는 것은 그와 나의 결혼의 원선이었다。결혼의 형식은 이미 갖추어졌고 이제는 아이를 갖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그렇게 되면 그간의 우여곡절은 한갓 불거졌던 사라질 뿐이며 죽는 날 내가 지지른 일생일대의 실수도 없는 듯이 잊혀질 것이다。

흔히들 실수를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충고를 한다。한번의 실수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으며、그것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말한다。요컨대 두번째야말로 실수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새 남자를 선택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그러나 두번째라고 실수가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세번째도 그렇고 네번째도 그렇다。그런 식으로 내 삶이 넘마가 되는 일을 나는 참을수가 없는 것이다。반드시 그의 아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 생각은 이렇게 싹이 트는 것이었다。

그와 결별하고 제빛의 계절을 보내는동안 나는 무쉬코 주위의 충고를 받아들이기도 했었다。몇명의 남자와 맞선을 보았던 것이다。정확히는 두 명이었다。하나는 건축 기사로、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가 있는동안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헤어진 서른 살의 남자였고、다른하나는 고학으로 자격증을 딴 가난한 약제사였다。그러나 각각 한두 번씩의 데이트로 그 두 남자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들과의 두번째 결합으로 내 삶이 넘마가 되리라는 확실한 깨우침이었다。약제사에게는 그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바쳐온 그림 그리는 여자가 하나 있었고、때문에 그에게 있어서의 결혼은 보다 현실적인 필요에 부응한 소극적인 것임을 나는 재빨리 눈치 챘으며、건축 기사는 서로가 각각 한번씩의 뼈아픈 과거가 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그가 아직도 헤어진 아내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던 것이다。요컨대 나는 새 남자와 신장개업할 스타일이 못되었다。

정통의 일이 있은 뒤 나는 하루하루를 손가락으로 꼽아가며 초조하게 회임의 징조를 기다렸다。첫달의 그것이 유예되자 나는 너무 기뻐 눈물까지 흘렸었다。아들을 낳으면 나는 그처럼 바람둥이로 기르리라고 생각했다。아파트에 아내를 두고도 밖에서는 귀여운 애인을 거느리는 유쾌한 바람둥이로 길러야지。또 나같이 처량하게는、그래서 귀여워 죽겠는 여자도 한 명 있으면 더욱 좋고… 두번째 달의 그것마저 유예되자 나는 너무 흥분해서 입맛까지 잃었으며、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헤헤 웃음까지 터뜨리고 다녔었다。틀림없이 아들일 거야。그를 닮아서 키가 훤칠한 미남이겠지。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곧 연애를 시켜야지。학교에 다니게되면 매일 화장실 벽에 연애편지를 보도록 시키고、또 어떻게 할까。여자 친구들이 무시로 그애 방을 드나들게 하고、오늘은 이 애하고 내일은 저 애하고 자도 나는 모른체할거야。

그런데 이런 확실한 회임의 징후가 거짓이었던 것이다。상상임신에 대해서 나는 전부터 알고 있었고、이모부님댁의 병원에도 일년에 한두번 그런 얼척은 환자가 찾아오는 일은 있었다。그러나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키가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내면서 세번째 달에는 어쩌는수없이 다른 병원을 찾았는데、용종보 여의사가 그런 진단을 내린 것이다。

『그럴리가 없는데요』

라고、나는 무식한 환자처럼 비명을 올렸었다。그런데 이튿날에는 두달이나 속여왔던 그것이 지주처럼 찾아온 것이다。

해외걸작만화

"I love you!"
「널 사랑해!」